

ISSN 2733-564X

부부가족상담연구

제5권 제2호 (2024년 10월)

KAMFT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Kore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부부가족상담연구

제5권 제2호 (2024년 10월)

목 차

□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를 위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 오테주 · 박은아	1
□ 상담사의 영성 인식과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이소연 · 곽유영 · 박효숙 · 황혜진 · 하영윤	17
□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박현수 · 김용수	45
□ 중등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오윤석 · 정여주	65
□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한미영 · 천성문	83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를 위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

오 태 주**

박 은 아***

S_PACE Inc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본 연구는 가족확대기 한인 이민 1세대 부부와 관련 전문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들에게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전문 상담사들에게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에 참여한 부부와 전문 상담사 전체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였고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있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정적인 의사소통, 원가족의 영향,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를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93%가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으며, 프로그램은 120분씩 평일 1회, 주말 1회로 총 6회기, 3주 동안 진행되는 집단상담 형태의 강의와 실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상담사들은 구조적인 대화법 제공, 가족체계 이해, 부정적 대화 패턴 인식, 부부 간 차이 탐색,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안전한 소통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민 1세대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관계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관계증진, 의사소통, 분리개별화, 양육스트레스

* 오태주(2024)의 데이브레이크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오태주(LCPC), S_PACE Inc(구 좋은마음연구소) 상담 디렉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은아,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커플과가족치료대학원 상담학 교수,
321 South State College Blvd. Anaheim, CA 92806, USA.
Email: eunapark@daybreak.edu

서론

이민 1세대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언어 장벽, 실업, 불완전한 고용, 신분 문제, 문화 적응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박혜성, 2020; Park et al., 2000). 이민 1세대란, 한국에서 출생한 후 18세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한국인이라는 강한 정체성과 한국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이민자들이다. 특히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는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에서 가족형성기를 지나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가족확대기 부부들로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가사, 양육 경제활동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지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남편은 이 기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아내의 증가된 경제적 역할과 변화된 태도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갈등을 경험한다(Kim et al., 2005). 이러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부부의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Min, 2001),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부 갈등과 가정 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민자들은 개인적인 성장과 자녀 교육의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이민을 선택했지만, 경제적 문제로 인해 생계를 우선시하게 되다 보니 특히 아내들은 언어 학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병원 방문 시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가족확대기에 있는 이민 1세대 부모는 미국의 학교 시스템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한된 언어 능력으로 인해 자녀에게 적절한 학업 지도를 해 주지 못하며,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으로 우울증, 낮은 자존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남편들 역시 전통적 성 역할의 변화와 가족 내 권위의 약화로 인해 좌절과 불

만을 느끼며, 언어장벽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감 결여,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Kim & Im, 2015; Min, 2001). 이러한 상황은 부부간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이민 사회에 적응한 자녀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을 만들며, 부부관계에도 부담을 느끼게 한다(Kim & Ryu, 2005).

부부관계는 단순히 부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가족의 행복과 불행은 부부관계의 질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과 이민 생활 적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이민 1세대 가족확대기 부부들은 가정적 및 심리적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민정, 2018). 부부의 질은 부부가 갈등을 극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하며, 이는 가족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한다(Myers, 2000). 하지만 역할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족확대기 부부들은 가족으로부터 내적 지원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최정혜, 2006)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확대기란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가족 구성원의 수와 생활규모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가족발달론적 관점에서 가족확대기 부부는 출산기와 자녀양육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부부관계는 양적·질적으로 변화를 맞이한다(정현숙, 2016). 이 시기 대부분의 부부는 자녀 중심적 생활을 하며 자녀 교육이나 부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로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나 갈등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쉬우며,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자체도 떨어져 결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윤, 2015).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증가로 부부가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 문제로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미주워싱턴한국일보, 2022).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f Greater Washington)에서 발표한 법률상담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의 한인사회의 이혼 및 가정폭력은 2022년에 2021년보다 두 배로 늘어나 한인 이혼이 급증한 것을 입증했으며, 이러한 이혼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미주워싱턴한국일보, 2022). 한인 부부의 이혼율은 다른 아시아계 이민 가정보다 높고(김효순 외, 2010) 우울감에 취약하며(박혜성, 2019) 의사소통과 자기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장이, 2014). 부부갈등은 당사자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녀 세대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정민선 외, 2022)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으나(방성수, 장보임, 2003) 이민 1세대 부부들은 부부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도 타국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풀어낼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 et al., 2021).

코리아 데일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CDMH),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2011이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계 미국인의 자살률이 다른 아시아계 인종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의 주요 원인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문화적 금기, 학업 및 직업에 대한 높은 기대, 그리고 두 문화 사이에서 느끼는 고립감이 지목되었다(The Korea Daily, 2024). 한인 이민자의 자살은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하지만 이민자 가정을 도

울 수 있는 한국어가 가능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정신건강 상담가는 극히 부족하고 그 수가 제한적이며(USC Center for Health Journalism, 224) 건강 보험비가 높은 미국에서 보험 없이 전문적인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매우 높은 문턱이다. 이혼하지 않은 부부 가운데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겪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는 결혼관계가 종전의 제도적 관계에서 우애적 관계로 바뀔 때 따라 결혼관계에서 부부간의 친밀감과 만족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져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Snyder, 2020).

게다가, 이민 1세대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전문 기관을 통한 상담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Park & Bernstein, 2008).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이민 1세대 부부와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개선시키기 위해 비영리 기관 및 여러 종교단체에서 다양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성당에서 진행된 ME(Marriage Encounter) 프로그램, 비영리기관의 'Home Sweet Home' 프로젝트, Prepare/Enrich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실시된 '부부학교', '부부캠프', '커플 멘토링 스쿨' 등이 있다. ME 프로그램과 'Home Sweet Home' 프로젝트는 부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 향상을 목표로 했으며, Prepare/Enrich는 부부의 문제보다는 강점을 강조하는 예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교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주로 성경적 가족관과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종교적 배경이 짙고, 외국의 문화적 맥락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한인 1세대 부부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효과검증 및 결과의 타당성 측면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임상 검증이 부족하여 효과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한인 1세대 부부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

영하고 대중화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더욱이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들은 결혼기간 동안 회피해 온 사소한 오해나 갈등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나,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서아연, 최연실, 2019), 부부간 지속적인 갈등의 근본적인 심리적인 요인들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Hutchison과 Suh와의 개별 인터뷰에서, 결혼생활의 갈등이 심각한 부부나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갈등 수준이 높은 경우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며,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의 관계증진을 위한 부부들의 요구와 이들을 상담하는 전문 상담사들의 요구를 종합하여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선호도와 요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를 위한 부부 관계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및 참여의향은 어떠한가?

둘째,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를 위한 부부 관계증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셋째,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를 위한 부부 관계증진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와 이들을 상담하는 결혼과 가족치료사 및 전문 상담사를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란, 18세 이후에 미국

으로 이주하였고 현재 막내 자녀가 대학 진학 등으로 독립하기 전까지의 부부를 의미한다. 대상 모집은 버지니아주 F 카운티에 위치한 다섯 개 교회의 여성 모임과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주민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N=42)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34세 이하	2	4.7
	35세~44세	8	19.0
	45세~54세	11	26.2
	55세~64세	21	50
성별	남	12	28.6
	여	30	71.4
자녀여부	0	-	0
	1	2	4.7
	2	24	57.1
	3	12	28.6
	4 이상	4	9.5
	전업주부	14	33.3
직업	자영업	6	14.3
	직장인(전직)	16	38.1
	기타	6	14.3
	미국거주기간		
미국거주기간	1년 이내	2	4.8
	1년~5년	8	19
	6년~10년	4	9.5
	11년~15년	14	33.3
	16년~20년	6	14.3
	20년 이상	8	19
종교	천주교	4	9.5
	개신교	37	88.1
	불교	0	0
	무교	1	2.3
결혼기간	5년 미만	1	2.3
	5년~10년	6	14.2
	11년~15년	5	11.9
	16년~20년	11	26.2
	20년 이상	19	45.3
	매우 유창하다	5	11.9
영어실력	어느정도 의사소통 가능하다	27	64.3
	기초적인 정도만 가능하다	10	23.8
	소통이 불가능하다	0	0

표 2. 전문 상담사 전문적 배경

자 격	연령	관련 경력
버지니아, 메릴랜드 LMFT, LPCC, LPC, ACS, BC-TMH CIRT, CCPS, APSATS	50세	12년 상담학 교수 센터 임상디렉터 감독자
버지니아,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LMFT, LPCC, LPC, CIRT	56세	13년 상담학 교수 센터 임상디렉터 감독자
버지니아QMHP, CIRT, Prepare/Enrich Facilitator,	59세	7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한인대상 부부/가족 교육 워크숍 진행

이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모집 안내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인들에게 이메일 및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결혼 및 가족치료 전문 상담사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여 3명의 상담사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인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문 상담사의 전문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에 개발에 대한 가족확대기 부부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복연(2012)이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항 구성은 연구자의 수정 검토 과정을 거쳐 34문항을 제작하였으며 구성한 질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담 감독자이며 결혼과 가족치료사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질문지 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8문항),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필요에 대한 인식(11문항), 구성 내용 선호(8문항), 진행방법에 대한 선호(5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필요에

표 3. 가족확대기 부부 설문내용

영역	문항수
일반적인 특성	8문항
프로그램 필요에 대한 인식	11문항
프로그램 구성 내용 선호	8문항
프로그램 진행방법 선호	5문항

대한 인식영역에서는 실제 부부프로그램 관련한 만족도와 어려움 등 부부들의 경험을 파악하였고 구성내용에서는 원가족과의 관계경험이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질문지는 총 4개 영역 총 32문항으로 표 3과 같이 구성되었다.

전문가 인터뷰 개방형 질문내용은 표 4와 같다. 질문은 크게 가족확대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경험과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어려움, 확대기 가족 이민 1세대 부부를 위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제안점 및 장애 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질문으로 질문 내용은 표 4와 같이 이루어졌다.

표 4. 전문가그룹 면담 질문 내용

번 호	질문 내용
1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를 위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의 어려움과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의 가족체계 특징과 부부상담의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4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를 위한 관계증진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제안점은 무엇입니까?

연구절차

본 연구자가 표집한 대상은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이며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42명의 응답자는 익명으로 수집되었고 연구 윤리 준수에 따라 모든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전문 상담사와의 인터뷰는 각각 개인별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이후 연구자가 해당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첫 번째 인터뷰는 2023년 9월 19일에 결혼과 가족치료사(LMFT)이며, 정서중심치료사, 성중독자 파트너 협회 트라우마 전문가(APSATS), 트라우마 중심 인지 행동 치료사(TF-CBT), 성치료 전문가(ACS), 이마고 관계치료사(CIRT)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60분 동안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인터뷰는 2023년 9월 20일에 결혼과 가족치료사(LMFT)이자 이마고 관계치료사인 전문가와 50분 동안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2023년 9월 21일에는 이민 1세대와 1.5세대를 대상으로 부부 워크숍을 5년 이상 20회 이상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마고 관계치료사인 상담사와 60분간 비대면(Zoom)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시작 전에 면담 주제를 소개하고 연구 목적을 설명한 뒤 인터뷰 내용을 녹음 및 녹화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자료분석

설문지는 각 문항별로 평균과 순위 또는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전문 상담사와의 인터뷰 자료분석은 도출된 주제를 바탕으로 인터뷰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요한 요구 사

항이나 요소들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내용, 진행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결 과

부부 설문지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필요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의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35.7%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4.3%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부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는 부정적인 대화 방식, 욕구, 감정, 생각의 불일치로 인한 소통 문제,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지목되었다.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6.1%에 불과했으며, 73.8%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한인 부부를 위한 부부프로그램의 부재' 등이 꼽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응답자 중 63.6%는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9.1%는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배우자와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자기 이해에 따른 변화 경험, 부부관계 및 소통 방법에 대한 이해를 만족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온라인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으며, 93%가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민 후 심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9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부부관계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 부부관계증진 필요에 관한 요구조사 결과

질문내용	응답내용	빈도(명)	백분율(%)
가족 확대기에 있는 이민 1세대 부부에게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실시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
	필요하지 않다	0	0
	대체로 필요하다	27	64.3
	아주 필요하다	15	35.7
우리 부부의 갈등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가능)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17	16.2
	부정적인 대화소통방법	25	23.8
	욕구, 감정, 생각을 공감받지 못하는 소통	22	21.0
	양육 스트레스	20	19.0
	타문화 적응과 언어장벽에 대한 스트레스	6	5.7
	경제적인 어려움	9	8.6
	시댁 또는 처가와와 갈등	6	5.7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워크샵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11	26.1
	아니오	31	73.8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워크샵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번 문항 '아니오' 응답자) (중복 가능)	참여에 대한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	7	9.0
	한인 부부를 위한 부부프로그램이 없어서	18	23.2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해서	11	14.0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라고	10	12.8
	참여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22	28.2
	배우자가 원치 않아서	10	12.8
참석했던 부부 프로그램/ 워크샵에 만족하십니까? ('네' 응답자11명중)	전혀 만족하지 않다	1	9.1
	조금 만족한다	2	18.2
	대체로 만족한다	7	63.6
	아주 만족한다	1	9.1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방형)	남녀의 다름과 배우자를 좀 더 이해하게 됨 나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의 경험을 함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김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됨	n/a	n/a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참여자의 부부 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7.1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8	19.0
	도움이 될 것이다	26	61.9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5	11.9
온라인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참여하고 싶다	16	38.1
	참여를 원하며 지인에게도 권하고 싶다	23	54.7
	나와 지인 모두 필요하지 않다	3	7.1
이민 후 상담/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네	38	90.5
	아니오	4	9.5
상담 또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이유	6	14.3
	부부관계	17	40.5
	가족관계	8	19.0
	자녀교육	11	26.2
상담 또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방형)	상담받음	n/a	n/a
	한국어 상담사 찾기 어려움		
	주위 사람들의 시선		
	상담비 비용 부담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음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 부족		

심리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않은 이유로는 한국어 상담사 부족, 주위 사람들의 시선, 상담 비용 부담, 배우자의 동의 부족,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 부

족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은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구성내용에 필요한 원가족 관련 영역 요구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프로그램 내용 및 원가족 관련 영역 요구조사 분석결과

질문 내용	응답 내용	응답	백분율(%)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서로에 대한 이해	2	4.8
	자기 존중감	10	23.8
	성문제	3	7.1
	양육 갈등	9	21.4
	의사소통	16	38.1
	스트레스 대처방식	2	4.8
어린 시절 또는 결혼 전 나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매우 중요했다	① 매우 그렇다	16	38.1
	② 조금 그렇다	20	47.6
	③ 보통이다	5	11.9
	④ 그렇지 않다	1	2.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0
현재에도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8	19
	② 조금 그렇다	14	33.2
	③ 보통이다	13	31
	④ 그렇지 않다	2	4.8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12
성장하면서 경험한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현재 배우자와의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미친다고 생각한다	14	33.3
	② 어느정도 미친다고 생각한다	28	66.7
	③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0
	④ 영향을 미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	0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주시시오 (개방형)	* 권위적인 말투가 비슷하다		
	* 갈등이 생겼을때 표현하는 방법이 비슷하다		
	* 부모님 부부관계 방식(대화, 돌봄)이 현재 부부관계 방식과 비슷하다.		
	* 내 감정과 관계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 남편에게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일때 불만이 배가 된다		
	* 부모님처럼 대화로 풀어가려고 한다		
	* 남편이 집안일이나 자신의 일을 친절 아빠처럼 꼼꼼하게 해주길 기대하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껴 잔소리를 많이 한다.		
	* 친밀하지 않음이 비슷하다		
	* 부부관계의 패턴과 감정조절 방식에 영향미친다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님의 양육방법이 현재 나의 자녀양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미친다고 생각한다	14	33.3
	② 어느 정도 미친다고 생각한다	28	66.7
	③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0
	④ 영향을 미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	0
자녀 양육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주시시오.	* 나를 수용해주고 사랑을 잘 표현하시던 부모님처럼 하려고 노력한다		
	* 부모님의 말투와 내가 자녀에게 하는 말투가 많이 비슷하다		
	* 칭찬, 격려 받고 자라서 자녀에게 칭찬하기가 용이하다		
	* 자녀들에게 기대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처럼 나에게 했던거 처럼 잔소리를 많이 한다		
	* 부모님 양육방식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고 많이 느낀다		
	* 부모님이 나에게 거리를 둔것 처럼 나도 자녀에게 거리를 둔다		
	*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녀 양육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 배우자와의 양육방식 갈등		
	* 자녀의 발달특성, 기질 이해부족		
	* 부모역할의 부담감		

표 7.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진행방법 관련 요구조사 분석결과

질문내용	응답내용	빈도(명)	백분율(%)
온라인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은 총 몇 회가 적당하고 생각하세요?	총4회	9	21.4
	총6회	28	66.7
	총8회	5	11.9
	총10회	-	0
	총12회	-	0
온라인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의 실시 간격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평일 주1회6주	13	31.0
	평일 주2회3주	5	11.9
	평일1회& 주말1회 총3주	19	45.2
	주말1회6주	5	11.9
	주말 집중 교육(4시간)	0	0
온라인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의1회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90분	18	42.8
	120분	24	57.1
	150분	0	0
	180분	0	0
	기타	0	0
온라인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다음 중 어느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까?	평 일 6PM - 8PM	4	9.5
	평 일 7PM - 9PM	16	38.1
	평 일 8PM - 10PM	3	7.1
	토요일10AM - 12PM	5	11.9
	토요일 6PM - 8PM	3	7.1
	일요일 6PM - 8PM	11	26.2
온라인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진행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강의	28	26.7
	토론	14	13.3
	실습	19	18.1
	훈련	17	16.2
	매체활용	15	14.3
	과제제시	12	11.3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구성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그리고 양육갈등이 순서대로 도출되었다. 원가족 관련 질문에서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매우 그렇다’(38.1%), ‘조금 그렇다’(47.6%), ‘보통이다’(11.9%), ‘그렇지 않다’(47.6%), ‘전혀 그렇지 않다’(0%)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장하면서 경험한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현재 자신의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및 양육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언어 장벽은 부부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대상자 부부들은 부부간의 이해 증진, 정서적 친밀감 강화,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배우자와의 양육방식 갈등, 자녀의 발달특성과 기질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부모 역할의 부담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운영 방식 관련 요구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프로그램 운영방식 관련 요구조사 분석 결과 프로그램 실시 횟수는 총 6회기가 66.7%, 실시 간격은 평일 1회 & 주말1회 총 3주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회기 소요시간은 120분이 57.1%로 가장 높았고 시간대는 평일 7PM~9PM이 38.1%, 일요일 6PM~9PM이 26.2% 순으로 나타났다. 진행방법은 강의(26.7%), 실습(18.1%), 훈련(16.2%), 매체활용(14.3%), 토론(13.3%), 과제제시(11.4%) 순으로 선호하였다.

전문 상담사 인터뷰 결과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개별 인터뷰 결과, 각 전문

가들은 이민 1세대 부부들의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가족확대기 이민

표 8. 전문가 인터뷰 내용 분석결과

1.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를 위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에 진행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사소통 방법의 한계: 프로그램 참여 후 이전의 대화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경향 · 안전한 대화법의 부족: 취약점을 개방/표현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화법이 부족 · 이민 1세대 부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 이민 1세대 가족확대기 부부의 상황에 맞춘 치료적인 부부 프로그램이 필요. · 참여 대상 찾기 어려움: 가족확대기 부부는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자녀들의 야외활동으로 인한 화이트와 보모를 찾는데 어려움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에 물리적 시간적으로 어려움 · 남편들의 낮은 참여도: 남편들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아내에 비해 현저히 낮다. · 취약점 표현의 어려움: 취약점 및 감정을 솔직하게 개방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	
2.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의 어려움과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편의 어려움: 아내의 관심이 아이들에게만 쏠려 부부간의 유대감이 약하다. 취업 기회의 제한으로 자신감 결여와 높은 스트레스 성관계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아내와 다른 양육방법으로 자주 다툰다. 경제적인 책임 외에도 가사일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 아내의 어려움: 항상 바쁜 남편은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는다. 남편이 자녀양육과 가사일을 돕지 않고 권위적으로 아이들을 통제한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남편은 자기가 자라온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다. · 언어 장벽과 세대간의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 미흡	
3.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의 가족체계 특징과 부부상담의 경험은 어떻했습니까?	
·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나 자녀들에게 학습에 적절한 지침 주지 못해 스트레스가 높다. · 부부갈등이나 가정불화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 원가족에 대한 이해 부족: 다세대 전수되는 원가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현재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충분한 내용이 부족하다. · 부모와의 분리 및 분화 인식 미흡: 원가족부모와의 분리 개별화 및 분화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 · 문화적 고유성과 감정 표현의 차이: 우리 문화의 고유함과 독특성을 지키면서도 개방적인 감정 표현의 차이를 다루는 내용이 필요하다. · 뇌 과학 기반 감정 조절 교육 부족: 뇌 과학에 기반을 둔 감정 조절 교육이 필요하다.	
4.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을 무엇입니까?	
·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이해와 각 단계별 발달과제에 대한 인식 · 가족체계와 원가족에서 전수되는 규칙과 소통 방법이 미치는 영향 · 양육자로부터 경험한 좌절감과 미해결 욕구 탐색 및 이해 · 갈등 시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무의식적 대화 패턴과 상호작용을 탐색 및 이해 · 관계증진을 위한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며 구체적 변화목표 설정 및 실천 ·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해 ·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해 · 감정과 사고가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에서 일치하는 메시지로 전달하는 기술 실습 · 자기의 욕구를 의식하고 필요한 것을 긍정적으로 요청 · 부부간의 새로운 관계비전 성립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강화	
5.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를 위한 관계증진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제한점은 무엇입니까?	
· 총 6 회기, 회기당 120~150분 동안 진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 실시 간격은 과제 실천, 변화 기간 확보를 위해 주1회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자녀 학교 일정으로 인해 6주 동안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 주에 2회 3주간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 · 참여 인원은 8커플 내외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여한 부부가 서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주고 받으며 솔직한 부부는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집단 내에서 수용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민 1세대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 · 부부가 안전한 소통방법을 매회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적합한 진행자: 전문 임상상담가이며 결혼과 가족치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치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적합하다.	

1세대 부부를 위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에서 주요 어려움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부부들이 이전의 대화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취약점을 개방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화법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둘째, 물리적 및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과 특히 남편들의 낮은 참여도가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확대기 부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민 1세대 부부의 어려움은 주로 자녀 양육과 부부관계에서 나타났다. 남편들은 아내의 관심이 자녀에게만 집중됨에 따라 부부간 유대감 약화, 성관계에 대한 관심 저하, 가사와 양육의 책임 증가, 취업 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자신감 결여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아내들은 남편의 자녀 양육 및 가사에 소극적인 참여, 권위적인 태도, 소통의 어려움, 고집스러운 양육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자녀와의 언어 장벽 및 세대 간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의 특징으로는 부모 역할이 강조되지만, 자녀의 학업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있었다.

특히, 부부 간 갈등이나 가정불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분리 및 개별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갈등 해결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급한 과제로 언급되었다. 유교 문화가 짙은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와의 감정 표현 차이를 다루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부들에게 뇌 과학 기반의 감정조절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으로는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이해와 각 단계의 발달 과제

인식, 원가족에서 전수된 규칙과 소통 방식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육자로서 경험한 미해결된 욕구와 좌절감 탐색, 무의식적인 대화 패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었다. 또한, 감정과 사고가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를 일치시켜 전달하는 기술 습득, 긍정적인 요청 방법, 새로운 부부관계 비전 설정 및 변화에 대한 의지 강화도 중요한 요소로 제안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총 6회기, 각 회기 120~150분 동안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며, 결혼 및 가족치료에 대한 이해와 관계치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 심리상담가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와 관련 전문상담사들을 대상으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 참여 의향,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법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도 및 비율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참여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 참여한 부부와 전문 상담사 모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이나 워크샵에 참여한 부부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적 제약, 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재, 배우자의 반대 등이 있었다. 이는 전문 상담사들이 지적인

대로, 물리적 및 시간적 제약과 남편들의 낮은 참여도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전 안내 및 홍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응답자의 다수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둘째, 대부분의 응답자는 이민 후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그 이유로 부부관계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자녀교육, 가족관계, 개인적인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가족확대기 부부들이 자녀 중심의 생활로 결혼생활의 유대는 강화되지만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부부관계 문제나 갈등을 간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박정운, 2015). 또한 부부 만족도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최경일, 2019)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민 1세대 부부들은 타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에 맞춘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뒷받침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의사소통, 원가족의 영향, 양육 스트레스를 주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는 이민생활 적응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핵심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해석된다. 대상 부부들은 원가족으로부터 습득한 경직된 가족 규칙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자기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 1세대 부부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고, 오해를 줄이며, 문

제 상황에서도 협력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티어 가족치료 이론이 적합하다고 시사되었다. 그리고 많은 부부들이 어린 시절이나 결혼 전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현재 자신의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모와의 정서적·심리적 독립과 관계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분리-개별화가 가족확대기 부부관계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민 1세대 부부의 어려움이 환경적 요인보다는 관계적 상호작용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부 갈등의 근본 원인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어린 시절의 생존 방식이 현재 배우자 및 자녀와의 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의식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마고 관계치료 이론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오제은, 2005; Banmen, 2013; Hendrix, 2021; Luquet & Hannah, 1996). 즉, 사티어 이론과 이마고 관계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가족과의 애착과 상처를 이해하고, 부정적인 패턴을 인식하며, 안전한 구조적 대화를 통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부부 갈등 해소와 의사소통 향상, 분리-개별화,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응답자 전체가 총 6회기로 진행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주중 평일과 주말 각각 1회씩 저녁 시간에 회기당 120분의 소요 시간으로 3주간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녀 학업과 활동에 방해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선호함을 시사한다. 운영 방식으로는 강의가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실습, 훈련, 매체 활용, 토

론, 과제 제시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가자들이 이론적 지식과 실습을 결합한 접근 방식을 선호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적인 관계 향상 경험을 극대화하고자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요구 분석을 통해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를 위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구성내용, 운영방식에 대한 개발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가 겪는 심리적 및 관계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민 1세대의 다양한 특성과 실제 요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관련 전문 상담사들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요구를 명확히 제시한 점도 본 연구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도출한 점과 이러한 변인 도출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기반한 치료이론 접근을 제시한 것은 중요한 기여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민 1세대 부부의 어려움이 환경적 요인보다는 관계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밝히고 전문 상담사의 임상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큰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선호도와 구체적인 진행 방법(강의, 실습 등)에 대한 실용적인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가족확대기 이민 1세대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를 분석했으나, 다양한 이민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요구조사까지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민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겪는 변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부부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요구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를 기반으로 이민 1세대의 가족형성기 부부와 가족해체기 부부, 이민 1.5세대의 가족확대기 부부, 그리고 이민 2세대의 가족확대기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개입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대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민정 (2018). 한인 이민 1세대 부부의 심리적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 **한국 이민 연구**, 21(1), 23-45.
- 김장이 (2014). 한국인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8 :137-149.
- 김효순, 엄명용, 박미정 (2010). 재미한인 교포의 이혼 후 재혼생활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5-28.
- 박정윤 (2015). 가족생활주기별 부부관계신념 인지각, 유사성, 적용이 부부간 긍정적 행동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3(2), 335-362.
- 박혜성 (2020).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 및 수면의 질에 미치는 자기- 상대방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성수, 장보임 (2003). 이혼증가에 대한 사회복지사적 접근방법. **복지행정논총**13(1), 159-175.
- 서아연, 최연실 (2019). PREPARE/ENRICH 및 긍정심리치료 집단프로그램이 예비부부의 관계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 **가족과 가족치료**, 27(4), 671-697.
- 오재은 (2005). 커플관계 치료에 있어서 '어린시절의 상처' 치료의 중요성: 이마고 커플관계 치료와 내면아이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3), 1055-1070.

- 원복연 (2012). **현실요법을 적용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검증**.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민선, 서진희, 최연실 (2022). 인지행동치료의 최근 동향과 부부·가족치료적 함의-수용-전념치료(ACT)와 통합적 행동 부부치료(IBCT)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30(1), 69-91.
- 정영희 (2022. 08. 31). 팬데믹...위기의 한인 부부들. **미주워싱턴한국일보**. Retrieved from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30712>.
- 정현숙 (2016). **가족생활교육**. 서울: 신정.
- 최경일 (2019).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기-상대방 효과 모델(APIM) 활용. **디지털융복합연구**, 17(5), 417-423.
- 최정혜 (2006).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대한가정학회지**, 44(6), 47-58.
- Banmen, J. (2013).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방법론을 적용한 부부상담 워크샵: 외도, 이혼, 재혼 사례를 중심으로**. Seoul Korea.
- Hendrix, H., & Hunt, H. (2021). *Doing Imago Relationship Therapy: In The Space-Betwee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Kim, E., & Im, E. O. (2015). Korean-Americans' knowledge about depression and attitudes about treatment options. *Mental Health Nursing*, 36(6), 455-463. <http://doi.org/10.3109/01612840.2014.997846>.
- USC Center for Health Journalism. (2024, March, 14). *The Korean community struggles with depression*. Retrieved October 7, 2024. <https://centerforhealthjournalism.org/our-work/reporting/korean-community-struggles-depression>.
- Kim, J., & Ryu, D. (2005). The challenges of Korean immigrant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Advocating for children through parent involvement. *Family Relations*, 54(2), 205-215.
- Kim, M. T., Han, H.-R., Shin, H. S., Kim, K. B., & Lee, H. B.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experience of immigrant populations: A study of Korean immigrants. *Psychiatric Nursing*, 19(5), 217-225. <https://doi.org/10.116/j.apnu.2005.07.004>.
- The Korea Daily. (2024, March, 5). Why is the Korean American suicide rate so high? It's cultural, say mental health experts. *USC Center for Health Journalism*. <http://centerforhealthjournalism.org/why-s-rate-so-korean-american-suicide-rate-so-high>.
- Luquet, W., & Hannah, M. T. (1996). The efficacy of short-term Imago therapy: Preliminary findings. *Journal of Imago Relationship Therapy*, 1(1), 61-75.
- Lee, H. S., & Lee, J. K. (2019). The Challenges of Korean Immigrant Families: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1(4), 789-803.
- Luquet, W., & Hannah, M. T. (1996). The efficacy of short-term Imago therapy: Preliminary findings. *Journal of Imago Relationship Therapy*, 1(1), 61-75.
- Min, J. J., Choi, S., & Park, H. (2021). Associations between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service, social support, and Korean Americans' mental health status amid the COVID-19 pandemic. *BMC Public Health*, 21, 1-10.
- Min, P. (2001). Changes in Korean Immigrants' Gender Roles and Social Status, and Their Marital Conflicts, *sociological Forum*, 16(2), 301-320.

- Myers, D. G. (2000). The funds, friends, and fif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55, 56-67.
- Park, S. Y., & Bernstein, K. S. (2008). Depression and Korean American immigrants/ *Psychiatric Nursing*, 22(1), 12-19. <http://doi.org/10.1016/j.apnu.20.07.06.011>.
- Park, T. Y., Harrison, D. F., Bailey, M. A. (2000).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rean Immigrant spous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1), 35-45.
- Snyder, D. (2020). **K-MSI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 개정판**(권정혜 & 채규만, 표준화). 한국심리출판사.
- 원 고 접 수 일 : 2024년 08월 30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4년 09월 20일
게 재 확 정 일 : 2024년 09월 27일

A Study on the Needs of 1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 Couples During Family Expansion for an Online Marriage Enrichment Program

Oh, Tae Ju

Park, Euna

S_PACE Inc

Daybrea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needs of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 couples in the family expansion stage, along with insights from professional counselors, to develop a marriage enrichment program.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couples, and individual interviews were held with counselors. Results showed consensus on the program's necessity, with key content areas identified as negative communication, family-of-origin influences, and parenting stress. Participants preferred an online group counseling format, consisting of six 120-minute sessions held over three weeks, scheduled on both weekdays and weekends. Counselor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structured dialogue techniques, understanding family systems, recognizing negative communication patterns, exploring partner differences, and creating safe spaces for expressing needs and emotions. The study revealed that relationship challenges for these couples stem more from relational interactions than environmental factors, underscoring the need for relationship-focused approaches.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Family expansion stage, First-generation immigrant, Marriage enrichment, Communication, Separation-individuation, Parenting stress.

상담사의 영성 인식과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이 소 연*	곽 유 영**	박 효 숙***	황 혜 진****	하 영 윤*****
워싱턴가정상담소	곽유영늘감사 마음치유센터	뉴저지가정사역원	워싱턴 마인드 케어상담센터	캘리포니아 개혁신학 대학원

본 연구는 상담사가 인식하는 영성 개념과 상담 현장에서의 영성체험, 그 경험이 상담사 자신과 내담자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상담의 도구로서 상담사 자신의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상담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상담 경력이 있으며,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사 1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CQR) 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담사가 인식한 영성', '상담 장면에서 경험되는 영성체험',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이 상담사에게 미치는 영향',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상담사에게 영성이 필요한 이유', '상담사로서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 6개의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영성이 건강한 삶과 인간에 대한 이해에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상담사들의 영성개념과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에 주목해 봄으로써 영성이 상담 또는 심리치료에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영성, 영성 인식, 상담 장면, 영성체험, 합의적 질적 연구

* 제1저자: 이소연, 워싱턴 가정상담소

** 제2저자: 곽유영, 곽유영 늘감사마음치유센터

*** 제3저자: 박효숙, 뉴저지 가정사역원

**** 제4저자: 황혜진, 워싱턴 마인드케어상담센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하영윤 캘리포니아 개혁신학 대학원

주소: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USA /

Email: halohangoqnf@gmail.com

서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72년 동안 814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 결과인 행복의 조건: 하버드대학교 인생성장보고서(George, 2010)에 의하면 행복은 재력이나 학력, 아이큐 등과 같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건강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건강하게 살아가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의 필수 요소이다.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 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좋은 상태”라고 정의하였다(단영걸, 2014). 이후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좋은 상태’라고 정의 내리면서 ‘영적 안녕’이라는 건강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하였다(윤옥한, 2023).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건강을 관장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종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영성을 거론한 것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차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김용환 외, 2009). 이와 같이 건강개념 재규정에서 영성이 추가되면서 영성개념이 학문의 세계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인간의 적응에서 영적차원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다(Crawford, 1989; Canda, 1988). 또한 미국심리학회 윤리강령에서도 종교 변인을 중요한 개인차 변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김용환 외, 2009).

영성(Spirituality, 靈性)이라는 뜻은 그 자체로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다(국어사전, 2024). 또한 영성은 정신의 물질이며, 정신의 세계와 연관된 철학적 개념이자 초월적, 더 나아가 신을 뜻하기도 한다(위키백과사전, 2024). 영성은 인간의 삶에서 가

장 높은 본질적인 부분이며 자기 초월을 향하는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체이다(김춘경 외, 2016).

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개신교와 가톨릭)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서 ‘생령’이란 의미는 영(spirit)이란 의미이다. 이러한 인간의 영은 신체에 활력을 일으키는 생명의 숨결과 같은 것으로 인간의 삶에 통합적인 힘으로 작용하여 초월자와 연결되게 하는 요소가 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본성으로 영(spirit)을 갖고 있으며 이 영의 외적 발현이 영성이다(이미라, 2003). 심리학적 접근으로 기독교 영성을 이해한 연구(박노권, 2002)에서는 영적차원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요소들을 소홀히 하면 온전한 건강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 영성에서도 영성문제와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는 인류를 위해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를 생명, 영성, 불교라는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다(양은용, 2008). 불교의 영성은 구도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다(이미라, 2003). 이와 관련하여,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과 영성이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을 촉진하여 정신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구하며, 영성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불교 심리학의 역할을 분석하였다(Xiao et al., 2017). 이슬람교에서는 다른 영적 전통들에 비해 영성이 웰빙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덜 강조한 면이 있다(Abdul-Rahman, 2017)). 그러나 이슬람 영성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에서, 이슬람 신앙의 핵심 요소인 꾸란(Qur'an: 이슬람 경전)과 하다스(Hadith: 이슬람 신앙과 실천 지침서)에 기초한 영성의 틀이 웰빙과 신과의 관계 강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다(Amin et al., 2018). 힌두교는 육체적 본질이 전생의 업에 따라 결정되고 새 생명으로 끊임없이 태어난다는 교의를 기반으로 하고(서인석 & Marnay, 1974),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사회, 철학, 예술, 가족생활 등 삶의 모든 측면에 깊이 스며든 포괄적인 생활 방식이다(Laungani, 2005). 힌두교의 전통적 영적 실천(예: 명상과 요가)은 현대 심리학에서 긍정적 웰빙과 삶의 만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내적 평화를 이루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ngh et al., 2022). 유교에서 영의 개념은 조상들의 혼백, ‘하늘’과 연계하여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다. 영성의 의미란 교육을 통해 조상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에 있다(이미라, 2003).

한편, 영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자의 지향성과 학문적 배경에 따라 영성의 정의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윤옥한, 2023). 대표적인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llison(1983)에 따르면 영성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동기 유발하는 힘으로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며 나와 타인, 자연과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보았다. Griffiths(1984)는 영성은 인간의 삶과, 삶을 넘어서 초월자와 관계에서 인간초월의 지점이며, 다수와 하나가 만나고 접촉하는 지점으로 보았고, Burkhardt(1989)는 영성을 초월자인 신과 나,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희망과 의미이며 사랑과 같은 삶의 최고의 가치를 달성하는 능력이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을 통합하는 힘이라고도 보았다. Paloutzian과 Ellison(1982)은 영성은 첫째, 수직적 차원으로 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종교적 영성이고, 둘째, 수평적 차원으로 나와 다른 것들과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Canda(1988)는 영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인간 이해와 설명

의 한계를 넘어서 현실의 차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영성이란 대상자의 특정 종교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행위들을 합한 이상의 것이다(오복자, 강경아, 2000).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영성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몇 가지 공통된 요인들로 정리해보면 첫째, 영성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영성은 초월적인 차원이나 경험이나 깊이 있는 내적 경험을 포함한다. 셋째, 영성은 초월자와의 연결을 포함하는 수직적 차원과 타인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수평적 차원이 함께 존재한다. 넷째, 영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측면을 포괄하며, 다섯째, 영성은 특정 신념이나 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종교를 초월하여 개인에게 더 깊은 의미와 충실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무언가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영성은 특정 종교적인 행위나 신념이 아니라 초월자(초자연, 신)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함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현실의 삶에 충실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윤옥한, 2023). 따라서 영성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 본성으로 회복과 치유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최경혜, 2018).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신치료와 영성지도의 통합을 다룬 연구(이만홍, 2005)에서는 통합적 모델로서의 영성치료를 강조하고 있다. 즉 정신치료와 영성지도는 동시에 이루어질 때, 조화로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이경열 외, 2003)는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가 상담 장면에서 유용한 측정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영성의 구성요인을 삶의 의미/목적, 내적자원, 연결성, 초월성, 자각, 자비심의 6가지 요인으로 하위척도를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영성 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이루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영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대상별, 단계별

프로그램도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활용한 가톨릭 교회 여신도들의 영적 자아발견에 관한 체험분석(하영자 외, 2005)에서는 영성상담에서 여성의 영성과 내러티브에 관한 의미를 연구하여 가톨릭교회 여성 평신도들의 영적 자아발견 여정에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의 특성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밝혔다. 진화론적 방법을 활용한 영성 개념을 분석한 연구(고일선 외, 2017)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영성개념의 진화에 관심을 가지고 간호학, 의학, 신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문헌에 제시된 영성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성의 속성과 새롭게 대두되는 영성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Rodgers의 진화론적 개념분석방법에 따라 영성개념을 분석했다.

또한 심리, 상담학 분야에서 영성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상담심리, 목회상담, 불교상담, 영성심리 전공분야에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김용환 외 2009). 영적안녕과 심리적 적응(심리적 소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에 관련된 연구(최중환, 2007; 염남희, 2007; 서경현, 전경구, 2004)가 있고, 영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정체감)의 관계연구(노경이, 2009), 영적 탄력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이해리, 2007). MBTI성격유형과 영성생활 유형에 대한 연구가 있고(박은아, 2010), 이외에도 영적 안녕 및 심리적지향성과 종교적 성숙도에 대한 연구가 있다(허현나, 2002). 심리, 상담학 분야의 연구대상은 주로 기독교, 불교 등 종교를 지닌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어 비종교인들 대상으로 하는 영성 적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다양한 이론을 활용하여 영성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김용환 외, 2009).

상담사는 상담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체이며 내담자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심리상담사는 내담자를 위한 치

료 도구 그 자체다(Wampold & Brown, 2006). 이러한 치료적 도구로서의 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영성적 영역은 내담자들의 삶에 대한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영성이 있는 상담사들이 영성이 약하거나 없는 상담사보다 상담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이었다(Guinee & Tracey, 1997).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돌봄을 위해 영성을 사용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심리적 안녕감이 증진되는 경향이 있다고(Giles, 2013) 밝혀졌다. 호스피스 케어에 종사하는 전문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Jones, 2008)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관계적, 영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기 관리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종교와 영성이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양측에 공유된 가치와 지침을 심어줌으로써 치료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Egunjobi et al., 2023)와 상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변혁적인 힘과 영성의 가치화라는 주장(Frunza et al., 2019)도 맥을 같이 한다. 영성을 지향하는 전문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영적 지향이 임상 장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Young et al., 2022)에서는 상담사가 개인적 영성을 어떻게 상담 실무에 통합하고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설명한다.

국내에도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사들의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로 상담사의 영성을 언급하고 있다(김창대 외, 2008). 상담전문가들은 상담사의 영성이 상담에 주는 영향력을 알고 활용함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영성이 상담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 및 근본적인 힘을 제공한다고 했다. 또한 상담사의 영성은 상담성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사의 영성 발달은 상담사에게 인간적 발달뿐만 아니라 전문성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안미순, 정민선, 2017). 이들 연구에서는 상담사의 영성이 상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기독교 신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성체험이 인간의 영성과 심리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밝혀졌다(이창진, 2013). 또한 기독교인 상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담의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담사의 개인적 신앙 경험이 상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통합되는지를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을 통해 탐구하였으며 상담사 발달 과정에서 신앙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안현미, 2012). 불교 상담과 영성을 다룬 연구에서는 불교 상담이 고통 감소와 마음의 평온, 기쁨, 해탈을 추구하는 과정을 논의하며, 자기 수양과 마음챙김을 주요 요소로 설명하고 현대 심리치료와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불교적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Lee et al., 2017). 이슬람 영성과 상담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슬람 영성이 우울증과 불안 감소, 심리적 웰빙 증진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이슬람의 영적 실천(예: 기도와 금식)이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 통제에 기여한다고 하였다(Lakdawala et al., 2018). 아울러, 힌두교에서는 힌두 전통의 요가, 특히 아슈탕가 요가를 심리상담과 연결하여 웰빙과 긍정적 건강 효과를 이끄는 메커니즘을 탐구하며, 힌두 영성의 원리를 활용한 상담적 개입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Sri et al., 2023).

영성은 종교적 신념과 연관되어 있어 영성과 종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Evans & Nelson, 2021), 영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영성 연구 유형에 있어서는 양적 연구의 비중은 77.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질적 연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용한 외, 2009). 영성 연구는 그 결과가 일반화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나 합의적 질적 연구(CQR) 같은 방법은 소규모이지만 정보가 풍부한 표본을 사용하여 개별 상담사의 깊은 경험을 탐구

하는 데 유용하다(Skovholt & Jennings,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CQR) 방법을 통해 상담사들이 지각하는 상담에서의 영성의 개념이 무엇이며 어떠한 영성적 체험을 하는지를 실제 활동하고 있는 상담사의 직접적인 경험과 그들의 언어를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의 과정은 상담 관계에서 영성체험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가지는 치유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상담사 영성 연구는 여러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상담사 영성과 관련된 몇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정의 및 개념의 모호성이다.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정의가 연구마다 다르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특히 상담사 영성을 다룰 때,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족할 수 있다. 상담사가 자신의 영성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경우, 연구 결과가 일관성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조현신, 신혜연, 2022). Zinnbauer 등(1997)의 연구에 따르면, ‘영성’과 ‘종교’를 구분하는 것조차 연구자들 사이에서 명확하지 않으며, 이것이 연구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경험적 연구의 부족은 많은 연구가 이론적이거나 문헌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성 체험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점에서, 질적 연구나 장기적인 사례 연구가 더 필요할 수 있다(오미성, 2003). 셋째, 상담사 개인의 영성과 상담 성과 간의 관계 부족이다. 상담사의 영성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평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상담사의 영성이 상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안미선, 정민선, 2017).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은 상담사와 내담자 각 개별적 존재뿐만 아니라 치료적 관계성과도 관련되어 중요한 치료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회복 및 보충하게 함으

로 상담사의 소진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진 외, 2021). 또한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영성적 체험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 및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은 내담자의 변화를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사 자신도 동반성장을 이루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상담사의 영성 인식과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을 연구함으로써 영성 체험의 개념적 정립과 실질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상담사와 내담자에게 영성이 가지는 깊이 있는 의미와 치료적 잠재력을 제시할 기초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상담사로서 영성이 상담사와 내담자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상담 분야 및 결혼과 가족 치료에서 영성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영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상담사가 상담 장면에서 경험하는 영성 체험과 그것이 상담사와 내담자에게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가?
- 셋째, 상담사가 인식한 영성의 필요성과 영성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방 법

본 연구는 상담사가 인식한 영성의 정의와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Hill, 2012/2016)을 선택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다양하고 상세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 내면의 태도, 내적 경험, 신념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데 이상적인 방법이다(Hill, 2016). 따라서 합의적 질적 연구는 참여자의 살아있는 내적 경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기에 적합하다. 한편, 합의적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각각의 장점을 채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나 현상의 전반적인 영성이 언어로 표현되는 빈도를 통해 살펴보고, 그것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참여자의 언어를 통해 이해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은 상담사들의 영성 경험에 대해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시점에서 상담사의 영성에 대한 인식, 상담 장면에서 경험한 영성체험, 그리고 영성의 필요성과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이라 하겠다.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본 연구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러 명의 연구자가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을 이어나갔다. 연구 절차는 Hill(2012/2016)이 제안한 4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문헌 고찰을 토대로 질문을 개발하였다. 연구 주제를 잘 이야기해줄 수 있는 참여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발하고, 개발된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사례 분석이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에서 영역을 개발하고 영역에 부합하는 핵심 개념을 추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영역 내의 사례들을 범주화하여 빈도수를 산출하는 코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강화

하고자 연구팀을 나누어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영역별 범주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복 검토하였고, 감수자에게 단계별로 감수를 받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감수 결과, 영역이 8개에서 6개로 통합, 재개발되었고, 의미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은 범주들에 대해서 원자료로 다시 돌아가 재분류하고 수정하였다. 감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팀의 합의를 통해 최종 수정이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원고를 쓰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얻기 위한 대표성과 적절성이 충족되어야 한다(조용환, 2004). 본 연구를 위해 상담사의 적절성을 위한 기준으로 상담사가 상담 중 체험하였거나 상황적으로 경험한 영성 체험 과정과

영향 등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 중이며, 상담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유, 상담에 관한 전문가 자격을 최소한 1개 이상 취득의 조건을 고려하여 실무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현역 상담사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에 따라 목적 표집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담사와 소개를 받은 대상 중에서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상담사들을 최종 참여자들로 선정하였다. 개신교 13명, 가톨릭 1명, 불교 2명이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고 3명은 무교로 총 19명으로 구성되었다. 영성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세한 경향이지만, 종교와 분리되는 것으로 개인의 내재된 능력(Chandler et al., 1992)으로 볼 수도 있다는 관점이 있다. 그리고 종교에서 보여지는 영성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개인과 신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하여(김신애, 2018), 참여자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정하였다. 상담사가 정의하는 영성과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 체험'에 대해 심층면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종교	최종학력	자 격 증
참여자 1	여	37	개신교	박 사	LCPC(Licensed Clinical Prof. Counselor, U.S.A.)/국가 임상전문 상담사
참여자 2	여	51	개신교	석 사	LCPC(Licensed Clinical Prof. Counselor, U.S.A.)/국가 임상전문 상담사
참여자 3	여	55	불 교	박사수료	전문상담사 1급
참여자 4	여	51	개신교	석 사	QMHP(Qualified Mental Health Professional, VA, U.S.A.) /버지니아 주정부 정신건강 전문가
참여자 5	여	70	개신교	석 사	전문상담사
참여자 6	여	46	불 교	박사수료	부부상담전문 1급
참여자 7	여	46	개신교	석 사	목회상담/임상심리
참여자 8	여	54	개신교	박 사	청소년상담 1급
참여자 9	여	55	개신교	석 사	청소년상담 2급
참여자10	여	53	개신교	석 사	임상심리 2급
참여자11	여	61	개신교	박 사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참여자12	여	57	개신교	박 사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참여자13	여	41	개신교	석 사	미술치료사
참여자14	여	66	가톨릭	박 사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참여자15	여	51	무 교	석 사	청소년상담 2급
참여자16	남	52	무 교	박 사	청소년상담 3급
참여자17	남	43	개신교	박 사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참여자18	남	46	개신교	석 사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참여자19	남	53	무 교	석 사	상담심리사 1급

답에 참여할 것을 구두나 전화로 동의한 상담사들을 잠정적 연구참여자로 가정하고 연구 목적과 과정을 이메일로 전달한 후, 19명으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24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면담을 위한 질문지 개발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팀은 반구조화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영성 체험에 대한 연구들 및 상담사들의 영성과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이해령, 백지숙, 2023; 김신애, 2018; 오미성, 2003)을 참고로 하여 기초 질문지를 만들었다. 더불어 연구팀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 경험을 통해 연구 주제를 밝힐 수 있는 연구 질문을 실제 질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주변 상담사들과의 열린 질문을 통해 질문들을 추가, 보완하였다. 이후 질문지는 감수자 1인의 검토와 예비 면담을 통한 점검 등을 거쳐 연구팀의 합의로 최종 결정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지의 기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 및 연구윤리 준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하여 총 4명의 구성 인원이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 과정에 모두 참여하였다. 연구팀은 상담학 전공 박사 과정 학생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원 모두 연구 설계 및 질적 연구와 관련된 수업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본 연구 수행 이전에 합리적 질적 연구에 대한 공부와 훈련을 마쳤다. 연구팀의 지도교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지도, 강의하고,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연구과정을 총괄하며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내부 감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면담 참여의사를 밝힌 19명의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이메일, 전화 등으로 연구 주제에 대한 설명과 목적, 참여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일차 접촉을 하였고, 서면으로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뒤, 연구팀 구성원들이 나누어 심층면담을 계획하였다. 연구팀은 실제 참여자와의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모의 면담을 통하여 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참여자의 입장에서 충

표 2. 심층 면담을 위한 기본 질문

번호	질 문 내 용
1	일상에서 영성체험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하시는 영성이 있다면 영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	상담 중 영성체험을 실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체험되는 순간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이 상담사로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3	그 영성체험으로 인해 상담사로서 필요한 정신건강이나 삶의 가치, 의미, 목적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4	상담 장면에서 경험한 영성체험이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그 경험이 상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적 측면에서 도움이 됐나요?
5	상담사로서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6	상담사로서 자신의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면담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2024년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대면과 줌을 활용한 화상 면담이 이루어졌고, 각 참여자당 면담 시간은 약 90~120분이었다. 모집된 참여자는 각 연구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이후 면담자가 곧바로 축어록과 현장 노트를 작성하고 다른 연구팀 구성원과 공유하되, 참여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구체적인 개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축어록을 비롯한 연구 자료는 보안 코드가 설정된 드라이브에 저장, 공유하였다. 축어록에 대한 1차 코딩을 진행하면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화상이나 이메일을 통한 2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대학의 연구심의위원회(IRB) 심사를 통과한 후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유의하였다.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예상되는 위험, 중도 탈퇴에 대한 권한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였고, 개인 정보 및 비밀 유지에 관련된 내용, 녹음 및 녹화에 대한 허락, 자료의 보관과 폐기 계획을 명시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Hill, 2012/2016)이 제시한 방식인 영역 개발, 핵심 개념 구성, 교차 분석, 감수의 단계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과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domain) 개발

자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서 면담자의 면담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정리한 축어록을 연구팀이 평정자가 되어 전체 내용을 반복하여 듣고, 읽어가

면서 주요 영역을 조직화하고, 영역을 개발하였다. 평정과정에서 연구팀은 먼저 두 사례의 축어록을 함께 읽으면서 영역 목록을 만들었다. 영역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기준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머지 사례들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영역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맞춘 뒤, 남은 사례는 평정자들이 개별적으로 읽고 주요 영역을 설정하였다. 다시 개별 작업을 통합한 후, 다른 구성원이 수행한 작업을 재검토하면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이어갔다. 초기에는 참여자들이 경험한 영성에 대해 일상과 상담 장면의 경험을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영성의 역할, 영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상담 장면에 대한 것과 상담사 자신에 대한 것을 나누어 질문하고 살펴보았으나 이 또한 의미 있는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보다는 영성에 대한 통합된 인식과 전인적 경험이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감수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감수 이후 합의과정을 거쳐 두 개의 영역을 통합하여 최종 6개의 영역으로 개발되었다.

핵심 개념(core idea) 구성

분석에서 두 번째는 핵심 개념 구성 단계로 참가자의 이야기에서 소수의 단어로 핵심을 알아차린 자료를 요약하는 작업(Hill, 2012/2016)이다. 연구팀은 먼저 개별적으로 핵심 개념을 요약하고 공통적인 핵심 개념을 범주화 한 다음, 함께 모여 논의를 통해 불일치하는 의견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핵심 개념 구성에서는 원자료에 가장 가까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은 의도를 연구자 임의대로 추론하거나 정리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였다. 또한 면담 장면에서 면담자가 정리한 행동 관찰과 현장 노트 등을 함께 참고하여 참여자의 이야기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였다. 연구팀이 서

로의 작업을 비교하고 검토하며 합의하는 과정은 참여자의 실제 이야기가 연구자의 신념이나 편견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교차분석(cross-analysis)

교차분석은 영역을 요약한 핵심 개념들을 사례에 따른 공통 주제에서 확인하는 단계로 영역 내 자료를 최대한 포함하여 유사한 핵심 개념끼리 묶어 범주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연구팀이 모두 범주화 작업을 위한 기초 훈련을 마친 뒤에 4명의 연구자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범주 및 하위 범주를 추출하고, 범주에 제목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다음 단계로 그 범주 구조가 참여자의 이야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영역의 핵심 개념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한 후, 두 팀이 작업 내용을 서로 바꾸어 검토, 범주 목록의 변경 제안이 제기되면 다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친 후 수정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해 범주화된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범주의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빈도수는 일반적(18명 이상), 전형적(10-17명), 변동적(9명 이하)으로 표기하였고, 빈도수가 2사례 이하인 경우는 드문 경우에 해당하여 빈도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자료 분석 감수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은 최소한 1명 이상의 자문을 두어 합의 과정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연구팀에 제공하도록 추천한다(Hill, 2012/2016).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질적 연구 및 합의적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진 지도교수가 자료수집, 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감수자로서 4명의 연구팀이 선택한 영역과 분석한 핵심 개념이 원본을 반영하기에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영역의 내용이 중복되면서 의미 있는 구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분석팀이 다시 원자료로 돌아가 영역의 재개발을 수행하였다. 또한 교차분석과 결과에 대한 팀별 상호 비교 및 검토 수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구팀에게 참여자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연구 질문에 대한 답으로 범주의 분류와 표현이 모호한 면은 수정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다. 또한 교차분석과 결과에 대한 팀별 상호 비교 및 검토, 수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구팀에게 참여자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연구팀은 각 과정이 끝난 후 서로의 작업을 바꾸어 내부 검토하면서 범주 목록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의견들을 나누었고,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반복하며 전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합의과정을 반복한 뒤 수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에 대해 감수를 받아 최종 확정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상담사가 지각한 영성 인식과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를 위해 상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사 19명의 경험을 합의적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하였다.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영성 개념: 영성이란 무엇인가?',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 '상담 장면에서 영성체험이 상담사에게 미치는 영향', '상담 장면에서 영성체험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상담사에게 영성이 필요한 이유', '상담사로서 영성을 향상 시키는 노력' 등이 그것이다. 영역별 범주와 하위 범주, 사례 빈도를 정리하여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고, 각 영역별로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표 3 영역 및 범주 분석결과

영역	범주	하위범주	사례빈도		
영성 개념 - 영성이란 무엇인가?	사람과의 확장된 관계	고유한 자기됨을 찾는 것	전형적(12)		
		삶의 의미를 추구 타인들과의 유대감	전형적(11) 변동적(7)		
	초월자와 확장된 관계	초월자의 속성을 깨닫는 것	전형적(16)		
		초월자와 나의 연결고리에 대한 알아차림	전형적(11)		
	세상과 확장된 관계	나를 넘어선 초월적인 경험 자연과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	전형적(12) 변동적(7)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	상담사 자신과의 관계	변화되고 치유되고 성장하는 것	전형적(10)		
		상담사로 다시 깨어나는 것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 진정 노력하는 것	변동적(8) 변동적(5)		
	몸으로 경험되는 영성	내담자의 특성이 몸으로 느껴짐	변동적(5)		
		눈, 머리가 맑아짐 몸이 가벼워짐	변동적(5) 변동적(3)		
		감정으로 느껴지는 영성	기쁨, 편안함, 평안 가슴이 따뜻해짐 안타까움, 슬픔 눈물이 남 보람, 뿌듯함 감사함 사랑과 공허함	전형적(11) 변동적(5) 변동적(5) 변동적(5) 변동적(5) 변동적(5) 변동적(3)	
	깨닫고 이해되는 영성		내담자의 치유됨을 알아차림 초월자의 능력임을 알아차림 내담자의 삶의 부분을 그대로 인정 머리로만 상담하고 있음을 알아차림 역전이를 인지	변동적(10) 변동적(9) 변동적(6) 변동적(3) 변동적(3)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드러나는 영성	내담자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됨 상담과 일상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 버텨주고 견뎌줌 내담자와 상담사 사이의 영적인 교류	전형적(16) 전형적(13) 변동적(5) 전형적(4)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 진정한 나를 찾기 초월자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됨 영성체험 후 깨달은 은혜에 감사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이 상담사에게 미치는 영향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 노력
	상담사로서 시야의 확장			나의 존재의 방식이 바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짐 성장에 대한 희망과 노력	전형적(13) 전형적(11) 변동적(9)
		상담의 도구로 성장		상담사로서 치유에 필요한 나로 변함 상담사로서 아픔을 발견하고 치유	전형적(12) 전형적(10)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는 정서적 치유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는 정서적 치유 몸을 자각하게 되는 신체적 치유 관계 회복	변동적(10) 변동적(4) 변동적(3)	
			내적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	진정한 자신을 찾음 상담사의 긍정적인 영성에 영향 감사하는 마음이 생김 내담자의 저항이 드러나는 계기	전형적(11) 전형적(10) 변동적(4) 변동적(3)
		초월적인 것에 대한 시야 확장		영성의 가치를 아는 관점이 확대됨 초월자에게 가치를 둠	변동적(8) 변동적(4)
		상담사에게 영성이 필요한 이유		초월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초월자를 의지하는 신앙적 믿음 초월자만이 온전한 치유를 이루심
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			내담자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위기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봄	전형적(14) 변동적(4)	
	전인적 상담사로서 발전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숙한 상담사로서 성장을 위해 상담사로서 자신의 케어를 위해	전형적(10) 변동적(9) 변동적(8)	

상담사로서 영성을 향상시키는 노력	영적 차원의 확장	신앙생활 하기 (기도, 예배, 말씀, 봉사, 공동체 참여)	전형적(14)
		초월자의 존재를 인정	변동적 (8)
		내 안에 자기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	변동적 (3)
	삶의 질(일상의 영성) 향상 - 전인적 성장	감사하기	변동적 (4)
		자연에 머물기	변동적 (4)
		예술 활동하기	변동적 (3)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	자기 자신과 만나기	변동적 (7)
		자기 자신 돌보기	변동적 (6)
		자기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변동적 (5)
	상담전문가로서의 성장	전문가로서 지식과 자질 향상	변동적 (8)
		명상하기	변동적 (4)

영역 1: 영성 개념 - 영성이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영성의 개념, 즉 ‘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살펴 본 결과, 4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성 개념을 사람과 확장된 관계를 형성하고 초월자와 경건한 관계를 맺으며 세상과 조화로운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상담사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과의 확장된 관계

참여자들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의 개념, 즉 영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람과의 확장된 관계라고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은 영성을 자신의 고유함을 찾는 것(전형적)으로 인식하면서 각자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삶의 체계를 이해하고 언어를 뛰어 넘는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전형적) 사람들과의 넓어진 유대감을(변동적)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고, 영성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온 삶의 체계가 있고, 삶에 대한 생각 등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상담 장면에서 일어나는 영성체험은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어떤 영적교류이고, 비언어적인 교감이라 생각해요.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기운이 왔다 갔다 하게 되지요. <참여자 3>

초월자와의 확장된 관계

참여자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통해 초월자의 속성을 깨닫게 되면서(전형적) 자신과 초월자와의 관계가 확장되었다고 생각한다.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초월자와 나의 연결고리를 알아차리게(전형적) 되었다.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은 이미지는 아니고, 초월자와 연결된 소통, 상담하면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각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도 같은 것이지요. <참여자 1>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죄인이나 의인을 떠나 다 비를 내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드러내는 것이 영성이 아닐까요?. <참여자 2>

세상과의 확장된 관계

참여자들은 영성에 대한 개념을 세상과의 확장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연이 주는 영감을 통해

치유와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경험(전형적)을 하고 나의 존재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영성이 연결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연결은 우주와의 연결, 신과의 연결, 사람들과의 연결이고, 이를 자연과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변동적)로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냥 나무 옆에만 가도 웬만한 사람은 치유를 받았어요 상처를 주지 않잖아요 그것이 나의 이상적인 꿈인데 이런 나무가 되도록 최대한 털 생각하고 내담자와 함께 상담현장에 현존하려고 하지요 <참여자 4>

영성은 연결, 연결감이라 생각해요 여기서 연결은 우주, 신과의 연결, 사람들과의 연결이지요. (중략) 같은 맥락으로,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온 우주도 반응을 하니까요 <참여자 12>

상담사 자신과의 관계

참여자들은 영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 상담사로서 자신이 치유되고 성장하는 것(변동적), 상담사로서 다시 깨어나는 것(변동적),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 진정 노력하는 것(변동적)을 언급하였다. 이는 상담사로서 영성의 개념을 통해 상담자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면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을 통해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주게 되었어요 <참여자 1>

영적이지 못한 내담자를 만났을 때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상담에 임해야 되지만 결국 상담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지요 사람이 인적이 비뚤어져 있으면 영성도 비뚤어지구나 하는 것을 그게 좀 깨달아진 것 같아요 <참여자 5>

영역 2 :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상담 장면에서 경험하는 영성체험을 탐색해 본 결과, 4개의 범주와 19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몸으로 경험되는 영성은 신체적으로 즉각 느껴지는 것이며, 감정으로 느껴지는 영성은 상담 중에 느끼는 깊은 공감, 연민, 위로와 같은 감정으로 나타난다. 또한 깨닫고 이해되는 영성은 영적인 의미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드러나는 영성은 내담자와 상담사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류의 경험이었다.

몸으로 경험되는 영성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머리가 아픈면 자신도 아프고, 내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답답해하는 내담자의 특성이 몸으로 느껴졌다(변동적).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목격하면서 눈과 머리가 맑아지고(변동적) 눈물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몸도 가벼워지면서(변동적) 황홀함까지도 경험하였다.

제 진짜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뭔가 신체 증상 그런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자동으로... 진짜 자연치유... 이런 게 있구나... 몸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누고 스캔하고 나누면서 신체랑 어떤 호흡이 나 이런 거 다 연관되는 것들이거든요 <참여자 13>

감정으로 느껴지는 영성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경험과 내담자의 경험을 통해 기쁨, 편안함, 평안(전형적)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변동적)을 느낀다고 하였다. 한편, 안타까움과 슬픔(변동적)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담자의 사연에 공감하며 눈물이 나는(변동적) 경험을 하였다. 내담자의 회복에 보람과 뿌듯함(변동

적)을 느꼈으며 감사함(변동적)이 올라왔고 사랑과
공허함(변동적)을 느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받지 못
했던 어떤 사람이나 돌봄, 관심, 그 다음에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결
핍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결
핍된 걸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에게도 이렇게
사랑과 돌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
어요. <참여자 17>

깨닫고 이해되는 영성

참여자들이 깨닫고 이해하는 영성은 상담 장면에
서 내담자의 치유되는 과정을 알아차리고(변동적)
그것이 신의 능력임을 인식하게 되고(변동적) 그
순간 내담자의 삶의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게(변동
적)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때로는 머리로만
상담하고 있음을 자각하고(변동적) 역전이를 인지
하는(변동적) 순간도 생기며, 이를 통해 상담 관계
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내가 평생을 믿었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저에게 엄청 컸던
거고 어떤 아무 말씀도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
는데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깨졌다. 이
말이 '내가 너 다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내가
다 안다' 내가 이렇게 이 말 한마디에 그럼 됐지
뭐. <참여자 11>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드러나는 영성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드러난 영성이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전형적), 내담자 곁에서 함께 버티고 건디는 과정
에서(변동적)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짐(변동적)을
경험하였다. 또한 상담에서의 경험이 일상으로 스
며드는 것을 인식하며 상담과 일상이 연결되어 있

음을 알아차렸고(전형적), 이러한 경험이 내담자와
성공적인 상담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치료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처음
에는 상담사를 내담자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걸 좀 떠나서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내담자의 성장뿐만 아니라 상담사
의 성장으로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영역 3 :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이 상담 사에게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
이 상담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였다. 참여
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10개
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상담 장면에
서의 영성체험이 상담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먼저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며, 내담자의 성장
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상담사로
서의 시야가 확장되며 상담사 스스로 치료도구로서
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을 통해 초
월적인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
다. 이 과정을 통해 초월적 존재를 만나 진정한 자
신을 찾고(전형적) 초월자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되
었다(전형적)고 진술했다. 이러한 영성체험 후, 깨달
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다(변동적)고 이야기하였다.

우리의 지향점이 자기초월까지 다 달았을 때 하
나님과 더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당장은
별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영성이 있는 상담사
를 만나면 영성체험을 하게 되고, 변화는 이루어지
지요. <참여자 5>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 담대해지고 자존감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참여자 11>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 노력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을 통해 내담자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는 내담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전형적) 내담자를 잘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었기(변동적) 때문이다. 내담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은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하며, 결국 서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다른 건 모르겠고 어떤 긍정성을 유지하는 힘, 안내심 이런 것들이 내담자보다는 조금 더 있어서 참아낼 수 있고 조금 더 긍정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0>

상담사로서 시야의 확장

참여자들은 자신의 존재방식이 바뀌고(전형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전형적) 자신의 앞에 있는 내담자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성장에 대한 희망과 노력(변동적)을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상담사로서 시야가 확장되었다고 하였다.

상담사 자신의 존재방식이 바뀌니까 Doing보다는 Being의 관점에서 내담자를 보게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참여자 5>

그 뒤에는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더라는 그런 어떤 믿음도 같이 연결되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 내담자 안에 있는 그거를 믿어주는 것 같아요. <참여자 14>

상담의 도구로 성장

참여자들이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을 통해 상담사는 치료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며 상담사로서 치유에 필요한 나로 변화되고(전형적), 상담사로서 자신의 아픔을 발견하고 치유되는(전형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그저 상담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하지요. 상담 전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상담에 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상담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때로는 결과에 감탄하기도 한답니다. <참여자 5>

영역 4 :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한 결과, 3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이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수용하고 정서적 치유로 이어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에게 영성체험이 내적 성장으로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했고, 이를 통해 초월적인 것에 대한 시야가 확장되어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가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인식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는 정서적 치유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을 통해 내담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는 정서적 치유(변동적)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내담자들은 몸을 자각하게 되는 신체적 치유(변동적)를 경험하였고, 내담자 자신과는 물론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회복(변동적)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기본적으로 내담자에게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힘을 좀 끄집어내 주고 그런 것들을 지지해 주는..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어떤 영성 힘 파워 이런 것들을 믿어주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내적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이 내담자들에게 내적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내담자들은 이를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었고(전형적), 상담사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전형적)고 보고하였다. 또한 내담자들이 이런 변화에 감사하는 마음(변동적)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이 상담사의 빠른 개입에 저항(변동적)을 하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하였다.

그럼요, 그럼요, 그들의 영성이 사실은 본인의 가치관이라는 거는 원가족에서 살면서 있었던 가족 규칙이나 가족 관계라든가 가족 역할을 통해서 생겨난 자기의 가치관 그 가치관하고 영성이 같이 맞물려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또 색깔이 영적인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참여자 1>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결국은 내담자가 자기 안에 자기와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좋았다고. <참여자 6>

초월적인 것에 대한 시야 확장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을 통해 내담자들이 초월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이 자신을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초월자라는 관점을 통해 영성의 가치를 확대할 수 있었고(변동적) 더욱 초월자에게 영성의 가치를 두게 되었다(변동적)고 보고하였다.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내담자를 창조한 초월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증보기도 한다. <참여자 2>

내담자가 경험하는 그런 어린 시절의 학대, 불안정한 상황, 공포, 두려움이 둘러 싸여진 그 환경 그 것들을 이제 저는 어쨌든 영성, 하나님 만나서 힘으로 대상 관계를 확실하게 맺어서 그래서 영성적으로 거듭난 거죠. <참여자 8>

영역 5 : 상담사에게 영성이 필요한 이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사에게 영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그 결과는 3개의 범주와 7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상담자인 참여자들은 초월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상담에서 어렵고 모호한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에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전인적 상담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초월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참여자들은 영성이 필요한 이유로 초월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였다. 참여자들은 초월자를 의지하는 신앙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변동적) 상담 장면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내담자와 연결감을 갖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초월자만이 온전한 치유를 이루시므로(변동적) 상담사에게 영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 치유가 일어나는구나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제 .. 많이.. 뭐라 그럴까... 다 독여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참여자 11>

내담자를 치유하는 것은 상담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시고, 상담사는 '하나님의 중간자 역할일 뿐이다' 는 생각으로 상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지요. (중략)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충분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말할 수 있어요. <참여자 17>

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

참여자들은 영성을 통해 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은 영성을 통해 사소한 일에 연연해하지 않게 됨으로써 더욱 내담자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전형적) 진술하였다. 또한 상담 위기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변동적) 하였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알게 되고, 지향점으로 가는 중인 것을 알고 나니 상담 중의 사소한 일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참여자 5>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내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사의 영성은 더욱 빛이 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0>

전인적 상담사로서 발전

참여자들은 상담사에게 영성이 전인적 상담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사로서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전형적) 성숙한 상담사로서 성장하기(변동적) 위한 동력이 영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상담사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치유된 상담사로서 지속적인 자신의 케어를 위해서라고(변동적) 이야기하였다.

이제야 겨우 영성이 뭔지를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작은 존재이지만 나를 덮을 수 있는 큰 힘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참여자 5>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상담사로서 치유의 경험에 필요한 것 같아요. 치유와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동력이 영성이고, 이 영성을 통해 내담자가 더 효과적인 어떤 관계 자리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드네요. 그래서 상담사에게 영성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하는 마음이 드네요. <참여자 17>

영역 6: 상담사로서 영성을 향상시키는 노력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상담사로서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주와 11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영적 차원이 확장되도록 노력하면서 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이해를 경험하게 되고, 신앙 생활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자기 치유를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상담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영적 차원의 확장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서 자신의 영적 차원을 확장하기 위해 기도, 예배, 말씀, 봉사, 공동체 참여를 통해 신앙생활을 한다고(전형적) 이야기하였다. 또한 내 밖에 있는 우주적인 초월자의 존재를 인정하고(변동적), 내 안에 있는 자기 초월적인 존재를 수용함(변동적)으로써 영적 차원의 깊이와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였다.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교적인 활동, 즉 기도 예배에 참여하고, 영성적인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알아낼 수 있을까? (중략) 뭐가 공통일까? 등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기독교 영성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여자 18>

삶의 질(일상의 영성) 향상 - 전인적 성장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서 영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삶의 질(일상의 영성)이 향상되어 전인적 성장이 가능함을 이야기 하였다. 이를 위해 감사하기를(변동적) 생활화하며 자연에 머물면서(변동적) 초월자에 대한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고 예술 활동을(변동적) 통해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바람결, 파도소리, 나무결, 새싹 이란 자연의 좋은 느낌은 자신의 영성을 깨운다고 해요. 자연 속에서 그냥 바람이 막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만끽할 때 우주의 일부가 되는 느낌이 들고 그냥 좋아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참여자 3>

성장을 위한 자기 돌봄은 신앙생활을 생활화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명상, 호흡을 한 후에 나눔을 시작하지요. (중략) 무의식속에서 드러나는 조각들을 꺼내서 다시 또 치유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참여자 10>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서 영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만나고(변동적), 자기 자신 돌보기(변동적)를 통해 자신의 자아가 확장됨을 경험하였다. 또한 자기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함으로써(변동적) 자기 자신과의 관계회복을 경험하였다.

내 자신에 대해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자기 자신과 친밀해지면, 치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면의 통합이 가능해지니까요. <참여자 12>

주일에는 내면아이 치료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또 뭐죠? 센소리 모터 사이코 테라피 스피치로... (중략)... 이런 것들을 ISP 치료를 배우면서 저희가 되게 많이 제가 상담을 많이 했어. 개인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또 ISP로 치료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참여자 10>

상담전문가로서의 성장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서 영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상담전문가로서의 성장을 강조하였다. 영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상담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자질을 향상하게(변동적) 하였다. 또한 명상하기를(변동적)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상담사로서 좀 더 나은 자리에 이르는 경험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중략) 그래서 자신의 치유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었어요. 상담사는 자신이 치유의 도구이니까요. <참여자 6>

내가 체험한 영성을 통해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지느냐... (중략) 지금 자기 자신도 다듬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면 안 될 거 같아요. 그것이 영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유지요. <참여자 15>

논 의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상담사들이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상담 장면에서 지각하는 영성체험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상담사가 자신의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상담 장면에서 그 영성이

어떻게 체험되고 발현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이 맥락에서 상담사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상담사가 영성이 필요한 이유와 자신의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다루며, 상담사 영성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영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상담사들의 체험을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언어를 통해 탐구함으로써 개인 상담 및 부부가족상담 분야에서 영성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경험적 자료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가지는 전반적인 의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상담사들이 이야기한 자신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실제 경험을 근거로 탐구함으로써 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개념에 대해 보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영성이란 개념에 대해 특정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않고 범종교적이며 동시에 탈종교적 영성을 다루었다. 이러한 보편적 영성의 차원에서 상담사의 영성을 다룸으로써 비단 종교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상담이라는 인간 존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상담사들에게 영성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그 깊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영성은 사람과의 확장된 관계, 초월자와 확장된 관계, 세상과 확장된 관계, 상담사 자신과의 관계라는 네 가지 범주로 정리되었다. Canda(1988)는 영성을 자신, 타인, 우주, 그리고 궁극적인 실체와의 관계에서 의미, 목적, 도덕성, 그리고 웰빙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영성을 인간 경험의 중요한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영성이 개인의 성장, 윤리적 가치, 그리고 더 넓은 존재론적 질문들과의 연결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영성의 다면적 특성은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

이 '고유한 자기됨을 찾는 것', '타인들과의 유대감', '자연과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 '초월자의 속성을 깨닫는 것', '변화되고 치유되고 성장하는 것'으로 영성을 이해한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상담사 자신과의 관계는 기존의 일반적인 영성 체험과는 구별되는 상담사 영성의 독특한 특징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담사로서의 자기 성장과 내담자를 향한 헌신적인 태도는 상담사의 전문성과 영적 발달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수준의 영성을 발견하고 체험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처럼, 상담사로서의 자기 성장과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이 깊은 영성으로 이어지는 점은 일반적인 영성 체험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Westgate(1996)는 웰빙과 상담의 맥락에서 영성을 연구하며, 영성이 전체적 웰빙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개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네 가지 범주는 현대 사회에서 강조하는 웰빙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웰빙은 단순한 신체적 건강을 넘어 인간의 총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영성은 이러한 웰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확장된 관계와 성장의 경험은 개인이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 타인, 세상과의 조화로운 연결을 통해 진정한 웰빙을 이루도록 돕는다. Pececnik과 Gostecnik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출판된 영성 요소를 포함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모든 과학적 논문을 검토한 결과, 영성과 종교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신 건강 관리에 영성을 통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강조하였다(2022). 따라서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영성 인식과 개념이 기존의 연구에서 설명한 다면적 특성을 포괄할 뿐 아니라 내담자와의 호혜적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치료적 개

입으로서 영성의 의미를 재확인시켜 준다. 나아가 상담사 개인의 영적 신념과 실천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이 전반적인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상담사인 참여자들은 비록 영성이라는 용어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을지라도, 상담현장에서 다양한 영성 체험을 수시로 지각하고 있으며, 이를 상담 도구로써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상담사가 상담 장면에서 경험하는 영성체험을 몸으로 경험되는 영성, 감정으로 느껴지는 영성, 깨닫고 이해되는 영성,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드러나는 영성으로 범주화하였다. Skovholt와 Jennings(2016)의 연구에서는 숙련 치료사 10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인지적, 정서적, 관계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발견은 치료사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지적 속성 외에도 정서적 및 관계적 특성의 탐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상담 현장에서 상담사들이 지각하는 영성체험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관계적 속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네 가지 속성의 영성체험은 상담 장면에서 자기돌봄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한층 깊이 있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호스피스 케어에 종사하는 전문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Jones, 2008)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관계적, 영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기 관리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전체론적인 접근은 전문상담사들이 웰빙을 유지하고 번아웃 없이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성 체험을 고려한 상담에서는 상담사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관계적 차원 외에도 영적 요소를 인식하여 내담자의 전인적 치유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내담자의 내면적 성장, 삶의 의미 찾기, 그리고 더 깊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임상적 의

의가 있다. 반면, 영성 체험을 고려하지 않은 상담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만 집중하게 되어 상담의 깊이가 제한될 수 있다(최혜림, 2001). 영성 요소가 배제되면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내면적 통찰이나 영적 차원의 성장과 변화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안미순, 2015). 한편, 상담사의 전문성 발달과 영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특히 번아웃 예방과 상담사 웰빙에 대한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열어주고, 상담 장면에서 다차원적 속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상담사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내담자에게 포괄적인 치료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담사들이 상담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거나 역전이를 경험하고, 내담자의 삶의 일부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치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깨닫게 되는 것도 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영성을 체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관계적 경험은 상담의 전 과정에서 상담사 개인과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며, 한편으로는 상담사들에게 상담 과정을 이해하고 이어나가게 하는 상담의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이 상담사와 내담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다름으로써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상호연결성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삶과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상담 장면에서 영성 체험이 상담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 노력, 상담사로서 시야의 확장, 상담의 도구로 성장으로 범주화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들은 내담자와 함께 머물고, 지지하며 버텨주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초월자의 능력 앞에 겸손해 짐', '상담자로서 치유에 필요한 나로 변화됨'을 깨닫게 된다. 아울러 내

답자가 문제를 치유하고 건강해 지려는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 노력, 상담사로서 시야의 확장, 그리고 상담의 도구로 성장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사의 영성과 상담 성과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박열이(2013)의 연구와 지속적인 상담사의 자기성찰과 자기관리, 그리고 영성이 상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상담사 요인으로 확인한 김창대 외(2008)의 연구를 지지하며, 그 내용을 참여자들의 언어를 통해 드러내 준 결과라 하겠다.

한편,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영성체험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내담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수용받는 정서적 치유, 내적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 초월적인 것에 대한 시야 확장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감정을 담아주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신체적, 정서적 치유와 관계 회복을 경험하며, 상담사의 긍정적인 영성에 영향을 받아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창진(2013)의 연구에서도 영성체험이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삶의 만족, 보편적 안녕,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며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상담사에게 미친 영향인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 노력, 상담사로서 시야의 확장, 상담의 도구로 성장은 내담자에게 미친 통합적 치유와 회복, 내적 성장이라는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의 영성체험이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삶과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선순환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들은 자신의 영성을 통해 성장하고 상담 장면에서 이를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 필요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영성이 필요한 이유로 초월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 전인적 상담사로서 발전을 보고하였다. 특히, 상담사들은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가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종교가 있는 상담사들은 삶 전반에서 초월자와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상담에서도 신의 섭리에 따라 상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상담사가 자신의 신과 경험한 좋은 관계를 내담자에게도 재현하고자 한다는 김신애(2018)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상담사 자신의 자기돌봄과 자기관리가 소진과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며(최해립, 2009), 영성이 상담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상담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창대 외, 2008). 본 연구에서도 상담사들은 상담에서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거나 모호한 상황을 견디고 소진된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영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상담사들이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영위하며 전인적 상담사로 발전하는 데 있어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상담사들이 자신의 영적 가치를 인식하며 더 깊이 있는 상담사로 변모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와 상담사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종교와 영성이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유된 가치와 지침을 양측에 심어줌으로써 치료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Egunjobi 등(2023)의 연구와 상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변혁적 힘과 영성의 가치화라는 Frunza 등(2019)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들은 상담사에서 자신의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영적 차원의 확장, 삶의 질 향상,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 상담 전문가로서의 성장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정리되었다. 상담사들은 영적 차원을 확장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신의 존재 또는 내면에 자리한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창진(2013)은 영성체험의 본질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신앙경험은 삶의 근원적 힘이 되고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인격적 성숙과 전문성 발달에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안현미, 2012). 또한 한국의 심리학자들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심리학자들에 비해 영성과 종교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더 높으며, 종교적 생활을 통해 자신의 영성을 돌보는 데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문기, 2016). 상담사들은 일상의 영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와 주변에 감사하고, 자연 속에서 우주와 연결됨을 느끼려 한다. 영성을 신체, 정신, 영적 측면을 통합하는 힘이자, 절대자와의 연결 요소(오복자, 강경아, 2000), 또는 개인을 타인 및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시키는 우주적 생명력(이경열 외, 2003)으로 보는 관점은 본 연구 참여자들이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맥락과 일치한다. 이런 맥락에서, 영성은 삶의 적응 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이창진, 2013), 자신을 돌아보고 돌봄으로써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곧 영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깊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가 일치한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적 노력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상담사 영성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와의 깊은 연결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임상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상담사의 영성은 상담 장면에서 자기 돌봄과 소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성 체험은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깊은 연결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적 안정과 상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영성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내면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는 전인적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상담사의 영성은 상담 과정에서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을 제공한다. 상담사는 영성을 통해 상담 장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를 통해 내담자가 상담사와의 관계에서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아 확장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부부 및 가족 상담에서의 관계 회복과 재결합에 있어서 상담사의 영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성은 부부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용서, 자비, 인내 등의 덕목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잡한 가족 체계 내 갈등을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며, 가족이 위기 상황에서도 유대감을 유지하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상담사의 영성 체험은 상담사 자신의 성장과 전문성 향상에 중요한 동력이 된다.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인적 상담사로서 성숙해지며, 영성 체험을 통해 상담의 깊이와 효과를 높인다. 이는 상담사의 정체성과 깊이를 확장시키고,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이, 상담사의 영성은 개인 상담과 부부가족상담 모두에서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상호연결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하고, 상담사의 자기 성장과 내담자 치유를 동시에 촉진하는 필수적인 자원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 주제와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상담사가 상담 장면에서 인지한 영성체험을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그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 구조나 경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보다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나 해석학적 현상학 분석(IPA)을 도입

하여 경험의 깊이와 복잡성을 더 풍부하게 탐구할 것을 제안한다. 덧붙여, 본 연구와 같이 19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정 맥락에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더 다양한 경험을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범종교적, 탈종교적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했으나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종교적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특정 신앙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초월적인 영성의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교적 다양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 경력, 문화적 배경,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맥락을 가진 참여자들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영성 체험을 탐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는 상담사의 지각에 근거한 내담자의 경험이 반영되었으나, 내담자가 직접 경험하는 영성 체험에 대해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험으로 초점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사와 내담자의 영성 체험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관계적 차원에서 비교하고, 이러한 체험이 각자의 성장과 삶의 질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고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합의적 질적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의 포괄적 서술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상담 전 과정을 통해 영성 체험이 어떤 단계나 변화를 거쳐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심층적인 근거이론 연구를 제안한다. 분석심리학자인 Jung 및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Frankl과 May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치유에서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상담사들이 자신의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좀 더 체계화할 연구와 영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일선, 최소영, 김진숙 (2017). 진화론적 방법을 활용한 영성 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47(5), 712-712.
- 김신애 (2018). **숙련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겪은 영성적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환, 최금주, 김승돈 (2009). 한국에서의 영성관련 연구동향 분석 및 학문적 합의. **상담학연구**, 10(2), 813-829.
- 김유현, 김지현 (2021). 초심상담자 영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탐색. **인문사회** 21, 12(3), 1519-1530.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2), 961-986.
-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용용 (2016). **상담학 사전**. 학지사.
- 노경이 (2009). 영성과 자아존중감 및 종교 간의 관계 연구. **상담학연구**, 10(4), 2591-2606.
- 단영결 (2014). **영성과 마음챙김이 심리적 대처와 건강 라이프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노권 (2002). 기독교 영성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1), 311-332.
- 박은아 (2010). **MBTI 성격유형에 따른 하나님 표상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열이 (2013). **상담자의 행복, 자기효능감, 영성, 상담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전경구 (2004).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33-350.
- 서인석, & Marnay, P. (1974). 힌두교와 그 영성. **신학 전망**, 12월호, 45-60.

- 안미순 (2015). **상담자의 영성과 상담성과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찰과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미순, 정민선 (2017). 상담자의 영성과 상담성과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찰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2), 119-146.
- 안현미 (2012). **상담자발달에 신앙경험이 갖는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은용 (2008). 생명·영성의 문제와 불교.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39, 2-22.
- 염남희 (2007). **대학생의 원복주의와 우울에 관한 성격적 상담**.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영성, 국어사전 (작성일 불명).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98%81%EC%84%B1에서> 2024. 8. 24. 인출.
- 오미성 (2003). **한국인의 영성 체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복자, 강경아 (2000). 영성(Spirituality)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0(5), 1145-1155.
- 위키백과, 건강 (작성일 불명) <https://ko.wikipedia.org/wiki/%EA%B1%B4%EA%B0%95에서> 2024. 8. 24. 인출.
- 윤옥한 (2023). 중등학교에서 영성 교육을 위한 영성 개념 탐색.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 논문지**, 9(4), 561-571.
- 이경열, 김정희, 김동원 (2003).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5(4), 711-726.
- 이만홍 (2005). 정신의학과와 영성.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9, 55-84.
- 이문기 (2016). 영성과 종교에 대한 상담심리학자의 인식과 실천.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를 대상으로, 목회와상담**, 29, 133-165.
- 이미라 (2003). 암환자의 영성 개념 분석-기독교, 불교 무종교 중심으로. **한국성인간호학회지**, 15(4), 551-562.
- 이은진, 백상은, 조영미 (2021). 상담자의 스트레스, 소진,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자기돌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6), 261-273.
- 이창진 (2013). 영성체험의 효과와 영성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성령세미나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2), 135-180.
- 이해령, 백지숙 (2023). 상담자 영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돌봄과 자기조절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문논문지**, 23(11), 375-386.
- 이해리 (2007).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유연성의 역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용환 (2004). 질적 연구와 질적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7(2), 55-75.
- 조현신, 신혜연 (2022). 상담연구에서의 영성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교육논총**, 42(3), 185-200.
- 최경혜 (2018). **한국인의 영적건강 개념분석**.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종환 (2007). **종교성향, 원가족 건강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부부친밀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림 (2001). 상담에서의 영성의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13.
- 최혜림 (2009). 상담자의 자기 돌봄. **인간이해**, 30(1), 1-19.
- 하영자, 이영순, 천성문 (2005).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활용한 가톨릭 교회 여신도들의 영적 자아발견에 관한 체험분석. **상담학연구**, 6(3), 1071-1085.
- 허현나 (2002). **종교적 지향성과 영성적 안녕 및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dul-Rahman, Z. (2017). Islamic Spirituality and Mental Well-Being. *Yaqeen Institute for Islamic Research*, 20.

- Amin, M. Ahmad, M., & Abdul Rahim, A. (2018). Islamic Spirituality and Its Impact on Life as a Muslim. *AL-ITQAN: Journal of Islamic Sciences and Comparative Studies*, 2(1), 63-78.
- Burkhardt, M. A. (1989). Spirituality: an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 Nurs Pract*, 3(3), 69-77.
- Canda, E. R. (1988). Conceptualizing spiritual for social work: Insights form diverse perspectives. *Socialthought*, 14(1), 30-46.
- Castillo, F., Castillo, C. D., & Alvarez, M. (2020). Spiritual Well-Being and Its Role on the Society of Selected Catholic Religious Novices. *Religious*, 11(7), 371.
- Chandler, C. K., Holden, J. K., & Kolander, C. A. (1992). Counseling for Spiritual Wellness: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2), 168-175.
- Crawford, M. (1989). Feminist Theory, Feminist Psychology: A Bibliography of Epistemology, *Critical Analysis, and Application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3(4), 477-491.
- Egunjobi, J. P., Kabore, J. P., Habimana, P. (2023). Spirituality in Counseling: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Counselor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Innovations in Social Science*, 7(1), 1352-1359.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 Theology*, 11, 330-340.
- Evans, A. L., Nelson, J. K. (2021). The value of Adapting Counseling to Client's Spirituality and Religion: Evidence-Based Relationship Factors. *Religion*, 12(11), 951.
- Frunza, M., Frunza, S., Grad, O. (2019). The Role of Spirituality in Therapeutic Practice. *The Journal for the Study of Religious and Ideologies*, 18(53), 60-74.
- George E. V. (2010). **하버드대학교 인생성장보고서: 행복의 조건** [*Aging Well*]. (이덕남 역). 프런티어. (원전은 2002년 출판).
- Giles, J. H. (2013). *The role of spirituality in therapist self-care: An exploration of students beliefs and practi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Fargo, North Dakota, USA.
- Griffiths, M. (1984). Emotions and Educatio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18(2).
- Guinee, J. P., Tracey, T. J. G. (1997). Effects of religiosity and problem type on counselor description rating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6(1), 65-73.
- Hill, C. E. (2016). **합의적 질적 연구-사회과학 현상 탐구의 실질적 접근**-[*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on Social Science Phenomena*]. (주은선 역). 학지사. (원전은 2012년 출판).
- Jones, S. H. (2008). A Delicate Balance: Self-Care For the Hospice Professional. *AgingWell*, 1(2), 38.
- Lakdawala, Y., Qasmi, A., & Chettiar, C. (2018). Relationship between Islamic Spiritu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dian Journal of Mental Health*, 5(1), 114-117.
- Laungani, P. (2005). Hindu Spirituality and Healing Practice. *Multicultural Aspect of Counseling Series*, 22, 138.
- Lee, K. C., Oh, A., Zhao, Q., et al. (2017). Buddhist Counseling: Implications for

- Mental Health Professionals. *Spirituality in Clinical Practice*, 4(2), 113-128.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 Pececnik, T. H., Gostecnik C. (2022). Use of Spirituality in the treatment of Depression: Systemic Literature Review. *Psychiatric Quarterly*, 93, 255-269.
- Sing, K., Raina, M., & Oman, D. (2022). Positive Psychology and Hinduism. In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Religion, and Spirituality* (pp. 195-209).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Skovholt, T. M., Jennings, L (2016). *Master Therapists: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Master Therapi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kovholt, T. M., Jennings, L (2021). *Master Therapists: Exploring Experience in Therapy and Counsel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ri, G. P., Singh, K., Saxena, G. (2023). Understanding Hinduism from a psychological Lens. In K. Singh & G. Saxena (Eds.), *Religious and Spiritual Practice in India: A pos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 (pp. 27-46). Springer Nature Singapore.
- Wampold, B. E., Brown, G. S. (2006). Estimating variability in outcomes attributable to therapists: A naturalistic study of outcomes in managed ca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914-923.
- Westgate, C. E. (1996). Spiritual wellness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 26-35.
- WHO. (1948). Constitution of the WHO. p. 2-3.
- Xiao, Q., Yue, C., He, W., & Yu, J. (2017). The mindful self: A mindfulness-enlightened self-viw. *Frontiers in Psychology*, 8, Article 1752.
- Young, J. S., Cashwell, C., Land, L., Reach, A., William, B., Tanhan, A. (2022). Behind Closed Door: The Clinical Practices of Spirituality Oriented Counselors. *Counseling & Values*, 67(2), 183-202.
- Zinnbauer, B. J., Pargament, K. I., & Scott, A. B. (1997). The emerging meanings of religiousness and spirituality: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65(4), 649-679.
- 원 고 접 수 일 : 2024년 09월 13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4년 10월 10일
게 재 확 정 일 : 2024년 10월 17일

A Consensual Qualitative Study on Counselors' Perception of Spirituality and Spiritual Experiences in Counseling Session

Lee Edith Soyeon	Kwak Yoo-young	Park Hyosook	Hwang Hae Jin	Ha Young Yoon
Family Counseling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Kwak Yoo-young Always Thank You Healing Center	New Jersey Family Ministry Counseling Center	Washington Mind Care	California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his study explored counselo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spirituality in their counseling practice, as well as its impact on both counselors and clients. Nineteen counselors participated, each holding a master's degree or higher, with over five years of experience, and at least one counseling-related certification.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method, six domains were identified: counselors' views on spirituality, types of spiritual experiences in sessions, effects on counselors and clients, the necessity of spirituality for counselors, and efforts to enhance personal spirituality. The findings underscore spirituality's role in fostering understanding, growth, and well-being, thus enhancing therapeutic effectiveness. Finally, recommenda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 : Spirituality, Perception of spirituality, Counseling session, Spiritual experienc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박 현 수*

김 용 수**

평택대학교

본 연구는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Giorgi(2004)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근거한 4단계 절차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 경험의 내용으로 81개의 의미 단위와 13개의 하위 구성요소 및 4개의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4개의 구성요소는 '관심', '거리감', '통제함', '통제받음'으로 확인되었다. 또래관계 경험의 구조는 또래관계의 접근성과 또래관계의 통제 의도로 구분이 되고, 또래관계의 접근성에는 '관심'과 '거리감'이 포함되고, 또래관계의 통제 의도에는 '통제함'과 '통제받음'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4개의 구성요소는 교차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와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자살, 중간 위험 수준, 청소년의 또래관계

* 제1저자: 박현수,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용수, 평택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평택시 서동대로 3825, Tel: 031-659-8450.
E-mail: thankyou@ptu.ac.kr.

서론

우리 사회의 청소년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 가족부(2024)에서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망원인이 고의적 자해(자살)이 10.8%로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2024)에서 발표한 제19차(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지영미, 2024), 청소년의 자살 생각률은 최근 5년간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였다. 2019년에는 13.1%, 2020년에는 10.9%, 2021년에는 12.7%, 2022년에는 14.3%, 그리고 2023년에는 13.5%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 자살 생각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런 통계는 최근 청소년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

청소년 자살 문제는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시도 그리고 실제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동의 연속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윤희원, 2011). 자살의 문제에 있어서 자살생각은 자신을 해치거나 죽음을 가하려는 생각으로, 막연히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까지를 포함한다(Beck et al., 1979; 이문영, 2021). 김정민(2013)은 그의 연구에서 자살생각을 막연한 생각이나 비구조화된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자살과 관련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은 자살계획이나 자살시도 이전에 나타나는 인지적인 사고라고 정의한다(김정란, 2019). 청소년의 자살 시도와 자살 행동은 자살 생각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2014년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청소년 1천 명 대상으로 한 ‘청소년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51.6%가 살아 있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살생각은 반드시 자살시도로 연결

되지 않지만,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높을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되거나 자살시도로 연결될 수 있다(문동규, 2011). 자살생각이 많을수록 자살시도를 많이 한다(김갑숙, 박치홍, 2015). 이러한 연구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개입은 자살생각에서 시작된다. 자살 위기 청소년 상담 매뉴얼(서미 외, 2019)에 따르면 자살은 수준에 따라서 중위험성과 고위험성으로 구분한다. 자살의 수준이 자살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 구체적 자살계획 없음, 자살도구의 접근성 없음, 과거 자살 시도력 없음, 문제 해결 의지 있음, 불안정한 심리적 상황, 위험한 행동은 한 적이 없음 등일 때, 이를 중간 위험성이라고 부른다(서미 외, 2019). 따라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을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겠다. 자살 중간 위험 수준이란 지속적으로 막연히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이 없고 실제로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계획이나 시도 행동으로 이어지는 않지만 자살 생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자살시도율도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일차적인 지표이다(고성은, 홍혜영 2009; 홍성례, 2012). 또한 Beck 등(1979)은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시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생각이라도 이후에 더 빈번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되며 결국 자살시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살의 일차적인 지표인 자살생각을 낮추는 것이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으므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은 자살을 직접 시도하는 고위험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기의 자살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자살 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잠복해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다(김현

순, 김병석, 2008). 자살 생각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생각이 시발점이 되어 더 빈번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구경미, 정현희, 2012). 그러므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심리적 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등으로 볼 수 있다(권은희, 2008; 문동규, 2011; 김현주, 노자은, 2011; 김정민, 2013; 김갑숙, 박치홍, 2015; 문영희, 2021).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감정이 심할수록, 학교 따돌림 경험 이 많을수록, 친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족과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사이트 접속과 연애인 자살보도 등의 사회요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조보행, 2013; 강대영, 2014). 이러한 선행연구는 청소년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이고 다각적 차원에서 이해했으며, 여러 변인을 분석하여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담 접근 방법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자살문제는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송인한, 권세원과 김현진(2013)은 청소년 자살에 작용하는 위험요인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넘어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문제의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의 지지 등이 있으며(정삼희, 2014; 김갑숙, 박치홍, 2015), 이러한 요인들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재이다. 정영주, 정영숙(2007)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또래친구가 있고 이런 보호요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자살의 위

험성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가족과 상호작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친구와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또래관계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지 체계이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어려움 상황에서 위안을 준다(Shoshani & Kor, 2021).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Long et al., 2020). 그만큼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김갑숙과 박치홍(2015)의 연구에서 “친구를 믿을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신뢰감은 자살사고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자살사고에 있어서 또래관계가 자살사고의 중요한 보호요인인 친구관계에 관한 이슈를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자살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 중 많은 이들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던 이유로 친구의 만류를 언급하였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친구지지는 우울로 인한 인지적 왜해를 중재함으로써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정영주, 정영숙, 2007).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래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필수적이다(김정란, 2019).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친구의 정서적 지원과 가까운 친구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이문영,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적응 및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또래관계를 보호요인으로 간주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이 또래관계는 청소년기의 자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에게 보호요인으로 또래관계에 관한 양적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질적 연구는 미미하다. 또래관계

가 자살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양적 연구들은 개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 또는 사회적 특성과 환경에 대해 각각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신애자, 2016). 이런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질적 연구를 통해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 지를 보다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을 상담하는데 있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보호요인인 또래관계 경험이 갖는 공통적 의미를 이해하고 본질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해 내는 연구 방법이 현상학적 연구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험을 공통점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고, 현상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공통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Creswell, 2015).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 경험의 내용과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자살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 중에서 또래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구조는 어떠한가?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

일선학교에서는 매년 신학기에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서 행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Adolescent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Problems Screening Questionnaire-III: AMPQ-III)를 실시한다. 특성검사결과는 일반 관리와 우선 관리 그리고 우선 관리(자살위험)로 나누게 된다. 우선 관리와 우선 관리(자살위험)의 결과 중에서 자살문제가 발견된 학생들이 광역단위의 청소년 상담센터에 상담이 의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A광역시 청소년 상담센터에 의뢰된 학생 중에서 수동적·적극적 자살 생각은 있으나 계획, 의도, 시도 경험이 없음에 해당되는 자살 중간 위험군을 선정하였다. 그래서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이 또래관계 경험의 내용과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참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A광역시 청소년 상담센터에 자살과 관련한 호소 문제로 상담이 의뢰된 중고등학생이다. 둘째, 참여자들은 자살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 자살계획은 없어야 한다. 셋째, 참여자는 자살도구의 접근성이 없어야 하며 과거에 자살 시도력이 없어야 한다. 넷째, 참여자는 불안정하고 우울한 심리적 상황에 놓여 있지만 문제 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조건을 살피기 위해서 A광역시 소재 청소년 상담센터에 의뢰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중학교 1학년생 4명과 고등학교 1학년생 4명 등 총 8명을 연구 참여자로 표집 선정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들 8명 중 인터뷰

녹취가 잘 못 되어 전사가 어려운 중학교 1학년생 2명은 제외하여 중학교 1학년생 2명과 고등학교 1학년 4명 총 6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특성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 윤리를 고려하여 한국상담학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논문 투고를 위한 연구 윤리 교육 및 상담 연구 윤리 강의를 이수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연구 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 수행 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기에 개인적인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주제 이외 삶의 세밀한 부분이나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 여 자	연령 (학년)	성 별	자살문제 및 심리적 문제
1	16 (고 1)	여	우선 관리군(자살생각) 초·중학교 때 대인관계 어려움 경험이 있으며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음
2	16 (고 1)	여	우선 관리군(자살생각) 중학교 때 친구관계 어려움 경험이 있고 불안감이 높고 친구관계 잘하려고 많이 노력함
3	16 (고 1)	남	우선 관리군(자살생각)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나 친구관계는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불안감이 높고 우울함
4	16 (고 1)	여	우선 관리군(자살생각) 정서적으로 불안과 우울감이 높고 또래와 잘 지내려고 과잉 행동함
5	13 (중 1)	남	우선 관리군(자살생각) 성격은 내성적이고 활발하지 않지만 친구들과 잘 지냄
6	13 (중 1)	여	우선 관리군(자살생각)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또래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함

첫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녹음 당시에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 중 중학생인 경우는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문자로 동의를 받았다. 또한 그 외 참여자들은 구두로 재차 확인하였다.

둘째, 자살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자 번호로 처리하여 연구자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밀 보장을 위하여 음성 녹음 파일과 전사된 파일은 연구가 끝난 후 삭제할 것을 참여자들과 약속하였다.

셋째, 인터뷰 녹음 전에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원치 않을 경우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도록 안내함으로써, 스스로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에 관한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밝히는데 Giorgi(2004)의 현상학적 분석 4단계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중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가이드 질문은 박영순(2019)의 박사논문인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개방적 질문과 반구조화 질문을 설계하였다. 개방적 질문은 “친구는 또래 친구와 관련하여 경험한 것을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해주세요?”이다. 개방적인 질문을 먼저 한 후에 연구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의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반구조적 질문을 하였다. 반

구조적 질문으로는 “또래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친구와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조별과제 혹은 팀이 함께 하는 활동에서 어떻게 하나요?”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질문들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녹음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필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참여자의 진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녹취된 음성 파일을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동시에 필사된 녹취 내용을 비교하면서 있는 그대로 인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필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 관계 경험과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필사된 내용을 분석할 때는 청소년 상담사 3명과 함께 분석하였고, 분석과 결과를 상담학 박사 1인에게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하였다.

표 2.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4단계

1단계 전체 인식하기	원 자료를 여러 번 읽고 전체적인 의미 이해하기
↓	
2단계 의미 단위 구분하기	연구자가 학술적인 관점에서 의미 단위로 나누기
↓	
3단계 학문적인 용어로 전환하기	의미 단위를 적합한 학술적 용어로 전환하기
↓	
4단계 상황적 구조 및 일반적 구조 기술하기	학술적 용어로 전환된 의미 단위를 통합하여 하위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도출 및 상황적 구조와 일반적 구조 기술하기

연구의 타당도

연구자 중 1인은 질적 분석 방법으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 논문을 14편 이상 등재지에 게재한 바 있다. 본 연구자는 대학원 수업 중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학술 세미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1인과 청소년 상담사 3인에게 분류한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박사 1인과 청소년 상담사 3인으로부터 3차례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 과정을 거쳤고, 이를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단계별로 함께 협의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며, 수정 및 보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분석과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로, 참여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자는 Giorgi(2004)가 제시한 연구 방법에 따라 참여자 6명의 녹취한 심층면접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고, 필사된 녹취록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드러나는 의미 단위 81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 구성요소 13개와 구성요소 4개를 도출하였다.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 관계 경험의 내용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이 또래관계 경험에 대한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미 단위가 81개로 나타났다. 이 의미 단위 주제를 따듯함,

사교적임, 사려 깊음, 우호적임, 경쟁적임, 솔직함, 자신 있음, 지배적임, 거리두기, 냉담함, 회피함, 순종적임, 자신 없음 등 13개의 하위 구성요소(드러난 주제)로 묶었다. 또한 이 하위 구성요소를 관심, 통제함, 거리감, 통제받음 등 4개 구성요소(본질적 주제)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인 경험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내용

의미 단위(중심의미)	하위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 의식적으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함. 감정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풀어 주려고 함. 친구와 싸운 상황이 아니면 기분에 대해서 물어봄. 왜 그런지 물어봐 주고 슬프면 위로해 주고 기분이 좋으면 같이 좋아해 줌. 화가 났을 때는 왜 화가 났냐고 물어봄. 의견이 달라도 저는 잘 이해하는 편임	1. 따뜻함	4. 우호적임
대화함.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 맞춰 가는 것임. 친구를 이해하고 서로 좀 맞추는 것. 친구에게 가서 얘기함. 그냥 말로 함.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봄.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음. 그냥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함.	2. 사교적임	
배려함. 내 마음보다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더 많이 생각함.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봄. 이것저것 해결의 답을 찾으려고 많이 생각함. 자기 입장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화난 이유도 생각하면서 이야기 함. 기분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나에게 있는지, 상대방에게 있는지 살펴봄. 내 잘못을 생각해 보고 사과함. 친구들의 의견 들어보고 제 것과 합침. 괜찮은가 물어보고 같이 걱정해 줌. 화가 난 상황이면 한두 시간 기다려 줬다가 왜 화가 났냐고 물어봄. 그 친구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음. 이야기를 들어 보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며 이해함.	3. 사려 깊음	5. 거리 두기
		6. 냉담함
		7. 회피함
	1. 관심	8. 경쟁적임
		9. 솔직함
		10. 자신 있음
		3. 통제함

성격을 좀 죽이는 것.
그냥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냥 인정함.
선을 넘지 않는 것.
자기 입장만 세우기보다는 친구 입장에서 충분히 들어봄.
제 마음보다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더 많이 생각함.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배려해 가면서 대화함.
친구에게 다 너 잘못이라고 상처 주면 안 됨.
친구의 의견을 듣고 그럴 수 있었구나 혼자 생각함.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이 더 좋으면 친구의 것으로 따르고 내 것이 더 좋으면 그것보다 내 것이 더 낫지 않냐고 말함.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친구가 얘기하고 싶을 때 들어줌.
친구가 의견을 계속 고집하면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하고 넘김.

친구와 대화로 풀거나 혼자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림.
그냥 며칠 연락 안 하고 있다가 친구니까 다시 이야기함.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음(그 친구가 그냥 기분이 우울하거나 꼴꼴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함).
기분이 안 좋을 때 친구들이 깨워도 깨지 않을 정도로 꼭 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음.
공감을 잘 안하는 편임. 기분이 나쁘면 그냥 기분 나쁜가 하고 그냥 넘어감.
잘 모르겠음.
부담스러움.
분위기 바꾸고 싶음.
별로 표현을 잘 안 함.
의사표현을 잘 안 함.

배려이지만 자기가 맞다고 우기면 싸움.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대답함.
화난 감정을 친구니까 그냥 욕으로 표현함. 덜 친한 친구는 그냥 단절함.
싸움.
처음에는 의견을 잘 이야기하다가 충돌이 되면 우기다가 싸움.
대개 솔직한 편이라 감정의 티가 잘 남.
그냥 말로 화가 났다고 말함.
딱 보면 보임.
친구의 의견을 들어 보고 내 방식은 이것이라고 말함.
직감으로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음.
친구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있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잘 알아차릴 수 있음.
얼굴 표정(분위기)을 보면 알 수 있음.
친구들이 나의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음.
작감으로 알 수 있음(나와 싸우는 상황이면 물어볼 것임).
말투나 행동으로
표정이나 말투로

짜증남. 약간 욕을 하고 꺼져라 이런저런 생각이 들. 거의 내가 하는 편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내가 주도해서 함. 웬만한 건 내가 다 함. 나의 반응에 따라서 친구들도 행동할 것 같음.	11. 지배적임	4. 통제 받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것 같음. 귀찮아서 친구를 의견을 따르는 편임.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임.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하는 편임.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라줌(마음이 편해서). 친구들이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잘 들어주는데 내가 의견을 내서 뭘 하자고는 안 함(귀찮고 욕 먹는 것은 리더니까). 그냥 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임.	12. 순종적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방 포기함(귀찮 아서 말싸움을 피하려는 편임. 잘 모르겠음. 눈치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음.	13. 자신 없음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 관계 경험의 본질적 구조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상황적 구조

청소년기 시기의 사회적 관계가 가족이나 부모관
계에서 또래관계로 이동한다. 청소년의 자살 생각
과 또래관계의 상관관계는 중요하다. 또래관계의
질은 자살 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자살 생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
다(Prinstein & Giletta, 2020; Xiao & Lindsey,
2021) 특히, 또래관계가 좋은 청소년은 자살 생각
의 위험이 낮다(Hutchinson et al, 2021). 자살 중
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들이 또래친구와 어떻
게 관계를 맺고 어울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심, 따뜻함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와 갈등 상황에서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 기분 좋게 이야기한다. 특히 참여자들
은 친구들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풀어

주려고 노력하거나 친구들이 감정에 대해서 관심
을 갖고 물어봐 주고 감정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
였다.

*화가 났으면 화를 풀어 주려고 하고 서운했으면
서운함 풀어 주려고 해요. (참여자 1)*

*왜 그런지 물어봐 주고 슬프면 위로해 주고 좋
아하면 같이 좋아해요. (참여자 3)*

사교적임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배려라고 답을 했고 또한 관
계를 서로 맞춰 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
래서 참여자들은 또래친구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의 차
이점을 찾아보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친구와 의
견 충돌이 발생할 때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였다. 친구들과 갈등 상황
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갈등의
문제점을 찾는다.

*관계는 서로 맞춰 가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배
려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 했어요. (참여자 2)*

*내가 하고 싶은 것 차이점을 찾아보고 둘 다 만
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요. (참여자 3)*

사려 깊음

연구 참여자들이 좋은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나 친구와 발생한 문
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려 깊음이다. 친구와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하
기에 있어서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다. “자기 입장

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화난 이유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친구의 기분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나에게 있는지 혹은 친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의 잘못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 친구를 이해하는 데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세우기보다는 친구 입장도 충분히 들으려고 했다. 또래 친구들의 정서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들의 감정에 따라서 반응했는데, 부정적인 감정일 경우에는 풀어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내가 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화난 이유도 생각하면서 너무 그냥 자기 입장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참여자 3)

잘못한 점이 나에게 있는지 상대방에게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3)

우호적임

참여자들은 또래 친구들의 정서 반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 또한 친구와 갈등 상황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점은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배려해 가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친구와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격을 죽이는 것이고,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기보다는 친구 입장도 충분히 듣는다고 했다. 친구와 갈등 상황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참여자들이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배려해 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또래 친구의 생각이나 관점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냥 인정해 준다. 화가 난 상황이면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왜 화가 났는지 물어본다. 또한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 의식적으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화난 이유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배려요. 관계는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배려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친구가 기분 나빠 했어요. (참여자 2)

자기 입장만 세우기보다는 친구 입장도 충분히 들어 보고 나와 친구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안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 서로 다 기분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요. (참여자 3)

나의 마음보다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를 더 많이 생각해요. (참여자 4)

참여자 권장은 물어보고 같이 걱정해 준다. 화가 난 상황이면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왜 화가 났냐고 물어본다. (참여자 5)

거리감, 거리 두기

친구와 갈등 상황에서는 소수의 참여자들은 혼자 시간을 갖고 마음을 다스리거나 또는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는 등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었다.

친구랑 대화로 풀거나 저 혼자 이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려요. (참여자 4)

그냥 며칠 연락 안 하고 있다가, 친구니까 다시 연락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냉담함

친구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친구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크게 화를 낸 것 빼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회피함

친구와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나 친구와의 갈등에서 드는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분위기를 빨리 바꾸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잘 모르겠다' 또는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았다' 등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분위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참여자 1)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빨리 돌리려고 할 것 같아요. (참여자 2)

통제함, 경쟁적임

참여자들 중에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옳다고 우기면 싸우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친구에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화난 친구에게 욕을 한다든지 덜 친한 친구는 그냥 단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견 충돌이 있으면 싸우는데. (참여자 4)

친한 것이 아니면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끊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솔직함

참여자 중에서 극히 소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분 나쁜 게 티가 좀 잘 나는 편이에요. (참여자 2)

그냥 말로 화가 났다고 해요. (참여자 3)

자신 있음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들의 정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친구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친구의 행동이나 얼굴 그리고 분위기를 보면 알아차린다고 한다. 또한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직감적으로 친구들이 감정을 감지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잘 알아차린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딱 보면 보여요. 우울하다 조금 화가 났다 조금 슬프다 예민하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참여자 1)

직감으로 목소리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이 잘 나타나요. (참여자 2)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이 약간 바뀌고 그러잖아요. 줄거우며 그렇게 바뀌는 거나. 아니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으로도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지배적임

또래 친구들과 조별과제 및 팀과 함께 활동할 때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주도하나 시간이 지나면 참여자가 주도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친구들이 행동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간혹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말한 내용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거의 제가 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1)

시간이 지나면 거의 제가 주도해서 해요. (참여자 5)

통제 받음, 자신 없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의 감정을 반응하는 데 있어서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 참여자도 있었고 잘 모르겠다고 자신 없어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눈치를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참여자 4)

나의 생각이 의견이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금방 포기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순종적임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와 갈등 상황이 생기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나 경우도 있었다. 또는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였다. 그 이유는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고, 귀찮아서 친구의 의견을 따른다고 대답했다.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2)

친구와 의견 충돌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친구를 따르는 편이에요. (참여자 6)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일반적 구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경험의 구조는 하위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 관계를 의미한다.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구조는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일반적 구조는 또래관계 접근성과 또래관계 통제 의도로 분류가 된다. 또래관계 접근성에는 ‘관심’과 ‘거리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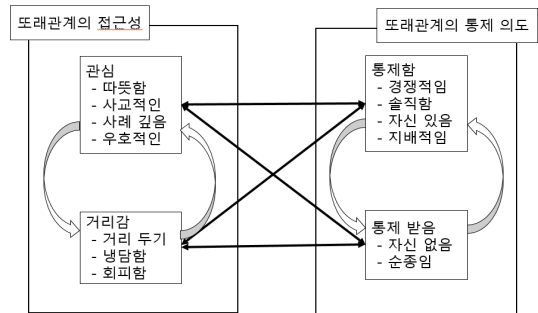


그림 1.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구조

포함되며, 또래관계 통제 의도에는 ‘통제함’과 ‘통제 받음’이 포함된다. 둘째, 또래관계 접근성 안에 포함된 ‘관심’과 ‘거리감’이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또래관계 통제 의도 안에 포함된 ‘통제함’과 ‘통제 받음’이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셋째, 4개의 구성요소 즉 ‘통제함’, ‘통제받음’, ‘관심’ 및 ‘거리감’은 상호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통제함은 관심과 거리감에 영향을 주며, 통제받음도 관심과 거리감에 영향을 준다. 또한 관심은 통제함과 통제받음에 영향을 주며, 거리감도 통제함과 통제받음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교차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구조를 갖는다. 이상으로 도출된 참여자들의 또래관계 경험의 구조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논의

본 연구는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내용과 구조는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경험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한 내용에 대해서 Giorgi(2004)의 현상학

적 연구의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81개의 의미 단위로 정리하였고, 의미단위를 토대로 13개의 하위 구성요소, 4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며, ‘관심’, ‘거리감’, ‘통제함’, ‘통제받음’의 4개 구성요소로 파악되었다.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서 김영환 등(2002)은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제안하였고, Kiesler(1983)은 대인관계 원형모델에서 16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하위 구성요소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구성요소는 두 차원으로 4개의 구성요소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관심’의 하위 구성요소는 따뜻함, 사교적임, 사려깊음, 우호적임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 친구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의 상황에서 ‘친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될 때가 있다’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때에도 또래친구의 감정이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참여자들은 친구와 발생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사려 깊은 행동을 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관심이다. 청소년기는 가정으로부터 정서적 독립의 욕구가 생겨나는 시기이기에 친밀한 우정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친밀한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래친구의 입장에서 또래친구의 견해, 관점, 정서를 이해하고 노력한다는 박영순(201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며, 친구를 배려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또래관계를 잘 맺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다(김택호, 김인규, 1999). Selfhout 등

(2008)은 또래관계에서 상호의존적 우정을 맺고 있는 청소년들은 우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헌신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친구의 기분을 묻고, 친구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것은 친구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다. 이는 청소년기 친구관계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크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내용과 비슷하다(김정민, 2013).

‘거리감’의 하위 구성요소는 거리두기, 냉담함, 회피함으로 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연락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사가 친구들과 대립될 경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귀찮아서 바로 포기한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가 의견을 계속 고집하거나 친구와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잘 모르겠다, 부담스럽다, 빨리 해결하고 싶다, 답답하다’와 같이 거리를 두거나 회피하였다. 이와 같이 또래관계에서 거리두기는 친구로부터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과 주장을 억제한다는 최유미(2013)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함’의 하위 구성요소는 경쟁적임, 솔직함, 자신 있음, 지배적임으로 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친구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경우에는 싸우거나 욕하거나 단절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또래관계에서 경쟁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감을 드러내어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통제받음’의 하위 구성요소는 ‘순종적임’, ‘자신 없음’으로 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 하고 참여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는 등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참여자는 친구들과 조별 과제 및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참여자가 통제하려는 의

도에서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노일하(2019)의 연구에서 지배형을 주로 사용하는 집단에서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즉 양상, 오인수와 손지향(2017)의 연구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또래관계가 본 연구의 통제함과 통제받음의 상호작용과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또래관계의 통제 의도에 포함된 통제함과 통제받음에 대한 선행연구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구조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구조는 크게 또래관계 접근성과 또래관계 통제 의도로 확인이 되었다.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일반적 구조는 또래관계 접근성과 또래관계 통제 의도로 나뉘는데, 또래관계 접근성에는 관심과 거리감이 포함되고 또래관계 통제 의도는 통제함과 통제받음이 포함된다. 이는 친애(우호-적대)차원과 통제(지배-순종)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 대인관계 원형 모델과 비슷하다(정남운 2001; Leary, 1957; Kiesler, 1983).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접근성 내의 '관심'과 '거리감'이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또래관계 통제 의도 내의 '통제함'과 '통제받음'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한 참여자는 “잘못한 점이 나에게 있는지 상대방에게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다른 상황에서는 며칠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친구라는 이유로 다시 연락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또래관계 접근성의 '관심'과 '거리감'이 상호 영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또래관계 통제 의도에서 참여자가 통제를 행사하기도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이로부터 통제를 받는 경험 또한 나타났다. 이는 친구 간의 상호작용에서 통제의 의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이 또래관계의 역동성을 형성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구성요소가 교차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함은 관심과 거리감에 영향을 주며, 통제받음도 관심과 거리감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조별활동 상황에서 자신이 다 하고 싶어 하는 참여자가 친구가 화가 났으면 화를 풀어 주려고 하고 서운했으면 서운함을 풀어 주는 따뜻함을 보였다. 이는 또래관계의 통제 의도에서 참여자들이 친구를 통제하려고 하니, 보다 관심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해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또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수정, 2022; 백지수, 2024). 또한 의견 충돌이 있으면 싸워서 통제하는 참여자가 다른 갈등 상황에서는 혼자 시간을 갖고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는다는 등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관심은 통제함과 통제받음에 영향을 주며, 거리감도 통제함과 통제받음에 영향을 주었다. 연구 참여자는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보다는 친구의 감정을 더욱 고려하는 우호적인 태도라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친구의 정서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친구의 눈치 보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는 거리감과 통제받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통제함과 통제받음, 관심과 거리감과 교차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구조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 관계 경험은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박영순, 2019). 반면,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들은 객관적인 상황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주관적인 감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가 친구에 대한 복잡한 이중적인 감정으로 악화될 수 있다(Xiao, Lindsey, 2021). 하지만 일반 청소년은 대체로 일관된 감정으로 더 건강한 또래관계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한다. 이러한 차이는 참여자들이 또래 친구의 눈치를 살피거나 자신의 자아가 상대방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의 또래 관계 경험은 다양한 구성 요소가 교차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이 겪는 감정의 복잡성과 그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 형성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이 또래관계의 교차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자살문제 청소년의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이 또래관계라는 점에서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의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래관계가 자살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정삼희, 2014)인 반면에 원활한 또래관계가 자살생각을 적게 한다(김순규, 2008)는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원활한 또래관계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서 제안된 하위 구성 요소들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또래 관계에서 겪는 복잡한 감정과 상호작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또래관계의 구조를 '또래관계 접근성'과 '또래관계 통제 의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요소 간에 교차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관심과 거리감, 통제함과 통제반응의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이 겪는 감정

의 복잡성을 잘 설명해준다. 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정서적 안정을 이루는 과정은 그들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긍정적인 또래 집단 내에서의 정서적 경험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Cui et al., 2020). 지지적인 또래관계가 낮은 우울 증상을 예측할 수 있으며, 또래 수용과 지원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보호적 역할을 강조한다(Adedéjì et al., 2022).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 상호 작용은 스트레스 요인을 완화하고 자살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Tang et al., 2022). 청소년기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호한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친구에 대한 모호한 감정을 안정시키면 자살 생각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교차적 상호작용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 관계 경험은 양가적인 성격을 가지며, 구성 요소 간의 교차적 상호작용이 그들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작용 원리와 그로 인한 심리적 결과를 더욱 상세히 탐구할 필요가 있다.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이 또래관계의 교차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어 계속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청소년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되고 시점에서 청소년 자살문제의 보호요인인 또래관계 경험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가 있다. 청소년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요구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애착이 형성된다. 일생 중 또래친구와 친밀감이 높은 시기인 청소년기에 또래친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 자살문제

에 있어서 또래친구가 보호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일반 청소년과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의미 있는 발견으로 평가된다. 셋째,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이 또래관계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체험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자살 중간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이 또래관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상담현장에서 자살문제 청소년들의 개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표본이 고등학교 1학년 4명과 중학교 1학년 2명으로 제한된 표집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들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정서적 발달 단계에 있으며, 이들의 경험이 다른 연령대나 학년의 청소년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보다 보편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학년을 아우르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년과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발달적 차이를 반영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과 학년을 포함한 표본을 선정하고, 그들 각각의 발달적 특성에 맞춘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 또래 관계의 복잡한 역동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살생각이나 자살과 관련된 문제가 정서행동특성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서행동특성 검사에서 선별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자살문제와

관련된 참여자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의 욕구와 특성과 관련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또래 관계의 요소들이 순환적 상호작용과 교차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살 중간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자살 문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 청소년과 집단에 대해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살 위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또래 관계의 순환적 상호작용과 교차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살 위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순환적 상호작용과 교차적 상호작용이 자살 위험군 청소년들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 또래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살 위험군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자살 위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해, 두 집단 간의 또래 관계 상호작용의 차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대영 (2014).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세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성은, 홍혜영 (2009).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6(11), 97-124.
- 권은희 (2008).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경미, 정현희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동적 사고,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경로 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13(3), 1295-1314.
- 김갑숙, 박치홍. (2015).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재활심리학회**, 22(1), 115-130.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환,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21(2), 391-411.
-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66-93
- 김정란 (2019). 자살생각 관심군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민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택호, 김인규 (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실태 분석.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36, 4-172.
- 김현순, 김병석 (2008).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및 심리치료**, 20(2), 201-219.
- 김현주, 노자은 (2011).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 지지와 청소년의 자살충동 간 인과관계 분석. **한국인구학회**, 34(2), 135-162.
- 노일하 (2019). 청소년의 또래동조성 및 자기통제력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에서 갈등협상전략의 조절효과. 대학원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동규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련된 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영희 (2021). 중·고등학생의 자살생각 결정요인과 예측모형.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순 (2019).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지수 (2024). 가스라이팅 행위의 개념과 실태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미, 김은하, 이태영, 김지혜 (2019). 자살 위기 청소년 상담 매뉴얼: 자살.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송인한, 권세원, 김현진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건강증진행동이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0(9), 97-123.
- 신애자 (2016). 중도지체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 경험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정 (2022). 가스라이팅 및 스토킹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비교. **한국경찰연구**, 21(2), 211-236.
- 양상, 오인수, 손지향 (2017). 한국과 중국 중학생 괴롭힘의 가해, 피해 및 가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8(3), 413-440.
- 윤희원 (2011).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위험행위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문영 (2021). 청소년 자해행동,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관련 요인: 개인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남운 (2001).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 구성. **심리과학**, 10(1), 117-132.
- 정삼희 (2014). 자살행동 청소년의 극복과정.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주, 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조보행 (2013). 청소년자살의 위험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유미 (2013). **청소년의 대인관계욕구와 또래에
작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23. 5. 30) **2023 청소년 통계** [보도
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07 2024. 9. 30 인출.
- 지영미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제19
차)**. 청주: 교육부, 질병관리청.
- 한국건강증진재단 (2014. 3. 18.).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 [보도자료]. <https://www.khepi.or.kr/board/view?pageNum=1&rowCount=10&nol=1&linkId=501689&menuId=MENU00907&schType=1&schText=%EB%B9%A8%EA%B0%84&searchTyp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contents1=> 2024. 5. 25 인출.
- Adedeeji, A., Otto, C., Kaman, A., Reiss, F., Devine, J., & Ravens-Sieberer, U. (2022). Peer Relationship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Results From the German BELLA Study. *Frontiers in Psychology, 12*.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 - 352.
- Cui, L., Criss, M. M., Ratliff, E. L., Wu, Z., Houlberg, B. J., Silk, J., & Morris, A. (2020). Longitudinal links between maternal and peer emotion socialization and adolescent girls' socioemotion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56*(3), 595-607.
-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학지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등 역). 현문사. (원전은 1985년에 출판)
- Hutchinson, E. A., Sequeira, S. L., Silk, J., Jones, N., Oppenheimer, C., Scott, L. N., & Ladouceur, C. (2021). Peer Connectedness and Pre Existing Social Reward Processing Predicts U.S. Adolescent Girls' Suicidal Ideation During COVID 19.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1*, 703-716.
- Kiesler, D. J. (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s. *Psychological Review, 90*, 185-214.
- Leary, T. F.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Long, E., Zucca, C., & Sweeting, H. (2020). School Climate,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Social Ecological Perspective. *Youth & Society, 53*, 1400-1415
- Prinstein, M., & Giletta, M. (2020). Future Directions in Peer Relations Research.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9*, 556-572.
- Shoshani, A., & Kor, A. (2021).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children and adolesc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None*.
- Selfhout, M. H. W., Branje, S. J. T., & Meeus, W. H. J. (2008).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erceived Friendship Intimacy, *Constructive*

Problem Solving, and Depression from Early to Late Adolescence, J Abnorm Child Psychol, 37, 251 - 264.

- Xiao, Y., & Lindsey, M. A. (2021). Adolescent social networks matter for suicidal trajectories: disparities across race/ethnicity, sex, sexual identity, and socioeconomic status. *Psychological Medicine*, 52, 3677-3688.
- Tang, Y., Diao, H., Jin, F., Pu, Y., & Wang, H. (2022). The effect of peer education

based on adolescent health education on the resilienc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LOS ONE*, 17.

원 고 접 수 일 : 2024년 08월 30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4년 10월 13일

게 재 확 정 일 : 2024년 10월 18일

A Study on the Peer Relationship Experiences of Adolescents at Intermediate Risk of Suicide

Park, Hyun Soo

Kim, Yong su

PyeongTaek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peer relationship experiences among adolescents at intermediate risk of suicide. Six participants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analysis revealed 81 meaning units, 13 sub-components, and 4 main components: "excessive interest," "distance," "controlling," and "being controlled." These components were categorized into two areas: accessibility of peer relationships and intention to control peer relationships. Accessibility includes "excessive interest" and "distance," while intention to control encompasses "controlling" and "being controlled." The study confirmed that these four component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findings are discussed on terms of their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 : Suicide, Intermediate risk of suicide, Peer relationship experiences of adolescents

중등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오 윤 석** 정 여 주
국립부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의 일반 교사 312명으로 심리적 소진, 지각된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5.0 및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하였으며, 다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 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가 이중 매개하는 완전매개모형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심리적 소진, 지각된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직무스트레스

* 오윤석(2023년)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오윤석, 국립부경대학교 박사과정,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108-1101, E-mail: oys3355@naver.com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학부 모 상담, 보육 역할에 대한 기대, 과도한 행정업무, 그리고 보수적인 교직 문화 등으로 인해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다(김은주, 2017). 심리적 소진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탈진 상태를 의미한다(Freudenberger, 1974). 교사 대부분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며 높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냉소주의와 정서적 고갈과 같은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진다(김정미, 2009; 한광현, 2008). 이처럼 심리적 소진은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업무 수행 능력의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교직 이탈, 개인 생활의 질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치며(이영만, 2013; 장일영, 기영화, 2020; 장현일, 김도현, 2020), 나아가 학교 조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방성욱, 안지혜, 2021). 또한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결국 학생들의 학업 소진에도 영향을 미친다(성진숙, 최현주, 2018). 따라서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위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호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교사효능감(구본용, 김영미, 2014),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차시연, 김윤희, 2018), 자아존중감(이운경 외, 2021), 긍정심리자본(이미라 외, 2020), 자아탄력성(이영만, 2012), 직무스트레스(장창국 외, 2015), 사회적 지지(공현주, 이성규, 2018), 구조적 임파워먼트(이미라 외, 2020), 직무 요구(조환이, 윤선아, 2017), 학생 문제 행동(황명선, 신효정, 2015), 직무만족(권성민, 2011), 학생 지지(김영환, 2021), 직무 자원(한광현, 2008) 등이 있다.

이 중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도움으로,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다(황명선, 신효정, 2015). 사회적 지지는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김미령, 2005). 이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Thoits, 1986). 특히, 받은 지지의 양보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적응과 스트레스 관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며,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느끼는 사람은 안정감, 예측 가능성, 자아존중감을 더 많이 경험하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Cohen, 1985).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등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으며(김형섭, 2016), 특수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이은지, 2019). 또한 보육교사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할 때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켜 교사와 영유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남심 외, 2021). 이렇듯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oss et al., 1989).

심리적 소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이혜원, 2020), 사회적 지지(김효정, 하봉운, 2019), 정서지능(조혜진, 김수연, 2011), 자아탄력성(박희숙, 2019)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이는 심리적 소진이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의 심리적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환이와 윤선아(2014)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제시하였으며,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경쟁 우위를 위한 자본으로, 경제적, 인적, 사회적 자본 외에 개인이 가진 자신감(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낙관성), 회복력(회복탄력성)과 같은 심리적 강점을 포함하여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긍정적 심리상태를 말하며, 개발될 수 있는 자원이다(Luthans et al., 2004). 즉, 긍정심리자본은 인적 및 사회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Luthans et al., 2010).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을 개발한다면 교사 소진의 완화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조환이, 윤선아, 2017).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들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 관계의 타당성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정서적 지지, 부모의 지지, 또래의 지지, 정보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노병일, 심희숙, 2013). 또한, Harter(1988)는 개인의 자기 평가는 타인, 특히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주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박유리(2020)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희망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지각한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희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부터 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희망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가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지각할 때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박영심, 송화진, 2018).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 낙관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조명현, 2021).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란 직무수행자가 업무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정의할 수 있다(공현주, 이성규, 2018). 교사의 스트레스는 분노, 불안, 긴장, 좌절, 또는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으로, 직무 수행의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복지가 위협받는다고 인식할 때 발생한다(Kyriacou, 2001).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교사는 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행정 지원 부족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교수 활동과 학생, 교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김장섭, 2004). 실제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은경, 2018). 즉,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교직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신체적 탈진 상태인 심리적 소진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로 교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이나 동료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Ferguson et al., 2017),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Lin et al., 1979). 이를 종합하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나아가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이 교사의 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규명하여 교사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감소하거나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각된 사회적 지지 외에도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서 심리적 소진으로 가는 경로에 긍정심리자본을 매개 변수로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심리적 소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을 거쳐 심리적 소진으로 가는 경로에 직무스트레스를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심리적 소진, 지각된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 네 가지 변인 간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 모형을 통해 중등교사의 심리적 소진, 지각된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호복합적인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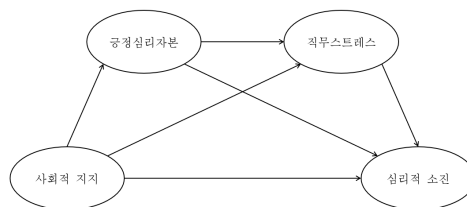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첫째,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긍정심리자본,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내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중등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초등교사, 사서교사, 진로진학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은 각각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근무 환경이 중등일반교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 교사 336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이 중 설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26명을 제외한 총 31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39	12.5
	여자	273	87.5
연령	20대	9	2.9
	30대	78	25
	40대	197	63.1
	50대 이상	28	9
담임 여부	담임 교사	179	57.4
	비담임 교사	133	42.6
교직 경력	1~5년 이하	30	9.6
	6~10년 이하	41	13.1
	11~20년 이하	172	55.1
	21년 이상	69	22.1
학교 급별	중등	161	51.6
	고등	151	48.4
소속 학교 지역	서울, 인천, 경기	143	45.8
	호서	12	3.8
	호남	6	1.9
	영남	144	46.1
	강원도	5	1.6
	제주도	2	.6
	합계	312	100

측정도구

심리적 소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박성호(2001)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정서적 고갈(9문항), 비인간화(5문항), 성취감 박탈(8문항) 등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 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성호(2001)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정서적 고갈 .89, 비인간화 .77, 개인적 성취감 .85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가 .88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정서적 고갈 .87, 비인간화 .72, 성취감 박탈 .77로 측정되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중등교사 사회적 지지의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임진형(2000)이 수정하고 그것을 김형섭(2016)이 중등교사에게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의 하위요인은 정보적 지지(6문항), 정서적 지지(9문항), 물질적 지지(4문항), 평가적 지지(5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장내 지지(동료교사, 교감, 교장 등)와 직장외 지지(가족, 친구, 이웃, 등)로 나누어져 있어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한 사람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자원이므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직장내 지지와 직장외 지지 모두 그 영향에 포함된다. 따라서, 교사들의 전반적인 사회적지지 지각 수준을 평가하고, 그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통합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직장내 지지와 직장외 지지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측정 방법은 모든 문항의 응답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지각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형섭(201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정보적 지지 .94, 정서적 지지 .94, 물질적 지지 .85, 평가적 지지 .87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6로 나타

났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정보적 지지 .90, 정서적 지지 .91, 물질적 지지 .82, 평가적 지지 .85로 확인되었다.

긍정심리 자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Luthans 등(2006)이 제시한 척도를 김규태, 최경민(2014)이 학교 조직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타당도 검증을 마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자기효능감(6문항), 희망(6문항), 회복력(6문항), 낙관성(6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규태, 최경민(2014)의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가 자기효능감 .91, 희망 .95, 회복력 .92, 낙관성 .9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자기효능감 .80, 희망 .81, 회복력 .71이었다. 한편, 하위 요인 중 낙관성 신뢰도가 .6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4번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낙관성은 .66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스트레스 척도

김정휘(1991)가 제시한 척도를 박영란(2005)이 39개의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강하게 느낀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영란(200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높았으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조직구조 .85, 사회적 인정 .82, 인간관계 .70에 비해 교육과정

.34, 학급관리 .32, 학생지도 .53 등 일부 요인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과 직접 오블리민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3개로 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요인 부하량이 0.4 미만인 문항(1번, 3번, 5번, 13번, 18번, 32번)은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최종 선정된 문항의 요인부하량

기존 문항	요인		
	1	2	3
37	0.749	0.025	0.330
39	0.702	0.091	0.358
6	0.698	0.193	0.264
26	0.696	0.169	0.283
25	0.676	0.246	0.375
19	0.655	0.131	0.220
30	0.640	0.372	0.115
21	0.602	0.064	0.450
34	0.564	0.089	0.397
36	0.554	0.163	0.465
38	0.529	0.030	0.499
24	0.510	0.304	0.126
9	0.456	0.293	0.038
35	0.444	0.125	0.199
10	0.438	0.259	0.241
17	0.183	0.710	0.058
15	0.219	0.677	-0.057
14	0.267	0.594	0.088
23	0.303	0.535	0.410
20	0.222	0.509	0.162
22	0.422	0.444	0.244
4	0.382	0.114	0.691
31	0.351	0.171	0.662
12	0.296	-0.054	0.647
29	0.373	-0.033	0.582
27	0.334	0.010	0.578
8	0.440	-0.044	0.578
16	0.229	0.052	0.527
11	0.368	0.099	0.509
7	0.387	0.061	0.495
28	0.215	0.179	0.457
33	0.179	-0.037	0.436
2	0.118	0.062	0.43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조직 분위기)은 교사들이 조직 내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요인 2(학생 지도)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요인 3(교사 처우)은 직무에서 교사들이 받는 대우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재구성한 척도는 조직 분위기 15문항, 학생 지도 6문항, 교사 처우 12문항과 같이 총 33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구성한 직무스트레스의 척도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소별 신뢰도(Cronbach's α)는 교사처우 .89, 학생지도 .75, 교사처우 .84로 확인되었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등교사의 심리적 소진, 지각된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와 AMO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등교사의 심리적 소진, 지각된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척도의 전체와 하위 영역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의 측정 도구의 하위 영역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 의 값을 높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를 수정하였다. 넷째, 중등교사의 심리적 소진, 지각된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직무스트레스의 기술통계치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왜도와 첨도를 계산하여 정규분포 가정 만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걸러진 문항이

본 연구모형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교사의 심리적 소진, 지각된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Kline(2019)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왜도가 3을 넘지 않고 첨도가 10을 넘지 않으면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며, Hong 등(2003)은 왜도 절댓값이 2, 첨도 절댓값이 4를 넘지 않으면 추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분포는 왜도(-.588~.362)와 첨도(-.576~1.291) 모두 기준에 충족하여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심리적 소진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386, p<.01$)가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소진과 긍정심리자본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658, p<.01$), 심리적 소진과 직무스트레스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676, p<.01$)가 확인되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450, p<.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389, p<.01$)가 나타났다. 마지막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N = 31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①	-																	
②	.88**	-																
③	.77**	.53**	-															
④	.71**	.39**	.45**	-														
⑤	-.38**	-.27**	-.30**	-.38**	-													
⑥	-.35**	-.24**	-.29**	-.35**	.95**	-												
⑦	-.39**	-.28**	-.30**	-.39**	.97**	.90**	-											
⑧	-.31**	-.21**	-.25**	-.31**	.92**	.84**	.88**	-										
⑨	-.38**	-.27**	-.30**	-.37**	.92**	.86**	.88**	.79**	-									
⑩	-.65**	-.45**	-.44**	-.73**	.45**	.40**	.46**	.35**	.47**	-								
⑪	-.52**	-.30**	-.36**	-.69**	.40**	.34**	.40**	.34**	.42**	.89**	-							
⑫	-.67**	-.53**	-.49**	-.59**	.41**	.38**	.41**	.32**	.41**	.81**	.60**	-						
⑬	-.54**	-.32**	-.37**	-.67**	.39**	.34**	.40**	.30**	.42**	.91**	.80**	.63**	-					
⑭	-.59**	-.47**	-.36**	-.60**	.37**	.34**	.38**	.29**	.39**	.88**	.69**	.67**	.73**	-				
⑮	.67**	.64**	.56**	.36**	-.38**	-.34**	-.39**	-.34**	-.37**	-.46**	-.32**	-.54**	-.34**	-.44**	-			
⑯	.56**	.53**	.50**	.28**	-.41**	-.38**	-.42**	-.35**	-.39**	-.41**	-.29**	-.49**	-.28**	-.39**	.91**	-		
⑰	.50**	.34**	.43**	.47**	-.29**	-.25**	-.29**	-.25**	-.31**	-.53**	-.42**	-.49**	-.48**	-.47**	.56**	.41**	-	
⑱	.56**	.61**	.42**	.22**	-.19**	-.16**	-.20**	-.20**	-.17**	-.26**	-.15**	-.36**	-.16**	-.26**	.81**	.56**	.24**	-

**p<.01

①심리적 소진 ②정서적 고갈 ③비인간화 ④성취감 박탈 ⑤지각된 사회적 지지 ⑥정보적 지지 ⑦정서적 지지 ⑧물질적 지지 ⑨평가적 지지 ⑩긍정심리자본 ⑪자기효능감 ⑫낙관성 ⑬희망 ⑭회복력 ⑮직무스트레스 ⑯조직 분위기 ⑰학생 지도 ⑱교사처우.

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 = -.464$, $p < .01$)가 확인되었다. 주요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원척도가 불안정하거나 부적합한 추정치를 보일 경우 다른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Little et al., 2002). 이에 따라, 하위 척도의 요인 부하량이 낮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척도에 대해서는 하위 척도 대신 3개의 문항 꾸러미를 제작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RMR, RMSEA, NFI, TLI, CFI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RMR은 .05이하이면 좋은 모형이고, RMSEA의 경우는 0.05이하이면 매우 좋은 모형, 0.08이하이면 좋은 모형, 0.10이하이면 보통수준으로 평가한다(Browne & Cudeck, 1993). NFI, TLI, CFI의 경우 .90이상인 경우 적합도가 좋은 모형으로 판단한다(강현철, 2013).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RMR = .018$, $RMSEA = .078$, $NFI = .953$, $TLI = .960$, $CFI = .969$ 로 양호하게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했다.

측정모형의 표준화 회귀 계수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900~.977, 긍정심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구분	요인	B	S.E.	C.R.	β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정보적 지지	1			.932
	→ 정서적지지	1.001	.026	37.779	.977
	→ 물질적지지	.997	.036	27.906	.900
	→ 평가적지지	.869	.03	28.675	.908
긍정 심리 자본	→ 자기효능감	1			.855
	→ 낙관성	.813	.051	15.794	.760
	→ 희망	.962	.048	20.038	.886
	→ 회복탄력성	.865	.047	18.307	.836
직무 스트레스	→ 직무스트레스1	1			.890
	→ 직무스트레스2	1.08	.045	24.247	.925
	→ 직무스트레스3	.95	.043	21.845	.874
심리적 소진	→ 심리적소진1	1			.911
	→ 심리적소진2	1.065	.046	23.177	.883
	→ 심리적소진3	.969	.042	23	.880

*** $p < .001$

리자본 .760~.886, 직무스트레스 .874~.925, 심리적 소진 .880~.911로 나타났다.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가 최소 기준인 .4 이상으로 나타나(Cheung et al., 2024), 14개의 측정 변인을 통해 4개의 잠재 변인을 구성한 측정모형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R=.018, RMSEA=.078, NFI=.953, TLI=.960, CFI=.969로 측정모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를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5와 같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22$, $p>.05$).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표 5. 연구모형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경로	B	β	S.E.	C.R.
지각된 사회적 지지	→ 긍정 심리자본	.457	.478	.054	8.427 ***
	→ 직무 스트레스	-.213	-.237	.055	-3.913 ***
	→ 심리적 소진	.020	.022	.041	.495
	→ 직무 스트레스	-.351	-.373	.060	-5.819 ***
긍정 심리 자본	→ 심리적 소진	-.436	-.459	.050	-8.778 ***
	→ 심리적 소진	.527	.522	.050	10.464 ***

*** $p < .001$

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명성의 원칙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직접 경로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서 심리적 소진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하고,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간접 경로만을 남긴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R .018, RMSEA=.077, NFI=.953, TLI=.961, CFI=.969로 연구모형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적합도를 보이며,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하지 않은 직접 경

표 6. 최종모형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경로	B	β	S.E.	C.R.
지각된 사회적 지지	→ 긍정 심리자본	.455	.477	.054	8.408 ***
	→ 직무 스트레스	.522	-.236	.054	-3.900 ***
긍정 심리 자본	→ 직무 스트레스	-.352	-.374	.060	-5.840 ***
	→ 심리적 소진	-.428	-.450	.047	-9.188 ***
직무 스트레스	→ 심리적 소진	.522	.517	.048	10.629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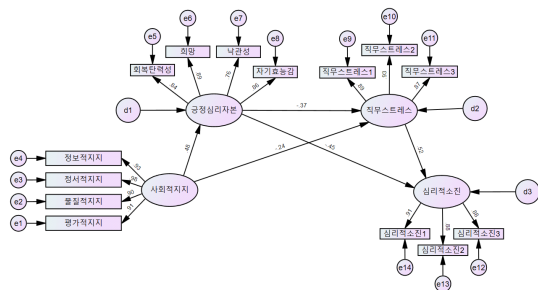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의 분석 결과

로를 포함한 연구모형과 달리 모든 경로가 유의한 수정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명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6과 그림 2에 제시되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beta=.477,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beta=-.236, p<.001$)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스트레스($\beta=-.374, p<.001$)와 심리적 소진($\beta=-.450, p<.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beta=.517,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다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효과 검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검증을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원자료($N=312$)로부터 2000개의 표본을 생성하고,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는 7표와 같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95% 신뢰구간이 -.262에서 -.136 사이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이르는 경로 역시 95% 신뢰구간이 -.168에서 -.053 사이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이르는 경로도 95% 신뢰구간이 -.262에서 -.123 사이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이 -.126에서 -.050 사이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

표 7. 간접효과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p	95% CI	
				LO	HI
지각된 사회적 지지 → 긍정심리자본 → 심리적 소진	-.195	.032	.001	-.262	-.136
지각된 사회적 지지 → 긍정심리자본 → 직무스트레스	-.160	.037	.001	-.238	-.094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직무스트레스 → 심리적 소진	-.111	.029	.001	-.168	-.053
긍정심리 자본 → 직무스트레스 → 심리적 소진	-.184	.035	.001	-.262	-.123
지각된 사회적 지지 → 긍정심리자본 → 직무스트레스 → 심리적 소진	-.084	.019	.001	-.126	-.050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1$). 이러한 결과는 중등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중등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교사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지각한 교사의 경우 긍정심리자본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교사의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교사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이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 심리적 자본,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공현주, 이성규, 2018). 따라서 교사들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기 위한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이 부분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지각할 때 긍정심리자본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소진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지선, 2020; 조환이, 윤선아, 2017). 즉, 중등교사들에게 이러한 결과는 교사 개인이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되는데(박지원, 1985), 이중 타인의 공감과 위로를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는 개인의 긍정적 감정 유지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필요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키워주어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시간이나 자원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회복탄력성을 높여준다. 행동이나 성과에 대한 인정과 격려를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 때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들이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부분매개하였다. 이는 교사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지각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소진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느낄 때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심리적 소진을 완화한다는 결과와 일맥상

통한다(권성민, 2011; 김명수, 이종훈, 2017). 중등교사는 학생 지도, 학급 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이때, 교사들이 동료, 상사,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곧 심리적 소진 완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내 지지 체계를 형성하여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순차매개하였다.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을 높여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김지선(2020)의 연구,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권성민(2011)의 연구, 그리고 긍정심리자본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공현주, 이성규(201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교사가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느끼지 못할 경우, 긍정심리자본이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쳐 심리적 소진을 심화하는 경로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해서는 동료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지지를 강화하고,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등 긍정심리자본을 향상하기 위한 워크숍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더욱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심리 상담 및 코칭 등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교사들의 심리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 역할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을 유발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함을 재확인하고, 직무스트레스의 관리가 교사의 심리적 건강 유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등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이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연구의 제안(조환이, 윤선아, 2014)을 바탕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혀내어, 상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제공하는 지지가 내담자의 긍정심리자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중등교사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개발되어, 직무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현장에서 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기 위한 개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상담사의 공감, 무조건적 존중, 이해와 같은 사회적 지지 요소가 교사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을 개발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사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소진 문제를 완화하는데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제한점 중 하나는 담임 여부, 경력, 학교급과 같은 요인들이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절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절변인은 교사의 심리적 소진 수준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사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하위 척도인 교육과정, 학급관리, 학생 지도에서 신뢰도가 낮았다. 이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를 수정하여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구조모형 검증 시 적합도가 만족스럽지 않아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분석함에 따라 일부 하위 요인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요인 척도를 구조방정식 모형(SEM)에서 분석하기 위해 문항 묶음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모델의 과잉적합(overfitting)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검증력을 저하할 수 있다. 과잉적합은 모델이 연구 표본에 지나치게 맞추어져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더욱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에서 직장내 지지와 직장외 지지를 구분하지 않고 평균값을 사용한 점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내 사회적 지지

가를 많다고 느끼고 직장외 사회적 지지가 적다고 느낄 경우, 평균값이 중간 정도로 나타나 교사가 실제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희석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장내·외의 지지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잠재적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로 설정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학교 조직 문화, 학급 환경, 학생과의 관계, 교사 개인의 성격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잠재적 변인들을 배제함으로써 연구모형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요인들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담임 여부, 교직 경력, 학교급별 특성과 같은 조절변인을 포함하여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심리적 소진의 예방 및 완화에 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항 묶음(item parceling) 방식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에서 문항 묶음 방식을 사용할 경우, 과잉적합(overfitting)의 위험이 있다. 과잉적합은 모델이 연구 대상 표본에 지나치게 적합하게 되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헤이

즈(Hayes) 모델을 사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직장내 지지와 직장외 지지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실제 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두 유형의 지지가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분석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스트레스 외에도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소진을 겪는 내담자에게 보다 폭넓고 효과적인 상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심리적 소진을 겪는 내담자의 특성과 맥락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며, 상담의 유연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 방법에 더해 면접 및 사례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경로와 대처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계적 수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며, 보다 실질적이고 맞춤형 상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철 (2013).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한국자료분석학회**, 15(2), 653-668.
- 공현주, 이성규 (201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심리적 자본과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GRI 연구논총**, 20(3), 69-99.
- 구본용, 김영미 (2014). 중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및 교사효능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7), 275-306.
- 권성민 (2011).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지지가 업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소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 유아교육연구**, 16(5), 313-333.
- 권은경 (2018). 중등교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합복합연구**, 16(8), 81-87.
- 김규태, 최경민 (2014). 초등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학생 핵심역량 관계에서 학교조직몰입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9, 51-72.
- 김명수, 이종훈 (2017).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소진 간 구조관계. **한국융합학회**, 8(10), 281-294.
- 김미령 (2005)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적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2(1), 99-121.
- 김영환 (2021). 학생지지가 고등학교 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5(6), 165-178.
- 김은주 (2017). 교사소진의 원인과 대안 모색. **교육의 이론과 실천**, 22(1), 1-38.
- 김장섭 (2004). **고등학교 교사의 소진경험과 귀인성향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2009). 여교사의 임파워먼트,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1), 177-199.
- 김정휘 (1991).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 신체적 증상 또는 설진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선 (2020). **유아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하봉운 (2019). 초등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직업 정체성, 회복탄력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과학연구**, 21(2), 245-267.
- 김형섭 (2016).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병일, 심희숙 (2013).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미취학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1(1), 90-113.
- 박남심, 박보경, 김미옥 (2021). 직장내·외 사회적 지지와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 및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6), 73-92.
- 박성호 (2001). **상담의 직무환경에서의 위험요소와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란 (2005).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경험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심, 송화진 (2018).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교사효능감이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3), 77-90.
- 박유리 (2020). **청소년의 희망과 사회적 지지, 학교 요인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희숙 (2019). 조직공정성이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9(16), 1215-1232.
- 방성옥, 안지혜 (2021).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아동중심실천연구**, 16(1), 20-38.
- 성진숙, 최현주 (2018). 교사 소진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다층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27-50.
- 이미라, 전향신, 박분희 (2020). 교사의 심리적 및 구조적 임파워먼트, 긍정심리자본, 교사소진의 구조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37(1), 183-210.
- 이영만 (2012). 초등학교 여교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25(1), 191-214.
- 이영만 (2013).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초등교육학회**, 26(2), 125-152.
- 이운경, 강호수, 손다정 (2021). 사회적 지지, 교사의 자아존중감 및 교사 소진의 관계. **교원교육**, 37(2), 349-372.
- 이은지 (2019). **특수교사의 낙관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소명의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 (2020). 유아교사의 그릿과 심리적 소진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교육의 이론과 실천**, 25(2), 21-34.
- 임진형 (2000). **유치원 초임교사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일영, 기영화 (2020). 교원침해 경험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회복과정. **교육문화연구**, 26(3), 239-267.
- 장창곡, 박미란, 이지연 (2015). 대입진학지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의 군집유형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8(3), 21-43.

- 장현일, 김도연 (2020). 교사의 감정노동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651-675.
- 조명현 (2021).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7), 587-600.
- 조혜진, 김수연 (2011).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 16(6), 231-247.
- 조환이, 윤선아 (2014). 교사소진 연구 동향 분석. **녀교육연구**, 13, 77-100.
- 조환이, 윤선아 (2017). 직무요구와 초등 교사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8(3), 1295-1318.
- 차시연, 김윤희 (2018). 학교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 관계에서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의 이중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2), 265-286.
- 한광현 (2008). 교사의 자원과 대처전략 그리고 소진의 관계. **경영교육연구**, 49(1), 327-349.
- 황명선, 신효정 (2015). 교사가 지각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1), 87-112.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heung, G. W., Cooper-Thomas, H. D., Lau, R. S., & Wang, L. C. (2024). Reporting reliability,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review and best-practice recommenda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41(2), 745-783.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 Ferguson, K., Mang, C., & Frost, L. (2017). Teacher stress and social support usage. *Brock Education Journal*, 26(2), 62-79.
-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 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1), 159-165.
- Harter, S. (1988). Developmental and dynamic changes in the nature of the self-concept: Implications for child psychotherapy. In A. D. Pellegrini (Ed.), *Cognitive development and child psychotherapy* (pp. 119-160). Boston, MA: Springer US.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Kline, R. B. (2019). **구조방정식 모형 원리와 적용**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공역). 학지사. (원전은 1998년에 출판).
- Kyriacou, C. (2001). Teacher Stres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ducational Review*, 53(1), 27-35.
- Lin, N., Ensel, W. M., Simeone, R. S., & Kuo, W. (1979).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A model and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08-119.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Luthans, F., Avey, J. B., Avolio, B. J., & Peterson, S. J. (2010). The development and resulting performanc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 capit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1(1), 41-67.
- Luthans, F., Luthans, K. W., & Luthans, B. C. (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Published in *Business Horizons*, 47(1), 45 -50.
-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 (2006).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university press.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2), 99-113.
- Ross, R. R., Altmaier, E. M., & Russell, D. W. (1989). Job stress,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counseling center sta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464-470.
- Thoits, P. A.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423.
- 원 고 접 수 일 : 2024년 08월 31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4년 09월 30일
게 재 확 정 일 : 2024년 10월 08일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Secondary Teachers on Burnout: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tress

Yoonseok Oh

Yeoju Chu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burnout among secondary teacher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tress. A survey of 312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was conducted using scales for burnout,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tress. Data were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25.0 and AMOS 26.0. The bootstrapping method with phantom variables tested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Results showed that while social support did not directly affect burnout, it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through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tress. The study confirmed a full mediation model, wher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tress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burnout. The findings offer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 : Burnout, Social suppor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b stress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한 미 영** 천 성 문***

국립부경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에 대한 직접 및 간접경험자의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외상에 관련된 개별 질적 연구 10편을 선정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연구에서 외상 경험에 대한 385개의 문장을 추출하여 외상의 재현, 외상의 회피, 부정적 인지오류, 부정적 정서표출, 과민성과 과도한 행동, 부적응과 신체반응, 외상후 적응과 변화라는 대범주 7개, 하위범주 22개, 내용 45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에 대한 직접 및 간접경험자의 외상 증상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직접 및 간접 경험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고 그에 따른 외상 정도와 경험이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직접 및 간접경험자 모두 부정적 정서인 분노가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 넷째, 간접경험자가 직접경험자에 비해 빠르게 일상생활 리듬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적극성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세월호, 재난, 외상, 질적 메타분석

* 본 논문은 한미영(2024)의 국립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한미영, 국립부경대학교 응용심리학과 석사 졸업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천성문, 국립부경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506호

Tel : 051-629-5905 / E-mail : smcheon@pknu.ac.kr

외상 경험은 소수의 사람만이 겪는 특별한 경험 이 아닌, 대다수 사람이 생애 한 번 이상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이다(주혜선, 안현의, 2008). 이러한 외상 경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개인의 특성과 환경, 외상의 충격 정도에 따라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와 같 이 심각한 부정적 증상을 겪을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2013).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의 영향을 받아 심리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화 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 암, 신경 과 질환, 섬유근육통, 관절염, 요통, 만성 피로 증후 군 등 다양한 질환이 비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 보다 더 높은 빈도로(안산온마음센터, 2022)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 회적 재난이 심리적 건강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며,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고 지속 적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음을 보여준다.

세월호 사건 생존 학생의 자살 시도나(MBN, 2014)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40대 자원봉사자의 자살사건(쿠키뉴스, 2014)은 직·간 접적으로 노출된 외상 사건에 대한 심리적 문제를 간과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재난으로 인한 충격이 재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그들을 구조하고 지원하는 전문 인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2017). 이와 관련하여 간 접외상 연구는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주로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세월호 사건 이 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간접외상 연구의 관 심이 증가하고(김지은, 2013; 손승희, 2014; 신나 라, 2015; 이흥표 외, 2016; 정의문, 2015) 연구가 확장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접외상은 외상 사건에 직접 노출된 직접경험자 에 비해, 일반적으로 그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Jenkins & Baird, 2002; Lerias & Byrne, 2003;

Lugris, 2000) 개인의 안녕감이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간접 외상을 겪은 사람들은 심각한 수준의 PTSD 증상이 아니라도 슬픔, 분노, 공포, 비애, 우울, 불안, 두려 움, 혼란, 악몽, 신체화, 불면 등의 증상을 보고하였 다(Brady et al., 1999; Lugris, 2000; Sexton, 1999). 이는 간접외상 경험자가 느끼는 외상 정도에 차이 는 있으나 심리적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사건과 관련되지 않아서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빈번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이다(Brady et al., 1999; Lind, 2000; Lugris, 2000; Motta et al., 1997). 다시 말해, 외상의 간접경험자 가 겪는 고통의 수준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증상이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확대될 때까지 침묵 속에서 고통 받게 되는(Lerias & Byrne, 2003)경우가 많다. 이는 직접경험자에 비해 간접외상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 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며, 방치될 경 우 향후 부정적 사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다수의 연구에서 '이전 의 외상 경험'이 간접외상의 위험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박지영, 2008; Baird & Jenkins, 2003; Cunningham, 1996; Kassam-Adams, 1995), 과거 외상 사건 경험이 많을수록 PTSD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은현정 외,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직접 및 간접 외상 경험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을 2004년 3월 처음 공포하 고, 2020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 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구체화된 법률상의 정의를 내렸다. 세월호 사건은 사회재난으 로, 사회재난은 2013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 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

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였다.

행정안전통계연보(2022)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자연재난으로 사망 및 실종된 사람은 75명이었으나,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은 998명, 실종자는 10명, 부상자는 83명에 달해 사회재난이 자연재난에 비해 인명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에서는 3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아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우울감을 안겨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회재난은 정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인간의 ‘도덕 감정’에서 찾는(양선이, 2014) ‘도덕적 분노’ 감정을 유발한다. ‘도덕적 분노’란 자신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인물의 행동이 도의에 벗어나 있다고 인식할 때 발생하는 분노를 의미한다(Batson et al., 2009; Darley & Pittman, 2003). 이처럼 사회재난은 예상하고 대비하기 힘든 자연재난에 비해, 준비된 제도나 기준을 지켰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재난이라는 점에서 외상 경험자들에게 그 상처와 분노가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물들을 종합 분석하고 해석하는 질적 메타분석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참여자가 소수라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지식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에 대한 통합적이고 해석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세월호 재난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직접 및 간접경험자의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하고, 연구 결과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외상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외상 경험자의 의료 정책 반영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여 심리 치료적 자료로 활용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에 대한 개별 질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외상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세월호 재난을 직접경험한 자와 간접경험한 자들의 외상 경험은 어떠한가?

방 법

질적 메타분석 절차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Nobilt과 Hare(1988)가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에서 제시한 7단계 질적 메타분석의 실행단계를 따랐다. 이는 나장함(2008a)이 말한 질적 메타분석 수행과정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 설정 단계에서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을 연구 주제로 설정
- 2단계: 연구물 검색을 통해 초기 관심에 관련된 내용 결정 단계에서 ‘재난, 재난 질적, 재난 세월호, 세월호, 세월호 질적, 세월호 외상, 세월호 트라우마’의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하여 연구물 선정
- 3단계: 연구자료를 읽기 및 분석을 통해 주제 및 개념정리 단계에서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물 읽기
- 4단계: 선정된 연구물 간의 관련성 찾기 단계에서 세월호 대상 연구물의 분석 및 개념

정리 및 구체적 기록하기

5단계: 관련 연구자료들을 비교분석 단계에서 세월호 연구물을 비교·분석·통합하여 주제 도출

6단계: 주제 해석 및 종합하기 단계에서 세월호 연구물의 주제를 해석 및 통합하기

7단계: 종합된 내용 표현 단계에서 세월호 연구 결과 보고하기

연구대상 및 절차

분석대상 연구의 선정 및 과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분석대상을 선정하였고 이는 연구의 질적 메타분석절차의 1, 2단계에 해당된다. 3~7단계는 뒤에 나오는 자료분석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첫째, 설정된 검색조건에 따라 일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DBpia를 이용하여 키워드를 ‘재난’, ‘재난 질적’, ‘재난 세월호’, ‘세월호’, ‘세월호 질적’, ‘세월호 외상’, ‘세월호 트라우마’ 등으로 하여 총 1,174건의 문헌을 수집하였다. 둘째, 검색을 통해 선정된 논문 중 제목에서 ‘세월호’를 검색하여 377건의 문헌을 추출하고 다시 ‘외상’, ‘트라우마’로 검색하여 72건을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중복된 문헌 12건과 애도 관련 2건, 도덕적 손상 관련 1건, 양적 연구 47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KCI에 등재된 학술지 10편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로 한정하였으며, 외상 경험자에는 직·간접경험자를 포함하였다. 최종 선정 기준에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이 기술되어 있고, 일관적이고 확장된 결과 해석이 제시되며, 연구참여자의 진술이 포함되었다(나장함, 2008b; 류진아, 오은경, 2021). 셋째, 최종 10편의 분석물에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질적 내용분석, 탐색적 질적연구, Giorgi의 현상학연구, 사례연구, 근거이론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물의 질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물의 질적 평가를 위하여 KCI에 등재된 연구물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국립 보건 및 임상 우수성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NICE), 2012)가 질적 연구를 위해 개발한 체크리스트인 비판적 평가 기술 프로그램 CASP(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2018)를 사용하였다. CASP에 제시된 10개의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연구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②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한가?, ③연구설계가 연구 목표를 다루는 데 적절한가?, ④연구 목적에 적합한 모집 전략이었나?, ⑤데이터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나?, ⑥연구자와 참가자 간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⑦윤리적 문제들이 고려되었는가?, ⑧데이터 분석은 충분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는가?, ⑨결과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⑩이 연구는 얼마나 가치 있는가?이다. 이런 척도는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 “확인불가”로 표기하며 각 질문 뒤에는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도움말이 제공된다(CASP, 2018). 그리고 각 질문에 답변한 이유를 제공된 공간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개별 연구물의 질 평가를 위해 연구팀에 CASP를 배포하여 체크 하도록 한 뒤 취합하였다. 그 결과 4번 연구물의 6번, 8번 문항에서 “확인불가”로, 9번 문항에선 “아니오”로 나타났고, 8번 연구물에서는 6번, 7번 문항에서 “확인불가”로, 9번 문항에선 “아니오”의 결과로 나타났다. “확인불가”로 나온 결과가 각각의 연구팀원이 체크한 CASP 체크리스트의 도움말 부분과 코멘트에 차이가 있어 서로의 체크리스트를 공유하여 교차분석하였다. 연구팀은 4번과 8번의 “확인불가”로 체크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연구물의 학위 논문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족한 내용은 학위 논문을 참고하기로 하고 “확인불가”로 체크하기로 합의하였다. 4번, 8번 연구물 모두 “아니오”로 표시된 9번 문항은 “결과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에 대

한 평가 문항으로 연구팀원 모두의 의견이 “아니오”로 일치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문제와 연구 결과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모호한 범주 분류로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으로 모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4번, 8번 연구물 모두 학위 논문이 있고 본 연구에서 필요한 외상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충족할 수 있어 두 개의 연구물 모두 배제하지 않았다.

자료분석

질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연구자, 출간 연도, 게재지, 대상, 주제, 연구 방법, 참여 인원, 주요 결과의 자료를 중심으로 385 문장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DSM-5의 PTSD 증세와 외상 후 성장 이론을 근거로 하여 7개의 대범주를 설정하였다. 이 대범주는 ‘외상의 재현’, ‘외상의 회피’, ‘부정적 인지오류’, ‘부정적 정서표출’, ‘과민성과 과도한 행동’, ‘부적응과 신체 반응’, ‘외상 후 적응과 변화’로 분류되었다. 또한,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22개의 하위 범주와 다시 세분된 45개 내용을 도출하여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질적 메타분석은 Nobilt와 Hare(1988)가 제안한 분석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저자가 원자료를 대상으로 연구한 분석 결과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고(나장함, 2008a), 개별 연구물 간 상호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들을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해석적 가능성을 확장(Sandelowski et al., 1997)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질적 메타분석 절차의 3~7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3단계에서는 연구 목표의 진술과 질적 방법론 적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연구(Levitt et al., 2018)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총 10편의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물을 반복적으로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유사 주제와 개념 범주화에 대한 틀을 마련하였다. 4단계에서는 선정된 10편의 연구물을 연구자, 대상, 주제, 연구 방

법, 참여 인원,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코딩하고, 대상 연구물의 비교 및 분석과 개념 정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5단계에서는 비교 및 분석한 개별 연구에서 통합 주제를 도출하고 핵심 개념을 목록화하여 범주화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이때 분석 결과의 충실도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료가 연구문제의 범위에서 적합한지를 고려하고, 원자료에 충실한 범주와 의미 단위를 생성하여 결과의 근거를 높이고자 하였다(Levitt et al., 2018). 6단계에서는 질적 연구의 질문 범위 내에서 분석 대상의 다양성이 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양한 사람들은 현상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허용하며, 연구의 충실도를 향상시킨다(Levitt et al., 2017). 그러나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질성이 나타나므로 하위 범주로 자료를 분류하여 분석하고, 공통 관련 주제 및 개념과 연결되는지를 탐색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나장함, 2008a; Reis et al., 2007). 이러한 과정으로 개별 연구를 해석 및 종합하고 통합하였다. 7단계에서는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종합한 통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 분석에 참여한 연구팀은 4인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전공 교수 1인, 질적 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고 상담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심리 전공 연구자 2인, 질적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상담심리 전공의 박사 1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총 10회의 분석 회의에서 자료 분석의 절차에 따라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교차분석은 자료 분석에 대해 연구자 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원자료를 바탕으로 그 근거를 찾아 합의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연구물들의 상호 비교와 해석, 연구 주제와 개념에 반박하는 논쟁 과정을 통해 연구물을 구분하고 분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명의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통합적으로 이해(순행

미, 2020)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질적 메타분석 연구자가 독립적인 질 평가에 근거하여 일차 연구를 배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Dejean et al., 2013).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개별 연구물들을 해석하고 종합하여 통합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교차분석의 예는 “연구물의 질 평가 과정”에 나타나 있다.

결 과

분석대상 기본정보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 관련한 질적 연구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물은 총 10편으로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연구방

법으로는 현상학 2편, Giorgi의 현상학 2편, 내용분석 2편, 근거이론 2편, 사례연구 1편, 탐색적 연구 1편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참여자의 수는 5명에서 17명으로 다양하였으며, 10편 모두 학술지에 게재되어있다.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연구물 2편은 상담자로, 8편은 자원봉사자로 외상의 간접 경험자에 해당한다. 그 외에는 희생자의 부모, 생존자, 그리고 희생자의 친구들이 외상의 직접경험자로 분류된다. 연구물 9편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희생자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외상의 직접경험자인 희생자 부모로 간주한다. 연구물 1편은 세월호 재난 발생 후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 경험을 상담자의 보고를 통해 연구한 것으로, 희생자의 친구가 겪은 외상 경험으로 직접경험자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의 기본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연구의 기본정보

구분	저자(연도)	대상	주제	연구 방법	참여 인원	결과
1	이동훈 외(2016)	희생자 친구 (상담자 보고)	상담자들이 보고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	현상학	9명	4가지 차원 13개 범주 29개의 의미내용
2	조영매 외(2016)	상담자	상담자의 대리외상과 성장하는 경험에 대한 과정 및 내용을 이해하고 탐색	근거이론	13명	26개 범주 76개 하위범주 267개 개념
3	이동훈 외(2017)	희생 학생 부모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내적 경험 탐색	내용 분석	17명	4개 차원 25개 범주 94개의 의미내용
4	박찬희 외(2017)	희생 학생 부모	세월호 희생 학부모의 심리경험	Giorgi의 현상학	5명	6개 핵심 구성요소 24개 하위구성요소 125개의 의미단위
5	최준섭 외(2018)	희생 학생 부모	희생자 아버지들의 삶의 경험 탐색	탐색적 연구	12명	5개의 본질적 주제 도출 12개의 드러난 주제 35개의 의미단어
6	하민정(2018)	희생자 친구	희생학생 친구들의 부정적 경험과 극복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과정	근거이론	9명	13개의 현상학적 주제 75개의 의미단위 378개의 의미단어
7	한정민 외(2020)	생존자	생존자의 시간 흐름에 따른 외상 후 성장 경험	사례연구	7명	3개의 상위범주 6개의 하위범주 21개의 의미단위
8	차재욱 외(2020)	자원 봉사자	자원봉사자의 간접외상과 이후의 성장과정 분석	현상학	5명	5가지 범주, 16개 상위주제, 71개의 의미주제, 471개의 의미있는 진술
9	유기영 외(2021)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의 6년간의 경험 변화	Giorgi의 현상학	10명	5개의 대주제 24개의 소주제 82개의 구체화 된 의미
10	배귀숙 외(2022)	희생학생부모/ 잠수사/동거자민	희생자녀 부모의 트라우마적 경험 분석,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의 지지	내용분석	10명 (7명 2명 1명)	13개의 상위범주 40개의 하위 범주 164개의 개념

연구물의 범주 분류

본 연구에서는 Noblit와 Hare(1998)의 7단계 질적 메타분석 절차에 따라 연구물을 비교·분석·통합하여 주제를 도출한 결과 외상 경험을 DSM-5의 PTSD 증상을 근거로 '외상의 재현', '외상의 회피', '부정적 인

지오류', '부정적 정서표출', '과민성과 과도행동', '부적응과 신체반응'의 6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에 더해 Tedeschi와 Calhoun(2004)의 외상 후 성장 이론에 근거한 '외상 후 적응과 변화'를 도출하여 총 7개의 대범주로 외상에 대한 경험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개별 연구물 주제분석 결과표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제분석 결과표

대범주	하위범주	내용	연구물
외상의 재현(18)	외상사건 자극의 재경험(10)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외상 사건관련 기억(3)	7,8,9
		외상사건 자극으로 나타나는 환상·환청(3)	2,6,10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반복되는 꿈(4)	1,2,6,8
	잊혀졌던 부정적인 과거의 재생(8)	되살아난 과거 부정적 심리증상(5)	2,6
외상의 회피(30)	외상사건으로 인한 관계, 장소, 소통, 상황의 회피(25)	이전 외상 기억의 소환(3)	2,6
		고립되는 인간관계와 교류의 회피(14)	1,2,3,4,8,9
		외상사건을 모르는 곳으로 떠남(4)	1,2,4,9
		외상사건 관련한 대화 회피(4)	2,5,8,9
	마주하기 힘든 진실(5)	외상사건 관련한 상황 회피(3)	6,7,9
		자녀 상실에 대한 현실 부정(3)	3,4,10
부정적 인지오류(36)	외상사건 후 저하된 인지상태(6)	현실로 마주하지 못하는 외상 사건(2)	3,10
		외상에 의한 기억력, 집중력, 학업능력 저하(6)	1,2,3,9
	외상사건 후 변해버린 신념(12)	가치판단, 실존적 혼란과 종교에 대한 신념의 변화(6)	2,6,8,9
		긍정적 신념이 부정적 신념으로 변화(6)	1,3,5,7,9
	믿어왔던 것에 대한 불신감(14)	사람에 대한 불신감(4)	2,3,6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감(10)	2,4,6,7,8,9,10
부정적 정서표출(136)	강박적 사고 및 행동(4)	반복되는 사고와 행동(4)	3,5,7,8
		자녀의 죽음에 대한 후회와 자책(7)	4,9,10
	미안함과 죄책감(15)	책임이 없음에도 생기는 미안함(8)	1,2,8,9
		자녀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분노(17)	2,3,4,6,9,10
	참을 수 없는 분노(52)	조절되지 않는 내면의 분노(19)	1,2,3,7,8,9
		주변의 비난으로 인해 표출되는 분노(10)	2,3,6,8,9,10
	두려움과 공포가 함께 하는 일상(22)	사람들의 무심한 태도로 인한 분노(6)	2,3,6
		평범했던 일상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함께 하는 삶으로 변화(22)	1,2,6,7,8,9,10
	외상사건이 남겨준 수치심(4)	낙인으로 인한 수치심(1)	7
		자신의 무지와 무능함에 느껴지는 수치심(3)	9,10
과민성과 과도한 행동(39)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삶(27)	의욕 상실과 무기력으로 지속되는 일상(19)	1,2,3,4,5,9
		당연히 느껴야 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일상(8)	3,5,9
	사람들로 인한 상처와 소극적 사회활동(16)	주변인들의 말로 인한 상처와 소원해진 인간관계(9)	1,4,5,6,9,10
		외부활동에 대한 두려움과 위축된 외부활동(7)	1,2,3,5,6,8
	예민하고 과도한 반응(31)	예민함과 긴장감이 유지되는 일상(23)	1,3,6,7,8,9,10
		일반적인 자극에도 신경질적인 반응 표출(8)	2,3,5
	무모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8)	자신을 혹사시키는 행동(5)	1,3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3)	1,3,5
	일상생활 부적응(13)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움(13)	2,4,5,7,8,10
		잠들지 못하는 나날(9)	1,2,3,9,10
외상 후 적응과 변화(77)	외상사건 후 나타난 신체 증상(36)	온몸에서 나타나는 신체기능 저하(19)	1,2,3,8
		질병으로 망가져가는 신체(8)	1,3
	일상생활 적응과 현실 직면(18)	더 나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11)	2,8
		현실을 직면하고 인식하며 적응함(7)	2,4,5,6,7
	현재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17)	가족의 소중함과 원동력이 되는 가족의 지지(15)	2,6,7,9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2)	4,7
	이타적인 삶과 공동체 참여 및 교류(29)	타인을 생각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변화(7)	8,9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연대 및 교류 확대(22)	1,2,5,7,10
	가치관의 변화(13)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으로 변화(13)	3,4,7,9,10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 분석

본 연구에서는 DSM-5의 PTSD 증상과 외상 후 성장 이론을 근거로 대범주 틀을 마련하였으나, 가능한 많은 주관적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하위 범주를 세분화하였다. 개별 질적 연구물에서 나타나는 공통되는 외상 증상을 묶어서 범주화한 결과 외상 경험의 대범주에서는 모든 개별 연구물에서 외상 증상이 나타났다. 하위범주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52)’와 ‘외상사건 후 나타난 신체 증상(36)’, ‘예민하고 과도한 반응(31)’ 등이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이는 외상 전력을 가진 사람이 과거 외상 사건의 괴로운 기억을 재경험하게 되면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Adams et al., 2001; Brady et al., 1999; Pearlman & Maclan, 1995)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7개의 대범주에 따른 경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상의 재현

외상의 재현 단계에서 하위 범주 ‘외상 사건 자극으로 인한 재경험’은 직접경험자와 간접경험자 모두에게 외상과 관련된 기억, 환시, 환청, 꿈 등의 증상으로 나타났다. 하위 범주 ‘잊혀졌던 부정적인 과거의 재생’에서는 2번 연구물의 대상인 상담자가 외상의 간접경험자로서 과거 앓았던 우울증이 재발하거나 과격한 성격이 되살아나는 등 과거의 부정적 정서가 다시 떠오르는 경험을 하였으며, 어린 시절 물에 빠져 죽은 친구의 기억이 떠오르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는 과거 외상 경험이 있는 간접경험자가 외상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이전 외상 경험의 수준에 따라 간접외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손승희, 2014)는 세월호 재난 관련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간접외상에서 과거의 부정적 정서의 재발과 외상 재경험은 이전 외상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외상의 회피

외상 경험자들은 외상 회피의 하위 범주인 ‘외상 사건으로 인한 관계, 장소, 소통, 상황의 회피’에서 관계 맺기를 피하고 이사를 하거나, 다니던 교회나 성당을 떠나는 등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장소나 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소통에서도 외상과 관련된 대화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직접경험자에게만 나타난 ‘외상 사건 관련 상황 회피’는 다른 지역의 붕괴 사고를 듣고 야구 관람을 포기하거나 힘든 상황의 방송을 외면하는 등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범주 ‘마주하기 힘든 진실’은 직접경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외상 경험으로, 이들은 자녀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의 모습을 보였다.

부정적 인지오류

외상의 직접 및 간접경험자 모두에게 나타난 하위범주 ‘외상 사건 후 저하된 인지상태’는 외상 경험자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상 사건 후 변해버린 신념’에서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가치판단과 삶에서의 실존적 혼란과 종교에 대한 원망이나 회의감을 느끼는 신념의 변화를 나타냈다. 직접경험자에게만 나타난 ‘긍정적 신념이 부정적 신념으로 변화’는 세상을 염세적, 비관적으로 보거나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사치라고 생각하는 등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외상 경험자 모두에게 나타난 ‘믿어왔던 것에 대한 불신감’에서는 자기 익숙만을 채기는 사람과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한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이 나타났다. 특히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감’은 직접 및 간접경험자 모두에게 무책임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 불신감을 갖게 하였다. 하위범주 ‘강박적 사고 및 행동’은 유가족이라서 웃으면 안 된다거나, 유가족을 보는 시선 때문에 더욱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과도하게 몰두하는 행동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표출

부정적 정서표출은 모든 개별 연구물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외상의 직접경험자에게만 나타난 ‘자녀의 죽음에 대한 후회와 자책’은 자녀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고, 살아생전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반면 ‘책임이 없음에도 생기는 미안함’은 직접 및 간접경험자 모두에게 나타난 경험으로 간접경험자는 유가족을 보며 느끼는 죄스러움과 미안함이 주된 모습이었다. 하위범주 ‘참을 수 없는 분노’는 부정적 정서 표출에서뿐만 아니라 외상 경험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분노 중 ‘조절되지 않는 내면의 분노’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높은 빈도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주변의 상처 되는 말과 모욕적인 말로 인한 분노와 사람들의 무심한 태도에 대한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 ‘두려움과 공포가 함께 하는 일상’은 평범했던 일상생활에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경험으로 직접 및 간접경험자 모두에게 나타났다. ‘외상사건이 남겨준 수치심’은 외상의 직접경험자에게만 나타난 경험으로, 비정상적인 낙인찍힘으로 인한 수치심과 유가족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으로 느끼는 수치심 경험으로 나타났다. 직접 및 간접경험자의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삶’은 의욕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거나 기본적으로 느껴야 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로 인해 나타난 ‘사람들로 인한 상처와 소극적 사회활동’은 일상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나타난 ‘고립되는 인간관계와 교류의 회피’와는 구별된다.

과민성과 과도한 행동

직접 및 간접경험자에게 나타난 ‘예민하고 과도한 반응’은 사소한 일에도 불안을 느끼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긴장감이 유지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자극에도 신경질적인 반응 표출’은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 내고,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외상의 직접경험자에게만 나타난 ‘무모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자기 처벌적 위험 행동이나 게임중독, 흡연문제, 비행문제와 자살 시도 등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부적응과 신체반응

‘일상생활 부적응’은 직접 및 간접경험자 모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생활이 무질서해지고, 직장을 나오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직접경험자에게만 나타난 ‘질병으로 망가져 가는 신체’에서는 외상 사건 후 소화기 계통 질환, 허리 디스크, 부인과 질환 등의 질병을 앓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신체 반응은 직접 및 간접경험자에게 모두 나타났으나, 외상 사건 후 심각한 질병은 직접경험자들에게만 나타나 경과가 좋지 않거나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한편 간접경험자들이 외상사건 후 나타난 신체 증상은 직접경험자에 비해 그 증세가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적응과 변화

직접 및 간접경험자가 모두 경험한 ‘가족의 소중함과 원동력이 되는 가족의 지지’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 안에서 사랑과 지지받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타적인 삶과 공동체 참여 및 교류’는 이타적인 태도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직접경험자에서만 나타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은 아이의 죽음을 수용하면서 주변에서 도와주었던 도움에 대한 감사함과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가치관의 변화’는 삶에 대한 의미 부여와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간접경험자에게만 나타난 ‘더 나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과 이전보다 더 성장된 모습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세월호 재난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직접 및 간접경험자의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외상 경험이 직접경험자와 간접경험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여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외상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CI에 등재된 학술지를 기본으로 세월호 외상 관련 개별 질적 연구물 10편을 준거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개별 질적 연구들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을 분석한 결과 진술문 385개에서 45개의 유사한 내용과 22개의 하위범주 7개의 대범주를 분류하였다.

대범주는 DSM-5의 PTSD 증상인 침습, 회피, 부정적 인지 및 정서, 각성과 반응성, 외상 후 성장 이론을 근거로 '외상의 재현', '외상의 회피', '부정적 인지오류', '부정적 정서표출', '과민성과 과도한 행동', '부적응과 신체반응', '외상 후 적응과 변화'의 7가지 대범주로 분류하였다. 하위범주는 개별 연구물의 외상 경험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세분화하여 명시하였고, 하위범주별로 공통된 외상 경험의 내용을 묶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세월호 재난을 경험한 직접 및 간접경험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로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에 대한 직접 및 간접경험자가 겪는 외상 증상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접외상과 마찬가지로 간접외상은 개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극으로 PTSD 증상과 유사한 이차 스트레스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손승희, 2014)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외상사건은 직접경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일어난 외상사건을 목격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외상사건

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이(권석만, 2013; APA, 2013) 확인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상의 직접경험자뿐 아니라 간접경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PTSD관련 지원이 직접경험자 뿐 아니라 간접경험자에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직접 및 간접경험자의 공통적인 경험으로 부정적 정서인 '분노'경험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나타난 간접외상의 분노는 짜증과 같은 각성된 정서로 주로 PTSD 증세와 유사하였다(Lerias & Byrne, 2003). 즉 사회재난과 같은 외상 사건에서 직접 및 간접경험자는 PTSD의 부정적 정서인 분노 감정을 가장 많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노는 '진상규명'과 관련한 책임 있는 대상에 대한 분노로 사회재난에서 느끼는 정서인 '도덕 감정'(허연주, 2016)과 관련된 분노이다. 도덕 감정은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의 승인과 불승인의 감정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며, 정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인간의 도덕 감정에서 구하고 있다고 주장(양선이, 2014)한다. 다시 말해, 도덕 감정과 관련된 '도덕적 분노'란 자신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사건이나 그에 관련된 인물의 행동이 도의에 벗어나 있다고 지각하면 일어나게 되는 분노를 말한다(Batson et al, 2009; Darley & Pittman, 2003). 이러한 분노는 용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정서(Gelfand et al., 2010)이고, 용서에 관한 경험 연구에서 용서가 분노, 슬픔,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줄여주는데 기여함을 확인해준다(김광수, 2002; 박종호, 2003; Freedman & Enright, 1996; Colye & Enright, 1997). 따라서 사회재난에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상규명'에 대한 분노에 찬 목소리는 외상 사건 경험 후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분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용서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로 심리적 충격 요인에 따라 직접 및 간접경험자의 외상

경험은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상 사건 후 저하된 인지상태’, ‘강박적 사고 및 행동’, ‘외상사건 후 나타난 신체 증상’, ‘일상생활 적응과 현실 직면’의 경험은 직접 및 간접경험자 모두에게 나타났으나 직접경험자의 증세에 대한 빈도가 간접경험자보다 높게 나왔다. 직접경험자에만 나타난 경험은 ‘마주하기 힘든 진실’, ‘외상 사건 상황의 회피’, ‘외상 사건이 남겨준 수치심’, ‘자녀의 죽음에 대한 자책’, ‘당연히 느껴야 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일상’, ‘긍정적 신념이 부정적 신념으로 변화’, ‘주변인들의 말로 인한 상처와 소원해진 인간관계’, ‘무모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 ‘질병으로 망가져 가는 신체’, ‘가치관의 변화’로 직접경험자가 겪는 외상 증세가 간접경험자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처럼 외상사건에 대해 겪는 경험과 빈도의 차이는 외상 증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적 충격 요인에 대한 결과도 상이하였는데 직접경험자들은 신체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때 심리적으로 탈출하는 반응(Gershuny et al., 2003), 즉 해리반응이 나타났다. 또 다른 결과로, 직접경험자들은 외상 사건 후 세상이 선하고 우호적이며 의미 있는 곳이라는 신념과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세상을 위협하고 자신은 통제력을 상실한 무능력한 존재로(Janoff-Bulman, 2010) 인식하게 되었다. 외상 사건은 개인이 느낀 수치심, 죄책감, 둔감화, 두려움, 분노, 역겨움 등의 부정적 반응(주혜선, 안현의, 2008)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작은 스트레스에서도 큰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억압되고, 스스로를 진정 시키기 힘들며, 자해, 약물 남용, 섭식장애 등의 극단적 자기 파괴적 행동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Luxenberg et al., 2001)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사건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신체 건강, 외견, 직업, 경제적 상황 등 삶의 많은 영역에 부정적으로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음(Ehler & Clark, 2000)을 보여준다. 이는 외상 사건의 즉각적인 감정 반응인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경험자의 외상 증세가 치료되지 않으면 향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증상이 심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상의 직접경험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삶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은 죽음 직전에 이르는 것과 같은 개인의 존재를 위협하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이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삶, 인생, 죽음이라는 실존적·영적 물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Yalom & Lieberman, 1991), 외상을 겪으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유희정, 2012). 이러한 결과는 Tedeschi와 Calhoun(2004)이 설명한 외상 후 성장의 주요 개념인 ‘인생관의 변화’와 부합하며, 외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가치와 순서가 변화하고 실존적 문제에 대한 통찰과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경험자와는 달리 간접경험자에게만 나타난 ‘더 나은 일상 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은 Tedeschi와 Calhoun(1996)이 설명한 외상 후 성장의 주요 개념인 ‘자기 자각의 변화’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는 외상사건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성장과 자신감, 통제력을 획득한 것이다. 간접경험자가 직접경험자에 비해 빠르게 일상생활 리듬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적극성을 보이는 경험은, 간접외상이 직접외상에 비해 증상의 정도도 가볍고(Brady et al., 1999; Lerias & Byrne, 2003; Lugris, 2000) 증상이 유지되는 기간도 직접외상에 비해 짧아(Figley, 1995; Griffin et al., 1997; Marmar et al., 1996; Lerias & Byrne, 2003; Steed & Downing, 1998) 일상생활의 적응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 친구, 지역 사회의 지지 정

도와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따라 외상 후 적응과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외상 경험' 요인이 외상 증세가 가벼운 간접외상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치유되었던 부정적 정서가 재발하고, 이전 외상 사건의 기억을 다시 겪는 고통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특히, 간접외상을 경험한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치료받은 우울증이 재발하거나, 어린 시절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등의 재경험 반응을 보고했다. 이는 외상의 직접경험자는 외상사건으로 인해 외상의 재현 경험이 나타나지만, 간접경험자는 '이전 외상 경험' 요인에 영향을 받아 이전의 부정적 정서 재발과 과거 외상사건의 재현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치료적인 접근에서는 과거에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후에 외상 사건을 겪으면 PTSD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간접경험자의 이전 외상 경험에 대한 사전 조사뿐만 아니라, 외상의 직접 경험자들이 현재 외상 경험 이후 또 다른 외상을 겪었을 때 현재의 외상이 다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각한 상태를 경험한 외상 경험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직접 및 간접경험자 각각에 나타난 외상 경험은 외상 사건이 일어난 후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까지의 경험으로, 6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외상 증세가 나타났다. 이는 외상 후유증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상 사건 이후에는 직접 및 간접경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외상의 직접 및 간접경험자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심리 치료적 접근에서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직접 및 간접경험자 모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 친구, 지역 사회의 지지 정도와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외상 후 적응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상

담적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 외상 경험에 관한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세월호 재난 외상에 대한 충격은 직접경험자뿐만 아니라 간접경험자에게도 유사한 외상 증세로 나타났다. 이는 세월호 재난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외상 충격은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그를 전문적으로 돕는 사람들에게까지 PTSD 증세를 유발하고 그 증상을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이해와 돌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사회재난으로 인한 분노가 도덕적 분노에서 유발된 것이며 이 분노는 용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재난 외상 경험자들의 분노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상규명을 통한 사회재난 외상 경험자들의 분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이전에 극복하지 못한 외상 경험이나 심리 정서적 질환이 있었던 사람이 간접적으로 외상에 노출될 때 과거 부정적 정서가 재발 되거나 과거 고통스러운 외상 기억이 소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월호 재난과 같은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외상과 관련한 일을 할 때 사전에 외상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상 사건의 간접경험자에 대한 외상 관련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간접외상 노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 노출로 인한 간접외상 관련 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 미디어 노출로 인한 간접외상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디어 노출로 인한 간접외상은 DSM-5의 장애 진단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향후 미디어에 의한 간접 외상 경험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 외상 경험을 연구한 연구물에서 여전히 트라우마 증세를 겪는 경험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 사건이 일어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다고 생각한다(Brewin et al., 2000). 하지만 트라우마는 익명의 대중이 봄비는 전철이나 공공장소보다 가정에서 더 자주 발생하고 오래 지속된다(Van der Kolk, 2014).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시절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일원이 경험한 사건을 통해 가족들이 경험하는 간접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건'만을 중심으로 10편의 연구물을 선정하여 사회재난으로 인한 외상 경험만을 연구하여 전체 재난으로 인한 외상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재난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을 모아 비교 분석하면 재난 외상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월호 재난 간접외상에 관한 연구는 일반인까지 포함하여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구별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질적 연구의 질 평가를 거친 선정 과정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간접외상 경험 연구가 한 편만 선정되었다. 자원봉사자는 외상 관련 직업군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1개의 연구물만이 선정되어 일반인 대상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상 관련 직업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의 질적 연구를 채택하여 간접외상에 대한 경험이 외상 관련 직업종사자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

는지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2016~2022년 동안의 연구물을 선정하여 기간에 대한 편차가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시간 변화에 따른 외상 경험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고려하여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국립 보건 및 임상 우수성 연구소(NICE). (2012). **비판적 평가 기술 프로그램**. <https://www.nice.org.uk/search?q=CASP>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2판)**. 서울: 학지사.
- 김광수 (2002). 용서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상처 경험자의 자존감, 불안, 분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0(1), 165-191.
- 김지은 (2013). **간접외상 기억 심상과 반추 수준에 따른 외상 후 분노 수준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장함 (2008a). 질적 메타분석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연구**, 26(4), 229-252.
- 나장함 (2008b). 장애인의 직업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의 적용과 이슈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18(2), 135-158.
- 류진아, 오은경 (2021).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질적탐구**, 7(1), 35-69.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1.
- 박지영 (2008).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관련 요인 연구-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141-164.
- 박찬희, 여한구 (2017). 세월호 희생 학부모의 심리 경험. **목회와 상담**, 28, 124-148.

- 배귀숙, 임혜영 (2022). 세월호 참사 희생 자녀를 둔 부모 경험에 관한 연구: 트라우마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6(1), 153-187.
- 손승희 (2014).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 외상 및 관련 요인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269-294.
- 손행미 (2020). 질적 메타합성에 대한 문헌고찰. **대한질적연구학회지**, 5(2), 109-118.
- 신나라 (2015). 세월호 사건으로 간접외상을 경험한 공동체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3, 131-153.
- 안산온마음센터 (2022). 일반자료실: 2022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이용 현황 분석연구. 에서 검색함. <http://www.ansantrauma.net/archive/egovArchiveForm01.do?boardSeq=177>. ★안산온마음센터-2022년 세월호 피해자 의료기관 이용현황 분석 연구보고서(최종).pdf.
- 양선이 (2014). 도덕감정에 관한 문화철학적 고찰. **인간·환경·미래**, 13(2014), 31-59.
- 유기영, 정주리 (2021). 세월호 참사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월호 유가족으로 살아가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351-1347.
- 유희정 (201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은현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일 도시 지역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학 조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0(4), 581-591.
- 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6).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자의 보고(report)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89-120.
- 이동훈, 이춘화, 신지영, 강민수, 전지열, 이화정, 김미정 (2017).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내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심리, 정서, 신체, 인지, 행동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255-291.
- 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11-430.
- 정의문 (2015). 세월호 사건 매체 노출이 대학생들에게 미친 간접외상에 대한 연구: 외상 관련 부정적 신념과 회복 탄력성을 조절변인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매, 반신환 (2016). 상담자의 대리 외상 후 성장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생명연구**, 42, 171-224.
- 주혜선, 안현의 (2008).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235-257.
- 차재욱, 정석환 (2020). 세월호 광장 자원봉사자의 간접외상 후 성장 체험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1), 219-249.
- 최준섭, 이동훈 (2018). 자녀를 잃은 아버지들의 삶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세월호 재난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6(3), 1-29.
- 쿠키뉴스 (2014). “이러다가 계속...” 세월호 자원봉사자 자살 소식에 인터넷 침통. 2014. 05. 12. <http://www.kukinews.com/newsView>.
- 하민정 (2018). 세월호 희생 학생 친구들의 살아남은 자료서의 슬픔과 고통의 승화에 대한 현상학적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3), 5-31.
- 한국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2022**. 서울: 행정안전부.
-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2017). **재난대응 위기상담**. 학지사.
- 한정민, 장정은, 전종설 (2020).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보건사회연구**, 40(2), 9-59.

- 허연주 (2016).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dams, K. B., Matto, H., & Harrington, D. (2001). The Traumatic Stress Institute Belief Scale as a Measure of Vicarious Trauma in a National Sample of Clinical Social Workers. *Families in Society*, 82, 363-37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 DSM-IV**. (이근후 역). 하나의학사. (원전은 1995에 출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I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Ed.),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ird, S., & Jenkins, S. R. (2003). Vicarious Traumatizat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in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Agency Staff. *Violence and Victims*, 18(1), 71 - 86.
- Batson, C. D., Chao, M. C., & Givens, J. M. (2009). Pursuing Moral Outrage: Anger at Tort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155-160.
- Brady, J. L., Guy, J. D., Poelstra, P. L., & Brokaw, B. F. (1999). Vicarious Traumatization, Spirituality, and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 Survivors: A National Survey of Women Psycho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0(4), 386-393.
- Brewin, C. R., Andrews, B., & Valentine, J. D. (2000). "Meta-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auma-exposed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5), 748-766.
- CASP (2018). **비판적 평가 기술 프로그램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https://casp-uk.net/casp-tools-checklists/qualitative-studies-checklist/>.
- Coyle, C. T., & Enright, R. D. (1997).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abortion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6), 1042-1046.
- Cunningham, M. (1996). Impact of Trauma Work on Social Work Clinicians: Empirical Findings. *Social Work*, 48, 451-459.
- Darley, J. M., & Pittman, T. S. (2003). The Psychology of Compensatory and Retributive Just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 324-336.
- Dejean, D., Giacomini, M., Vanstone, M., & Brundisini, F. (2013). Patient Experiences of Depression and Anxiety with Chronic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Qualitative Meta-Synthesis. *Ontario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eries*, 13(16), 1.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Figley, C. R. (Ed.). (1995).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Brunner/Mazel.
- Freedman, S. R., & Enright, R. D. (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5), 983.

- Gelfand, M. J., Fehr, R., & Nag, M. (2010). The Road to Forgiveness: A Meta-Analytic Synthesis of Its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Correlates. *Psychological Bulletin*, 136(5), 894 - 914.
- Gershuny, B. S., Cloitre, M., & Otto, M. W. (2003). Peritraumatic Dissociation and PTSD Severity: Do Event-related Fears About Death and Control Mediate Their Rel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2), 157-166.
- Griffin, M., Resick, P., & Mechanic, M. (1997). Objective Assessment of Peri-traumatic Dissociation: Psychophysiological Indicato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1081 - 1088.
- Janoff-Bulman, R. (2010). *Shattered Assumptions*. Simon and Schuster.
- Jenkins, S. R., & Baird, S. (2002).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vicarious trauma: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5), 423 - 432.
- Kassam-Adams, N. (1995). The Risks of Treating Sexual Trauma: Stress and Secondary Trauma in Psychotherapists. In B. H. Stamm (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Self-care Issues for Clinicians, Researchers, and Educators* (pp. 37 - 48). The Sidran Press.
- Lerias, D., & Byrne, M. K. (2003). Vicarious Traumatization: Symptoms and Predictors.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vestigation of Stress*, 19(3), 129-138.
- Levitt, H. M., Creswell, J. W., Josselson, R., Bamberg, M., Frost, D. M., & Suárez-Orozco, C. (2018). Journal Article Reporting Standards for Qualitative Primary, Qualitative Meta-Analytic, and Mixed Methods Research in Psychology: The APA Publications and Communications Board Task Force Report. *American Psychologist*, 73, 26-46.
- Levitt, H. M., Motulsky, S. L., Wertz, F. J., Morrow, S. L., & Ponterotto, J. G. (2017). Recommendations for Designing and Reviewing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Promoting Methodological Integrity. *Qualitative Psychology*, 4(1), 2.
- Lind, E. W. (2000). *Secondary Traumatic Stress: Predictors in Psychologists*. Doctoral Dissertation Seattle Pacific University.
- Lugris, V. M. (2000). *Vicarious Traumatization in Therapists: Contributing Factors, PTSD Symptomatology, and Cognitive Distor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A.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21(25), 373-392.
- Marmar, C. R., Weiss, D. S., Metzler, T. J., & Delucchi, K. (1996).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Services Personnel Related to Peritraumatic Dissociation During Critical Incident Exposur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Suppl), 94-102.
- MBN (2014). “세월호 생존학생 자살기도, 자살 시도 전 남긴 글 보니... 안타까워”. 2014. 12. 23. <https://www.mbn.co.kr/news/society/2137264>.
- Motta, R., Joseph, J., Rose, R., Suozzi, J., & Leiderman, L. (1997). Secondary Trauma:

- Assessing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ar Experiences with a Modified Strop Procedu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 895-903.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2012). Guideline on the Management of PTSD. <http://www.nice.org.uk/guidelines/ptsd>.
- Noblit, G. W., & Hare, R. D. (1988).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Vol. 11)*. Sage.
- Pearlman, L. A., & Maclan, P. S. (1995). Vicarious Traumatization: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Trauma Work on Trauma 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6), 558-565.
- Reis, S., Hermoni, D., Van-Raalte, R., Dahan, R., & Borkan, J. M. (2007). Aggregation of Qualitative Studies-From Theory to Practice: Patient Priorities and Family Medicine/General Practice Evaluation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65(2), 214-222.
- Sandelowski, M., Docherty, S., & Emden, C. (1997). Qualitative Meta- synthesis: Issue and Techniqu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0(4), 365-371.
- Sexton, L. (1999). Vicarious Traumatization of Counselors and Effects on Their Workplac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7, 393-403.
- Steed, L., & Downing, R. (1998). A Phenomenological Study of Vicarious Traumatization Amongst Psychologists and Professional Counsellors Working in the Field of Sexual Abuse/Assault. *Australasian Journal of Disaster and Trauma Studies*, 2(2), 1 - 8.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Van der Kolk, B. A. (2014). *The Body Keeps the Score: Brain, Mind, and Body in the Healing of Trauma*. Penguin Books
- Yalom, I. D., & Lieberman, M. A. (1991). Bereavement and Heightened Existential Awareness. *Psychiatry*, 54(4), 334-345.

원 고 접 수 일 : 2024년 09월 13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4년 10월 02일

게 재 확 정 일 : 2024년 10월 11일

Qualitative Meta-Analysis of Ferry Sewol Disaster Trauma Experience

Han, Mi-Young

Cheon, Seong-Mo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pecific and subjective experiences of both direct and indirect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Ten qualitative studies on Sewol trauma were selected for this qualitative meta-analysi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rauma symptoms of both direct and indirect victims were found to be similar. Second, the factors influencing trauma in direct and indirect victims differed, leading to varying levels and experiences of trauma. Third, anger was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emotion among both groups. Fourth, indirect victims tended to regain their daily rhythms and confidence more quickly than direct victims, demonstrating greater proactivity.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 : Sewol ferry, Disaster, Trauma, Qualitative meta-analysis.

「부부가족상담연구」 발간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부가족상담연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부부가족상담연구(Korean Journal of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라 한다.

제3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발간 시기: 5월 30일, 10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투고자격) 본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 준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학술지의 게재 원고 작성 양식에 부합 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투고자의 연구윤리)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1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로 3월과 8월에 개최한다.

제14조(심사위원단 구성)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박사 및 대학교수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 또는 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제16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송부한다.

제 17조(심사기준)

-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소정 양식(논문심사의견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②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아래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1.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완벽히 이행한 논문
 2. 수정후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투고규정의 이행이 부족한 논문
 3.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논문 내용에 쟁점이 있는 논문. 수정 후 심사절차를 다시 거친다.
 4. 게재 불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 ③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가를 얻은 후 학술지에 수록된다.

제18조(심사 방법 및 절차)

- ① (접수) 저자는 논문원고 파일을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투고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대장에 투고논문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② (심사)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 ③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논문심사 의견서에 '게재가/수정후 게재가/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 사항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④ (게재 여부 최종 판정)
 1. '수정후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2. '수정후 재심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친다. 저자와 심사위원 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여 판정한다. 단, 충분한 수정기간을 두기 위하여 최소 2개월 이후 수정논문을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3.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본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없다.

4. 게재 여부 판정에 대한 상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5.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6.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수정후 게재가'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 중 '게재불가'를 포함하는 논문에 한해, 재심사에서 두 번 연속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총 3회의 '게재불가'를 받은)에 대해서는 이미 두 편의 '게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중단하고 최종판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 (논문의 수정)

1. 저자는 논문심사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논문과 논문수정답변서를 편집 위원에게 송부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수정/보완된 논문의 수정내용 확인을 의뢰하며 재심사의견서와 수정/보완된 논문 1부, 저자의 논문수정답변서를 송부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되면 재심사의견서에 '게재가/게재불가' 여부를 적어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4.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1차심사 / 2차심사(재심사) / 3차심사(재심사, 최종). 3차 심

- 사에서도 '게재가'로 판정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⑥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통보서, 논문작성요령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 ⑦ 예고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독촉서를 심사위원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
 - ⑧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9조(심사결과와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0조(게재예정증명서)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제2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근거)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정관 제1장 4조와 제6장 31조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촉)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 하에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선정)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학술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

제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편집회의

제7조(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임 시에 부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성립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위원 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위임 시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된 의결권은 회의 의장이 가진다.
3. 전자 통신이나 전송으로 1항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9조(심사 기준)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타당성
2. 연구 필요 및 목적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내용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투고규정 준수정도
7. 논문체제의 적합성

제10조(심사위원의 위촉) 편집 위원회에서는 게재 희망 논문의 성격과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방법 및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논문의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종합 판정을 내린다.
3. 심사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붙임 표 1>의 원칙에 의거한다.
4.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내용에 관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게재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5.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는 <붙임 표2>의 원칙에 의거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사후검수를 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투고 및 게재

제12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본 협회 준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투고원고의 종류) 투고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

제14조(학위논문투고) 학위논문 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예시) 연구는 저자명(연도)의 OO대학교 석(박)사학위논문 '제목'을(를) 요약(or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3.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투고 금지) 본 협회에 논문을 공식 투고하여 심사과정 중에 있거나, 심사완료되어 논문이 정식게재된 경우, 동일 논문 또는 내용상 상당한 중첩이 있는 유사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해서는 안된다. 단, 정식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투고/게재 철회요청서를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다른 학술지에 투고/게재할 수 있다.

제16조(게재제한) 한 호에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허용하나, 게재되는 논문 2편 중 한 편에서 반드시 주저자여야 한다.

제17조(원고의 사용언어) 모든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원고의 경우 영어도 가능하다.

제18조(원고작성 및 제출) 원고는 반드시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고는 게재신청서,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19조(학술지 발간 및 접수) 학술지는 5월(1호)과 10월(2호) 연 2회 발간하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또한 원고가 본 협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자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발송된 원고가 기한 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접수를 무효로 한다.

제20조(원고의 내용) 제출된 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인용이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21조(저작권)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원고를 제출하는 것은 본 학술지에 논문의 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명시하지 않아도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과 전송권을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시키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23조(별쇄본) 논문의 별쇄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24조(접수거부) 본 규정이나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심사 판정 체제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 결과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붙임2>

「부부가족상담연구」 투고자 이의 신청 처리 체제	
이의 신청 범위 및 방법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청 1차 처리 방법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 수정 실시.
이의 신청 최종 처리 방법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 이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 교체 후 재심사 의뢰.

「부부가족상담연구」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

1.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및 사례연구이다. 상세한 것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홈페이지의 학술지 투고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본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수시로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편집위원회로 논문원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논문 작성은 HWP(한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논문 작성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사항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홈페이지의 학술지 투고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 ① 원고 제출 시 1단. 게재확정 후 제목 및 초록은 1단 편집, 본문은 2단 편집으로 제출
 - ② 편집용지: A4규격(210 × 297 mm) 세로용지
 - ③ 용지 여백 : 위쪽 35 mm, 아래쪽 35 mm, 좌측 30 mm, 우측 30 mm,
머리말 12 mm, 꼬리말 13 mm
용지 방향: 세로
 - ④ 문단모양: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8,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⑤ 마침표 다음: 한 칸 띄울 것(두 칸이 아님)
 - ⑥ 논문 제목: 신명조 2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40
 - ⑦ 저자: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20
 - ⑧ 소속: 신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10
 - ⑨ 국문초록 본문: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우지 않고 시작,
여백(왼쪽 30, 오른쪽 30), 단어수 120-150
 - ⑩ 주요어: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 ⑪ 본문: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8
 - ⑫ 본문제목 1단계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부록'):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본문제목 2단계 : 중고딕 11호, 진하게, 양쪽 정렬
본문제목 3단계 : 신명조 10호, 양쪽 정렬, 들여쓰기 8
 - ⑬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내어쓰기 30
 - ⑭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5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40
 - ⑮ 영문초록 저자: 신명조 10호, 가운데 정렬, 문단위 20
 - ⑯ 영문초록 소속: 신명조 9호, 가운데 정렬, 문단위 10
 - ⑰ 영문초록 본문: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우지 않고 시작,
여백(왼쪽 30, 오른쪽 30), 단어수 120-150
 - ⑱ 영문초록 key word: 중고딕 9호, 기울기, 보통모양, 양쪽 정렬, 문단위 15

⑰ 각주, 저자 주, 표 및 그림의 주: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주(중고딕 9호)라고 시작하고, 붙여서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어서 내용은 신명조로 작성

⑱ 표제목, 그림제목: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진하게

표 작성의 줄긋기: 표에 사용되는 줄은 명확성을 높여 줄 경우에만 사용하며 세로줄은 사용하지 말고 가로줄만 사용, 표의 맨 위와 아래 가로선은 굵은 선(0.25mm)으로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0.12 mm)을 사용

4. 논문의 모든 내용, 특히 인용문, 그림, 표 등은 반드시 저작권법 및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제정한 연구 진실성심사운영세칙에 위배되지 않게 기술해야 한다.
5. 논문제출 시에 게재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 및 저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논문의 모든 페이지는 1부터 연속적 숫자가 부여되도록 한다. 저자명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 한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학위논문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신청서 및 논문제목 각주).
 -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상담관련등재학술지: 상담관련 논문 3편 이상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한다.
7. 투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별도의 양식으로 논문에 표시할 수 있다.
8. 제출된 논문은 학술지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기로 한 논문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제출 논문의 분량은 A4 용지 20매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경험적 연구논문의 형식은 서론(제목 없이), 방법, 결과, 논의 그리고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서론 앞부분에 제시하고, 다른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11.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한다. 동일 저자에 의한 일련의 연구인 경우에 한해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논문전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모든 연구논문은 120-150단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은 APA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하고, 국문 및 영문 초록의 하단에 주요어 5개 이내로 표기한다.
13. 그림(figure와 graph)은 동판을 뜰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거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graph의 경우 좌표 값의 명기) 제시한다. 표(table)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써넣는다.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예: 그

림 1에서..., 표 1에서...).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는다.

14. 문헌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어 쓰고, 줄간격은 150으로 한다.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조성봉(2018)은

(예 2) 오제은(2016: 15)은..., (2016년도 문헌의 페이지 15)

다.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1)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제은, 2016: 18).

(예 2) 한 연구(오제은, 2009; Harville Hendrix, 2004; Rick Brown, 2009)에 의하면...

라. 저자가 1~2인인 경우

괄호 안에 제시 ... (윤선자, 윤정화, 2017), (Harville & Helen, 2020)

본문 속에 참조 ... 윤선자와 윤정화(2017)는... , Harville과 Helen(2020)은...

마.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괄호 안에 제시 ... (김혜진 외, 2017), (Harville et al., 2020)

본문 속에 참조 ... 김혜진 등(2017)은..., Harville 등(2020)은...

15. 참고문헌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2)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대체로 APA(7th) 양식을 따른다.

- 단행본의 경우 책 이름은 이탤릭체로 한다.

이지영 (2015). **영화로 배우는 심리학개론**.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학술지 명과 권수를 진하게 한다.

오제은 (2009).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수준과 부부관계 적응. **상담학연구**, 10(2), 1217-1228.

-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제목을 진하게 한다.

오소정 (2016). **충년기 위기부부를 위한 이마고 커플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편저 속의 논문의 경우(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논문 제목을 진하게 한다.
김이해 (2008). **현대 한국가족 문화와 부부 및 가족상담**. 김유리(편), 111-121.
-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의 경우 학술발표호 자료집 명을 진하게 한다.
오제는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와 세계적 동향.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214-229). 한국심리학회.
- 보고서 및 정부 간행물의 경우 보고서 명을 이탤릭체로 한다.
개인저자 또는 기관/조직명. (연도 또는 날짜). 보고서명 (식별 가능한 보고서 번호) [자료 형태 -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소책자, 팸플릿 등]. 발행기관 또는 상위 기관/조직명(저자명 항목과 동일한 경우 생략) 또는 사이트명. URL
정부 책임 사무소. (2019). **성과 및 책임 보고서: 2019 회계 연도** (제1023-30호). 한국정책연구소
<https://www.gao.gov/assets/710>
- 신문기사의 경우 신문사명을 이탤릭체로 한다.
곽아람. (2021. 10. 2.). 책 빨리 읽는 법 [편집자 레터]. **조선일보**, A19.
- 전자 매체, URL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 ① 인터넷에서 정보를 인출한 경우 제목을 진하게 한다. 자료 원천의 이름과(혹은) 날짜 연월일을 적고 URL을 기입한다.
toktok. (2021. 11. 29.). **NFT 는 무엇입니까? 알아야 할 모든 것**. Retrieved from
<https://www.saemangeum.go.kr/sda/content.do?key=2010214577285>
- ② 인터넷의 비정기간행물 문서의 경우 제목을 이탤릭체로 한다. 날짜가 명기되지 않고 일반 기관에서 게시한 인터넷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 문서가 들어간 홈페이지(혹은 첫 화면)로 연결될 수 있는 URL을 적어주고 작성 일자가 없음을 “작성일 불명”(영어는 no date를 나타내는 축약어 n.d.로 표기)이라고 명시한다. 문서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저작자명으로 간주하여 제시한다.
Worldometer. (n.d.) *Current world population*. Retrieved June 10, 2020 from
<http://www.worldometers.info/world-population/>
- ③ ebook 또는 온라인상에서 본 책의 인용에는 제목을 이탤릭체로 한다. DOI를 포함하며, DOI가 없는 경우 ebook을 구매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URL을 표시한다.
김영하 (2010).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문학동네.
<http://www.yes24.com/product/Goods/4135522>
- ④ 보도자료의 경우 제목을 진하게 한다.
한국건강증진재단 (2024. 05. 30).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 [보도자료].
<https://www.khep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1&linkId=501689&menuId=MENU00907&schType=1&schText=%EB%B9%A8%EA%B0%84&searchTyp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contents1=>

⑤ 데이터 세트(Date set)의 경우 데이터명(제목)을 진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결과표** [데이터 세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libportal/mainStats/getMainStatsList.do>

⑥ 기타(온라인 포럼, 토론 및 온라인 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 등)의 경우 발행처를 이탤릭체로 한다.

김은경 (2024. 11. 03.). 작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33만7천여건...역대 최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1129700530?input=1195m>

3)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사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McMillan, J. H. (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2nd Ed.). Allyn and Bacon.

② 편집된 책의 경우 아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한다.

Wells, A. S. (1996). African-American students' view of school choice. In Fuller, B., Elmore, R., & Orfield, G.(Eds.). *Who chooses? Who loses?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unequal effects of school choice*. Teachers College Press.

단,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하여 펴낸 책에서 한 논문을 참고하였을 때는 해당 논문의 쪽수도 함께 표기한다.

③ 번역서 혹은 편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괄호안에 제시하고 번역서명을 적는다. 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이용하여 원전의 제목을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로 묶어 역자명을 적고 “역 혹은 편역”으로 번역서임을 표시하고 마침표를 할 것. 그리고 번역서의 출판지와 출판사를 적고, 그 뒤에 원전의 출판 연도를 괄호를 묶어 제시할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괄호 안에 원저자명을 적고 원전의 출판 연도와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할 것.

[예: Rogers, C. R. (1980/2007).].

Rogers, C. R. (2007).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A Way of Being*] (오제은, 역). 학지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④ 정기간행물의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출판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으로 기재하고 학술지명을 이탤릭체로 한다.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 중에 있는 경우 출판연도 대신 (inpress)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Diener, Marc J., & Monroe, Joel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rapeutic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8(3), 237-248.

- ⑤ 연구보고서: 저자(출판연도), 보고서 제목(보고서 번호), 보고서 제출 기관명 순으로 하며 제목을 이탤릭체로 한다.

가) 대학에서 발간된 보고서

Smith, J. E. (2008). *Minority status and schooling*. Stanford University, Hobbes Research Center.

나)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 조직이나 기관명이 저자명이 되며 보고서명을 이탤릭체로 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⑥ 미출판된 박사/석사)학위논문: 저자(출판연도), 제목, 졸업학교 순으로 하고 제목을 이탤릭체로 한다.

Adelmann, P. K. (1989). *Emotional labor of employee well-being*[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Michigan.

- ⑦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

가) 출판된 자료: 제목을 이탤릭체로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힌다.

Deci, E. L., &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rgration in personality*. In Dienstbier, 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나) 미출간된 자료: 제목을 이탤릭체로 한다.

Byun, S. Y., & Kim, K. K. (2007). *Cultural activities and student achievement in East Asian countries: An analysis of PISA 2000*.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Balimore, USA.

- ⑧ 신문기사: 게재면과 출판 연월일을 명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기간행물과 동일하다.

Mayer, C. E. (2005, January 7). Group takes aim at junk-food marketing. *The Washington Post*, pp. E2, E3.

- ⑨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의 경우 사이트명을 이탤릭체로 하며 접속한 날짜와 URL을 작성한다.

National wage data. (2004, April 20). *Bureau of Labor Satistics*. Retrieved January 19, 2005, from [http:// www.bls.gov/bls/blswage.htm#/national](http://www.bls.gov/bls/blswage.htm#/national)

16. 영어논문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영어논문의 작성 양식은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the 7th edition)에 따른다. 논문 분량은 6,000단어 이내(A4 15쪽 내외)로 하며, 초록은 120-15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부부가족상담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 즉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2장 연구윤리

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 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서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9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10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 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2.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2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에서 속이기)

-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4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15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제17조(연구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조사방해·부정행위 강요·연구이탈 행위 등을 말한다.

제18조(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4.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9조(표절)

-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 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③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2.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21조(연구자료의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외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인사 2인 이상과 편집위원 4인 이상을 위촉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학술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회는 확정된 학술윤리위원 명단을 본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6.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학술윤리위원회에 대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용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5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회의)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연구윤리 검증

제27조(부정행위 제보) 제보자는 본회에 구술·서면 및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29조(예비조사의 주체, 기간 및 내용)

- ① 예비조사는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장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접수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30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심의·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해당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③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예비조사결과는 피조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의혹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이유
 - 5. 기타 주요 관련 증거 자료

제3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조사자는 서면 혹은 구술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시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 1. 원칙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제34조(변론의 권리 및 이의제기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변론 및 이의를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또는 논문명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피조사자의 역할
4. 관련 증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요 변론내용과 이의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6조(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율을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① 부정행위를 승인한 판정이 행해지고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적시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연구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8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술지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3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후 5년간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행해진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